EAST ASIAN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LIBRARY SEP 17 1982
130 St. George Street
8th FLOOR
TORONTO, CANADA M5S 1A5

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No. 928 1982년 9월 15일(수)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4 Wednesday, September 15, 1982

한국일보 토론토

토론토발행인 : 김명규
편 집 인 : 이석현
인 쇄 인 : 박정서
광 고 국 장 : 송광호

한인양로원 건립 모금운동 박차

워-커-톤 2일로 박두

한인사회 첫 시도, $2만 목표

「너도나도, 어린이도 어른도, 아내도 남편도, 다같이 걸읍시다.」라고 한인양로원건립추진위원회는 외친다.

영어로 불편을 겪는 교포노인들을 한곳에 모아보자는 취지의 한인양로원건립 모금을 위한 보행마라톤 워커톤(Walk-A-Thon)은 오는 10월2일(토) 아침7시30분부터 토론토 써니부룩축구장(에그링턴×레슬리)에서 열린다.

박인순 토론토 한인회장이 대회장인 이 워커톤에는 이상훈토론토총영사를 비롯한 한국정부기관 대표와 온타리오주를 대표한 래리·그로스만 보건부장관 등을 비롯, 약3백명의 교포 및 캐네디안들이 참가, 약2만달러가 모금될 것으로 양로원건립위는 추산했다.

천중환 한인양로원건립위원장겸 워커톤진행위원장은 13일 "한인 전용의 양로원 건립은 이미 서둘러야했던 시급한 문제다. 토론토 노인만도 약2천여명이며, 현 한국노년회에 등록된 회원만도 6백명, 이들의 평균연령은 68세나 된다. 이를 볼때 앞으로 5~7년내에 하루24시간의 의료서비스를 받아야할 노인들이 급격히 늘어날 것이다. 우리 노인들이 캐네디안 너

싱·홈에 들어 있다면 음식과 언어문제로 얼마나 고통을 당하겠는가?"라고 말하면서 남녀노소를 불문, 많은 교포들이 워커톤에 나와 모금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워커톤 참가자들은 친지, 이웃, 가족등으로부터 "걷는데 따라 돈을 얼마씩 주겠다"라는 약속을 받고 걷는다.

예를 들면 A씨는 친구B씨가 이번 워커톤코스 10Km를 걸으면 "Km당 1달러씩 주겠다"고 약속한다. B씨는 사업을 희생하고 이날 현장에 나와 총8Km를 걸은뒤, 8×$1,00=$8,00을 A씨에게서 받아 양로원건립위에 보내는 것이다.(10Km 풀코스를 다 걷지 않아도 된다.)

이때 A씨는 B씨의 육체적 노력을 보상해주는 뜻에서 돈을 주는 것이고, B씨는 "내몸을 움직여서 모금에 참여한다"는 뜻에서 걷는 것이다.

북미사회에서는 워커톤외에 자전거를 타고 하는 바이카톤(Bike-A-Thon)등이 모금에 이용되며, 어린이, 젊은학생층을 포함한 일반대중이 자선사업을 돕는 뜻에서 자진 참여한다.

특히 어린이들은 이웃집 문을 두드려 약정금을 받아낸다.

양로원위원회는 10-스피드 자전거 10대등 상품을 마련, 최고 모금자와 기부자(스폰서)를 가장 많이 확보한 보행자 5명에게 시상한다.

코스는 공원의 축구장서부터 차도를 따라 에그링톤·에비뉴밑을 통과, 톤그리프·파 주차장까지의 왕복이며, 도중에 검문소가 3개소가 있어 걸은 거리를 체크해 준다.

보행자들은 축구장 출발때 기부약정서 첫장을 주최측에 주어야 한다. 10Km 중 일부만 걸어도 되나 중도포기때 검문지점의 확인 체크가 있어야 한다.

주최측은 골프장의 18홀 직선거리가 약6Km이므로 보통수준의 골퍼가 골프장에서 걷는 총거리를 약8Km 정도로 총 보행시간 약 2시간반의 워카톤 10Km는 큰 어려움이 아닐 것으로 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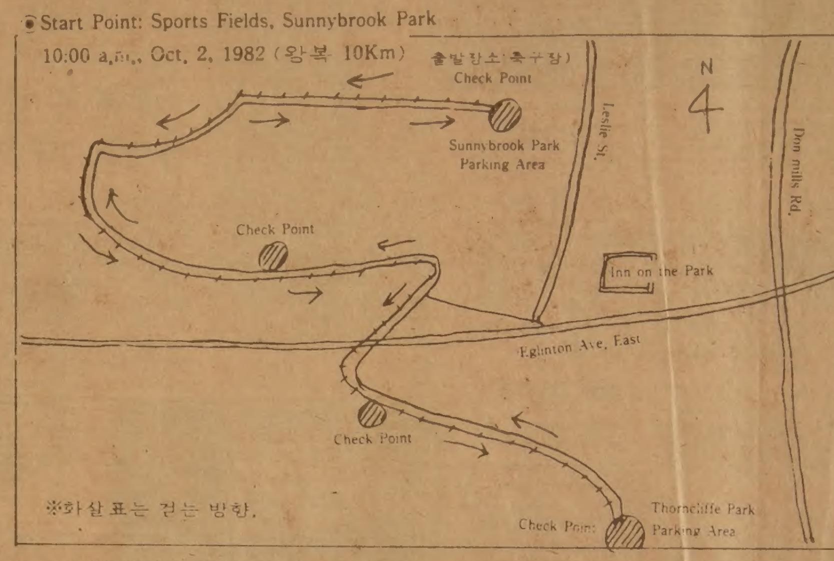
주최측은 음료수, 응급치료약등을 준비하고, 만약의 사고에 대비, 1백만달러 보험에 드는등 만전을 기하고 있어 한인사회 최초의 워카톤을 크게 기대를 모으고 있다.

기부약정서 용지, 참가법 설명문등은 교회를 통해 배포중이다.

◇래리·그로스만 장관

◆박인순 한인회장

◆천중환 위원장



◆한인양로원 건립 기금 마련을 위해 10월 2일 실시되는 보행 마라톤 워커톤의 코스약도

16개소 파헤쳐 교통체증

메트로 도로공사 만발

여름이 끝나면 꽃은 시든다. 그러나 메트로·토론토의 도로보수공사는 여름이 종적을 다감춘 이번주에도 아직 꽃이 만발하다.

현재 진행중인 도로공사 현황은 다음과 같다.

○베더스트·스트릿: 세인트·클레어·에비뉴와 서부에그링톤·에비뉴 사이.

○케네디·로드: 페스모어·에비뉴와 스틸스·에비뉴 사이

○오코너·드라이브: 페이프·에비뉴와 우드바인·에비뉴 사이.

○스틸스·에비뉴:더프린·스트릿과 엘니스·스트릿 사이.(이달말까지 공사 계속)

○블루어·스트릿·웨스트: 프린스·에드워드·드라이브와 킹스웨이·크레센드 사이의상수도본관 시설공 사.

○베이·스트릿: 프론트·스트릿과 레익셔·블르바드 구간의 인도확장 공사.

○킹·스트릿·이스트: 수마크·스트릿과 팔리아먼트 구간이 하수도 건설공사.

○하이웨이 401: 웨스톤·로드와 하이웨이 400 사이.

○스틸스·에비뉴: 워든·에비뉴와 케네디·로드 사이.(11월말까지 공사 계속)

○영·스트릿: 로렌스·에비뉴와 크레익허스트·에비뉴 사이.

○킹·스트릿·이스트: 자비스·스트릿과 쉬번·스트릿 사이.

○퀸·스트릿·이스트: 빅토리아·스트릿과 처치·스트릿 사이.

○퀸·스트릿·웨스트: 스파다이너·에비뉴로 올라가는 2개의 차선이 제한되고 있음.

○페입·에비뉴와 오코너·드라이브 구간: 보수공사때문에 교통이 체증될 것임.

○제라드·스트릿과 브로드뷰·에비뉴 구간: 역시 보수공사때문에 교통이 체증될 것임.

○제인·스트릿: 폭스웰·스트릿과 럼턴·에비뉴 사이.(11월중순까지 공사 계속)

미스 서울 납치극

한국경찰, 임의동행으로 발표

(서울14일=연합)한국의 치안본부는 14일 금년도 미스·서울로 당선된 이순복(28)이라는 여인이 미국으로 강제 납치되어 납치자에 의해 능욕되었다는 외신보도와 관련, 이양은 납치된 것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동행한 것이라고 발표했다.

치안본부는 또한 이양과 동행한 남자는 한승회(28)라는 인물로 전에 이양과 동거한 애인 이며 전과 기록자로 밝혔다.

한편 이양은 금년도 5월에 열린 미스·코리아 선발대회에 이유정이라는 가명으로 출전, 미스·서울로 당선되었으며, 또한 인기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치안본부 발표에 따르면 이양과 한씨는 미국에서 10차례 서울에 있는 이양의 가족에게 "곧 돌아갈테니 걱정마라"는 내용의 전화를 10차례 이상이나 걸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8월16일 자취를 감춘후 부로커에게 8백만원(미화 10,767달러)을 주고 만든 가짜 여권을 소지하고 9월4일 출국했으며, 이들이 소지한 여권은 강상돈이라는 25세의 실업인과 한국 제크린·그레이스사(Korea Jacquline Co.)의 대표인 김민순(29)씨의 명의인 것으로 경찰조사에 의해 밝혀졌다.

발표에 의하면 한씨는 이양이 미스·서울로 당선된후 자신을 돈많은 재미실업인으로 접근해 가까워지게 되었으며, 이들은 지난해 10월하순부터 동거하기 시작, 금년 8월초순께 강남지역에 아파트를 세얻어 살았다.

그러나 한씨가 전과 사실이 있고, 또한 과거에 결혼을 해 아이가 2명이나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이양의 가족들은 이양의 한씨와의 관계를 반대하며 이양을 집으로 데리고 왔다.

이양의 가족들에 의하면, 이양은 8월16일 40대로 보이는 여인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남동생과 함께 그 여자를 만나기 위해 인근 다방으로 나갔다. 같이 간 동생의 말에 의하면 자기는 다방밖에서 10분가량 기다린후 들어가보니 누나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한편 목격자의 말에 의하면 이양은 남자2명에 의해 강제로 차에 끌려 들어간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경찰조사에 의하면 이양은 1978년 서울에 있는 모 미술대학을 졸업했으며, 금년 4월1일부터 5월20일까지 주한 일본대사관에 근무했다.

한편 치안본부는 14일 국제범죄경찰기구(Interpol)을 통해 이들 남녀와 이들이 소지한 여권의 인도를 요구했다.

한국경찰은 이들이 소지한 여권이 외신이 보도한 바와 같이 위조된 것인지 아니면 전문적인 위조단이 개입되어 있는지를 집중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한씨가 미국조사당국에 자신들의 여권은 8백만원을 주고 의정부에 사는 이철(52)씨에게서 샀다고 진술한 것과 관련, 이철씨의 집을 찾아갔으나, 이씨는 9월10일에 집을 나간후 돌아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한씨가 소지한 여권의 명의가 강상돈으로 되어 있는 것을 밝힌 경찰은 강씨의 소재도 찾고 있으나, 이 사건이 보도되자 자취를 감추고 있다. 경찰은 강씨가 브로커에게 자신의 여권을 팔았거나, 한씨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미스·서울 이양이 소지하고 있는 여권의 주인으로 알려진 김민숙씨는 한씨에게 자기의 여권을 빌려주었으며, 김민숙씨는 지난6월16일 미국에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한씨를 처음 만나 그후 친한 사이가 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의류 수출·수입회사인 Korea Jacqúline 의 대표인 김씨는 경찰조사에서 한씨가 자기를 약혼자로 소개하기 위해 어머니에게 여권에 붙은 사진을 보여 주고 싶다기에 8월16일 여권을 한씨에게 빌려주었으며, 몇일후 한씨가 찾아와 강상돈이라는 자기삼촌이 미국여행을 하려고 하는데 초행길이니 같이 동행해 주겠느냐고 하기에 이에 응하고 비행기표2장을 사 한씨에게 건내주었다고 말했다.

그후 김씨는 경찰에 여권 분실신고를 한후 여권을 새로 발급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포공항측은 이양과 한씨가 9월5일 L.A행 대한항공 016호 편으로 출국했음을 확인했다.

콜로라도주 리틀톤발 외신은 미국형사대가 9월11일 콜로라도의 한 호텔에서 한씨를 납치및 강간혐의로 구속했으며, 한씨가 구속됨으로써 이양은 한씨에게서 풀려나게 되었다고 보도했다. 토론토·선지동 캐나다신문도 이 사건을 보도했다.

◀사 고▶

한국 독립기념관 건립기금 모금

모국에서는 현재 「독립기념관 건립기금 모금운동」이 한창 열띠게 전개되고 있으며, 전국적 호응을 받고 있읍니다.

지난날 우리 조상들이 이룩해 놓은 배달민족의 얼과 자주독립을 향한 피어린 발자취를 찾기 위한 열망이 전국에 메아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본사는 이 운동에 적극 호응, 해외에서도 모금운동을 펴고 있사오니 많은 협조로 정성어린 성금 모으기에 호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립기념관을 세우는데 있어 해외교포들의 뜨거운 성금은 크나큰 힘이 될 것입니다.

모집기간 : 82년 9월~
보낼 곳 : 토론토한국일보사
(1025 Dupont St. M6H 1Z7
전화 : 533-2361) Tor.
※겉봉에 「독립기념관 건립기금」이라고 쓸 것.

조상의 독립심 기리는 성금
너도 나도 참여하자

SUNLIFE
백 용 빈
생명보험, 주택보험
R. R. S. P.
사업보험, 상점보험

B) 497-3800
R) 284-90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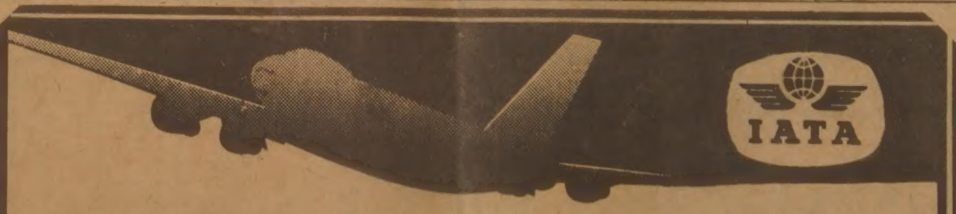
미도파 백화점
454 BLOOR ST W
B 536-1692
R 245-3539

강화수 종합보험

Canada Life 15년근무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 R. S. P 은퇴연금
B) 868-0922
R) 622-51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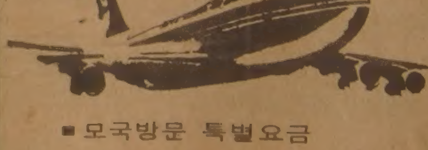
DeWitt
JEWELS LIMITED
이달의 SPECIAL
1/2 Carat
Diamond Cluster
Ring
– Reg. 1,000.00
– Spec. '749.95

Coin Jewelly
고급시계
이태리 수입 고급
귀금속 취급
Assistant Manager
지니·장(Mrs. 장)
TORONTO EATON CENTRE
3RD LEVEL (MAIN FLOOR)
(EATON & SIMPSON사이)
☎ 979-9920



IATA
여름철 특별봉사
○ 서울단체 매일출발
○ 방문초청 특별요금
이제는 친구및 3촌 이상 친척까지 초청의 문호 개방.
단: 항공료와 체재비 부담조건.
○ 국내, 국제항공표 일체
신세계 NEW WORLD TRAVEL
봉사와 개척의 여행사
712 Bloor Street West,
Toronto M6G 1L4
536-2155 · 2156
R) 492-7525 김 창 범

제일여행사



■ 모국방문 특별요금
KAL(뉴욕 또는 LA 경유)
CP. JAL(VANCOUVER 경유)
■ 국내, 국제 항공권 일체
■ 각종단체 관광요금
■ 여권, VISA 수속 서비스
■ 방문초청, 이민초청
(제반수속 안내및 작성)
(B)535-2377
(R)366-0864
649A BLOOR ST. W.

유지원
신용목

DEAR MAILPERSON : PLEASE DO NOT DELAY. THIS IS A DAILY

East AsianLibrary
Rm 01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Ont
M5S 1A5

한인미술인들의 발표의 광장

화랑『웨이사이드』출범

18일부터 개막기념 6인 초대전

한인 코뮤니티 예술인으로서는 비교적 유기적 활동이 적었던 미술인들이 모여 화랑을 만들고 첫 전시회로 오는 18일부터 3주간 그룹전을 갖는다.

갤러리·웨이사이드(Gallery Wayside), "길섶화랑"이라고 번역될 수 있는 이 화랑은 온타리오 미술대학(OCA), 토론토대, 욕대등을 졸업하거나, 현재 재학중인 젊은 한인 미술가들이 발표와 배움의 터전을 마련키 위해 약6개월간의 준비끝에 마련했다.

웨이사이드화랑 개막기념 초대전에 출품하는 그룹은 OCA출신의 김인호, 조중협, 조영미, 김길수, 정성덕씨, 욕대학생인 엄혁씨 등 6명.

이들은 그동안 틈틈히 만든 작품 5·6점 선보인다.

"미술을 좋아하고 화랑을 아끼는 사람은 누구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웨이·사이드 화랑은 영·스트릿과 하이웨이 7이 만나는 9185 Yonge St. 힐·크레스트·몰 바로 앞에 위치해 있다.

좀 더 토론토 중심부에 가깝지 못한 것이 흠이지만 1층 1,300평방피트, 지하 1,000 평방피트 모두 2,300평방피트 크기에 조명과 카페트등 분위기 좋은 화랑으로써 손색이 없다.

"보통 화랑은 아마추어 화가들을 잘 받아들여 주지 않고, 또 화랑주인이 화상들로 팔리는 작품들만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우리같은 에트닉 미술인들의 발표공간은 전무하다시피 했다. 이런점에서 볼때 웨이사이드의 출현은 큰 자극과 격려가 돼준다. 웨이사이드를 한국인미술가들이 서로 대화하고 배워가는 공감대의 광장으로 삼았으면 한다"고 말하는 김인호씨는 머지않아 이곳에서 개인전도 가질 계획이다.

그는 OCA를 거쳐 2년간 이탈리아에 유학했다.

사실상 〈웨이드사이드〉를 운영해 나갈 주인격인 김길수씨는 "그림하는 한국인들끼리 깊은 내부를 주고 받는 기회가 별로 없었다. 미술가협회라는게 있다는 말은 들었지만 구체적으로 모임을 갖는 것은 보지 못했고, 음악인·문학인들에 비해 한인 순수미술인들의 활동은 거의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 자녀에게 그림을 기르치고 싶은 한국인 학부모들의 상담역도 아무도 해주지 못하는 실정이다. 혼자서 작업해 오던 사람들에 활력소가 되는 계기, 언제고 그림을 걸수 있는 벽이 되주었으면 한다"고 말한다.

이들이 전하는 캐나다 미술계의 현황에 따르면 토론토에는 80여개의 화랑이 있으며, 순수미술뿐아니라 상업미술면에서도 OCA는 캐나다에서 가장 이름난 미술학교로 꼽힌다. 그밖에 B.C주 밴프의 밴프·스쿨·오브·아트의 여름학교도 권위가 있다. 이학교에서 배출된 7인그룹(Group of Seven)이 캐나다미술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도 특기할 만한 일이다.

이번 웨이사이드 개막전시회에 출품될 작품으로 유화·수채화·드로잉(데상)등. 일부 작품은 구입가능하다.

화랑유지를 위한 경비는 부업인 액자제작(Frame work)으로 일부 충당된다. 액자 기술자인 김길수씨가 동양화 표구전문가인 강경철씨와 함께 직접 액자를 실비로 만들어 준다.

개막 그룹전이 끝나는대로 한국문인협회의 시화전이 계속될 예정이다.

개막기념 리셉션은 17일(금)저녁7시 화랑에서 있을 예정이다.

화랑 전화번호는 886-1660.

◆ 18일부터 3주간 계속될 개막기념 초대전을 앞두고 준비에 여념이 없는 화가 김길수씨(위)와 김인호씨. (10일 웨이사이드 화랑에서)

미스·아메리카에 선출된 데브라·마펫양

11일밤 애틀랜틱·시티에서 83년도 미스·아메리카로 선발된 데브라·마펫 양(25)

금년도 미스·캘리포니아인 데브라양은 5피트 7인치, 115파운드 체중에 35-22-35의 체격을 가졌다.

캔사스에서 출생 현재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는 데브라양은 남·여 동등권 수정안을 지지하며 레이건대통령이 직무를 "괜찮게" 수행해 나간다고 생각하는 공화당원.

라마대학을 졸업했고 인공유산을 반대하지만 정부가 제도적으로 이를 불법화하는 것은 찬성 않는다고.

미스·아메리카가 됐다고 해서 자기의 인생에 큰 변화가 올 것으로 생각지 않으며 자신은 언제나 "데브라·마펫"이라고 선언, 상당히 차분한 성격의 소유자임을 보여주었고 미스·아메리카가 내 생의 정점도 아니라고 한것으로 보면 야심도 만만찮은 듯.

교민동정

◆박남진=장녀 현주양과 조상민씨 3남 덕근군의 약혼식을 11일하오 스카보로 자택에서 가졌다. 두 약혼자는 오는 10월말이나 11월초에 결혼식을 가질 예정. 약혼식장서 박씨는 "딸 3명을 매년 1명씩 결혼시키겠다"고 말했고, 조씨는 "4형제중 막내만 장가보내면 큰 짐을 벗는다"면서 이번 경사를 기뻐했다.

신랑 덕근군은 부친과 함께 상점 내부시설, 가옥개조, 사우나설치등의 목공, 실내장식업(Fine Woodwork)을 하고 있다. 큰형 부부는 그래픽·디자이너이며, 실내장식가인 조덕남씨와 소프라노 노혜일씨이다.

◆손일근=금년도 캐나다전국 트랩·슈팅선수권대회 쥬니어부(16세 미만) 챔피온인 아들 손훈군(16)이 새 코치를 만나 사격에 더욱 정진하는 것을 흡족히 생각하고 있다. 현재 캐나다챔피온 죠지·리어리(Leary)씨의 부친이 "손군이 사격으로 대성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 맡아 기르겠다고 자원, 손군은 지난 4일부터 정신자세부터 새롭게 훈련받고 있다. 사격선수로 정부의 지원금도 받은 손군은 사격뿐아니라 태권도 유단자이며, 학교의 밴드부원이다.

테니스 개인교수까지 시킨 손씨는 "자녀들을 위한 일이라면 많은 돈이 들더라도 각 방면의 좋은 선생을 찾아 배우게 하고 싶다"고 말했다.

◆전광재 (서부 아카데미 TV대표)=지난4일 첫아들 효진군을 낳았다. 아기의 몸무게는 8.8파운드. 전씨는 전택균장로의 막내아들이다.

◆김춘탁 (킴스카메라 대표)=곧 레이섹의 버라이어티 가게를 인수한다.

◆서춘봉 (하르빈한약상사 대표)=영×세인트·클레어에 새집을 장만한 서씨는 9월하순경 한달 예정으로 미국일주 여행을 떠난다.

◆정동훈 (도예가)가을학기부터 뉴욕주립대학에서 도예학 석사과정을 시작하기 위해 13일 뉴욕으로 떠났다.

미술의 중심지가 프랑스 파리에서 점점 뉴욕으로 옮아가고 있고 또 뉴욕중 화랑이 많이 있는 소호지방에 정착케 돼 크게 기뻐하는 정씨는 또 지난주 한국에서 온 부인과 만도 기쁨이 겹쳤다.

성대 동창회 25일 임시모임

성균관대 동창회(회장 김영태)는 오는 25일(토) 하오7시 전창원부회장댁에서 임시 집회를 갖는다.

연락처는 김춘탁씨(534-1085), 김영창씨(233-2471)

◆다이아몬드 골프세트-일본서 제조된 세계에서 가장 비싼 골프공과 골프채. 1배21개의 다이아가 박힌 18금 골프채는 약70만달러, 3백36개의 다이아가 박힌 골프공은 약2만1천3백20달러라고 한다.(도쿄)

주말에 더많은 교통사고

지난 11, 12일 〈온〉주민 12명사망

지난 주말인 11일과 12일 온타리오주내에서 일어난 도로교통사고로 12명이 사망했다.

미시사가에 거주하는 53세의 한남자가 12일 윗처지부근 소도로에서 서쪽으로 혼자 차를 몰다가 낭떠러지로 떨어져 사망했다고 요크지역경찰이 발표했다. 가족과 연락이 될때까지 경찰은 사망자의 신원을 밝히지 않을 것임.

메드라인·톰슨(46)여인이 편승해 가던 오토바이가 11일 던더·베이지역내 터원·시티 교차로 부근에서 마주오던 자동차와 충돌, 사망했다.

윌로데일에 사는 미첼·왓드(30)씨는 그레번허스트 공항로 북쪽 반마일 부근인 11하이웨이상에서 몰고 가던 차가 굴러 떨어져 사망했다.

미시사가에 거주하는 37세의 남자가 11일 아침 퀸·엘리자베스·웨이에서 몰고가던 차를 트랙터·트레일러 후미를 들여받는 바람에 사망.

크리스토퍼·바레크(22)군과 그의 여자친구 루박·파도퍼(21)양은 해밀턴부근 6번 하이웨이 도로상에서 북쪽으로 달리던 다른 차에 그들이 타고 가던 차가 받치는 바람에 차밖으로 튕겨나오면서 그자리에서 사망.

토론토의 키와틴·에비뉴에 사는 킴버리·마티니(12)양은 11일 아침 친구집에 가기 위해 피자를 가지러 자전거로 집에 오던길에 버스에 치어 사망. 이 사고는 버익크·에비뉴부근 영·스트릿 노상에서 일어났으며, 사고 당시 마티니양은 남쪽방향으로 자전거를 타고 있었다.

이외에도 노상 사망 사고가 34번 하이웨이, 퀸·엘리바베스·웨이, 6번 하이웨이등에서 일어났다.

씨알학교, 백인교사 채용

중고반·수학반등 신설

토론토의 씨알한국인학교(교장 유회자)는 가을 신학년도부터 중·고등부를 설치, 한국말을 모르는 중·고교생과 씨알학교 초등부 졸업생들을 받아들여 가르치기로 했다.

한편 일반학교 공부에 도움되는 영어·수학등 과목도 신설, 최신형 콤퓨터 「Commodare 64」 3대를 구입, 특수프로그램을 가르친다.

학부모들을 위한 「성인영어반」도 병설, 케네디언 교사가 가르치기로 했다. (수강료 없음)

〈겨울나그네〉공연 대비 싱잉·커플즈 회원모집

부부합창단 싱잉·커플즈(지휘 김승순)가 새회원을 모집한다.

한인사회에서 유일하게 OCF(Ontario Choral Federation) 회원인 싱잉·커플즈는 슈베르트의 〈겨울나그네〉전곡을 연주할 82·83년도 발표회를 앞두고 지난10일 연습을 시작했다. 공연을 위해 지휘자 김씨가 〈겨울나그네〉를 편곡했다.

친목과 예술을 겸한 싱잉·커플즈에 참여할 커플은 881-8879, 881-8230 이병규씨 앞으로 연락하면 된다.

두편의 한국영화상영

수익금 $1,600여 소록도에

승공문화협회(회장 이근우)가 토론토 교민들을 위해 마련한 2편의 한국영화 「사랑의 뿌리」, 「사랑의 원자탄」은 지난10일과 11일, 2일간 입장객 1천600여명의 대성황을 이루었다.

이 영화 감상회에서 1인당 1달러씩 걷힌 1천여 달러는 처음의 목표대로 소록도 나환자촌에 기증, 천대성 목사편에 전했다.

천목사는 부산 자애원교회 목회자로 소록도 선교담당, 자선사업가로 지난9일 토론토에 도착, 13일 출발, 승공협회의 선금을 들고 소록도로 향했다.

새映画

▲왕과 스티브가 찾고 있는 것은 미국내 동양인들이 동화과정서 겪는 갈등이다.

영화는 대만출신으로 상항차이나타운서 사업을 하는 챈이 느닷없이 실종되자 그의 친구인 택시운전사 조(우드·모이)와 조의 조카 스티브(마크·하야시)가 챈을 찾아다니는 것이 줄거리.

흑백에 촬영도 조잡한 이영화는 조와 스티브가 차이나타운을 헤집고 다니면서 나누는 대화와 만나는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 황색인종의 미국내에서의 동화문제와 문화충돌 그리고 언어갈등등을 그리고 있다. 그리고 나이먹은 조와 젊은 스티브를 통해 세대가 다른 두 사람이 어떻게 미국을 받아들이고 있는가도 함께 보여주고있다.

『너는 이곳에 속해있지 않다』『1백년이 되도록 이곳서 살고있는 우리를 미국인들은 여지껏 인정하지 않았고 하려들지도 않으며 앞으로도 인정 않을 것이다』는 말들은 미국서 사는 동양계라면 한번쯤 수긍이 가는 절규이지만 영화자체가 너무 졸렬해 그 진실도가 어필하질 못하고있다.

챈의 실종

美國內 황색인종들의 착잡한 갈등이…

「Chan is Missing」은 아시안 아메리컨만의 손으로 2만달러라는 제작비에 불과 열흘만에 만들어졌다는 사실에는 감탄을 금할수 없으나 소위 이 영화가 추구하고자 하는 미국내 소수민족의 갈등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해 습작품의 수준에 머물고 말았다.

미국인으로서야 자기 나라에 사는 유색인종이 자기들과 동화하려고 애쓰는 모습이 신기하게 보일지 모르나 같은 황색인으로서는 이작품의 취지에 공감을 하면서도 영화가 영화로서 갖출 모든것이 원시적이어서 실망이 크다.

드릴러와 코미디의 표현기법을 섞어 무거운 주제를 노골적으로 드러내지 않은 점은 재주가 엿보이기도 하지만 과연 구경온 많은 미국인들이 얼마나 공감을 했을까 의문이 간다. 동양인으로 미국의 배척에 메아리없는 포효만 한것이라면 허무하기 짝이없고,

챈이란 인물은 사실 우리 동양인 모두가 미국에서 겪는 모순되고 착잡한 갈등을 말하고 있다. 우드·모이의 나이먹은 동양인다운 유유하고 멍청한 연기가 돋보인다.

웨인·왕감독

합창단모집공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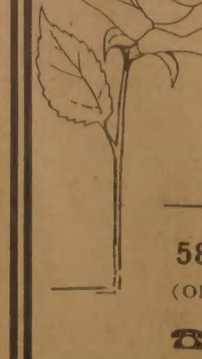
본 부부 합창단에서는 아래와 같이 합창단원을 모집합니다.

자격 : 1)열과성을 가지고 합창을 할수있는 부부
2)미혼자 또는 씽글로서 합창을 원하시는 분

모집인원 : 각 파트 약간명
기간 : 1982년 10월1일까지
연습시간 : 매주 금요일 오후 8시
연습장소 : 7 GRAPNA AV. (빌라멜비아 장로교회)
연락처 : 881-8879, 881-8230
이병규

한국인 경영의 최대규모의 꽃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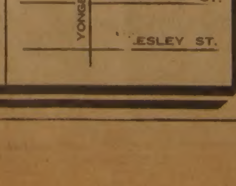
YONGE FLOWER SHOP



◎ 각종 PLANTS, 어랜지먼트, CUT FLOWER, SOIL 취급.
◎ 결혼·장례·생일·파티등 화환전문 (일류 FLOWER 전문가)

토론토 전지역 배달……

589 YONGE ST.
(ONE BLOCK NORTH OF WELLESLEY ST.)
☎ : 960-6265 MR. 김



목사청빙공고

본 몬트리올 한인장로교회(캐나다장로교 노회에 가입)에서는 목사님을 아래와 같이 구합니다. 뜻이 있는 목사님은 아래 주소나 전화로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격: ▲북미주 정규장로교 신학대학졸업 또는 동등자격자.
▲2년 이상의 교역 경험자
제출서류: 국문과 영문 이력서 2통과 사진첨부(가능하면 설교 TAPE 동봉)
대 우: 캐나다 장로교회 교역자 대우와 동등한 대우
제출기간: 1982년 10월 10일까지
제 출 처: 6570 SHERBROOKE. W. MONTREAL, QUE.
전 화: 1-514-481-8270

몬트리얼한인장로교회
목사청빙 위원회

이철수, "산넘어 또 산"

『제2살인사건』남아

살인사건 현장 부근에 있은 것이 화근이 되어 살인자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 9년!

다행히 현장을 목격한 유력한 증인들이 나타나 무죄언도를 받은 이철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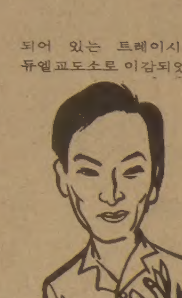
그렇게 되기까지 억울한 사정을 밝혀내어 무죄한 사람을 구출하기 위해 조직된 「이철수후원회」의 눈물겨운 백방노력이 결실하여 「무죄」가 판명되었다.

그러나 형무소에서 흉기를 휘둘러 자기를 죽이려는 갱 두목과 대결, 정당방위로 그를 죽인것이 "살인이냐? 정당방위냐?"로 아직 판가름나지 않은 「이철수 제2재판」의 숙제로 남아있다. 따라서 「이철수재판」은 다 끝난것이 아니고, 가장 아슬아슬한 고비를 넘겼을 뿐이다.

이철수씨 사건은 마치 영화스토리처럼 파란만장한 성격을 띠고 있다. 그에게는 제2사건의 재판이 또 남아있다.

74년7월10일 이철수씨는 새크라멘토지방법원에서 차이나타운갱살인범으로 몰려 종신형을 선고받자 너무나 억울해서 고함을 질렀다.

그후 갱범죄자들이 수감되어 있는 트레이시지역 듀엘교도소로 이감되었다.



어느날 이 교도소내의 유명한 갱두목 모리슨·니드햄이 칼을 품고 이철수씨에게 다가와 싸움이 벌어졌다.

그는 자신이 죽지않기 위해 싸웠다. 니드햄이 쓰러졌다. 1977년10월8일 한낮 교도소운동장에서 일어난 사건이었다. 이때까지 이철수씨는 「모범수」로 평가받아 왔다.

죽은 모리슨·니드햄은 뉴나치의 백인우월주의자로 「변덕스럽고, 공격적이고, 극악한 살인을 하고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자」로 교도소내 보고서에 기록되어 있다. 그는 이 사건에서 살인범이 살인했다 하여 사형선고를 받았다.

이철수후원회에서는 옥중사건이 「정당방위」였음을 주장하고 있다.

현재 새크라멘토항소법원에 계류되어 있는 제2사건 심리는 세갈래로 판결이 나올 수 있다.

첫째는 사형선고의 번복이다. 즉 1심이 잘못됐으니 재심을 하여 제2사건 자체를 무죄로 판결하는 경우이다.

둘째는 제2사건 판결내용의 재확정인데, 이 경우는 이미 지난3일 제1사건 무죄평결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세번째는 제2사건의 재판이 다시 열렸을 경우 형량이 조정되는 케이스다.

이경우 그는 이미 9년3개월을 복역했기 때문에 나머지 형량을 복역하면 된다.

제2사건은 캘리포니아항소법원(전에는 대법원에서 취급했으나 법이 바뀌었음)에 계류되어 있으며, 이철수씨가 제2사건을 다시 재판받으려면 우선 항소법원의 결정이 있어야 한다.

형량이 감형되는 경우는 판사3명이 합의부에서 처리할 수도 있으며, 꼭 다시 재판을 해야되는 것만은 아니다.

만약 이철수씨와 제2사건이 현재의 First Degree Murder(고의살인)에서 Second Degree Muder(고의없는 살인)으로 바뀌기만 한다면 추정되는 형량은 7년~9년이다. 이렇게 되면 이철수는 즉각 석방되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철수씨의 변호사들은 앞으로 3주후에 제2재판이 열리기까지 이철수씨를 보석신청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10만달러 이상의 보석공탁금이 있어야 한다.

이철수돕기운동은 무죄판결로 매듭지어진 것이 아니라, 이제 마지막 도움이 필요하다. 무죄판결에 감격만 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지금까지 후원대열에서 뒤처져 있었던 교포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활짝 열려있다.

「산넘어, 산넘어 산」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산넘어 산」이 남아 있을 뿐이다.

〈LA지사 변홍진기자〉

치정과 恐怖의 추리소설

第5의 사나이

<68>

金聖鍾 작

어떤 殺人 ⑮

『한시간안에? 시간이얼마없군。』

두봉은 시계를 들여다보고나서 중얼거렸다。10시30분이 막 지나고 있었다。

『그놈이 이리루 온단 말이지。예상했던대로군。』

『어떡 하실거예요?』

공포에 잠겨있던 그녀의 눈이 어떤 방법을 찾아 번득이고 있었다。두봉은 어떤 형태로든 결정을 내리지 않을수 없었다。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여기서 틀리면 저는 파멸이에요。』

누이의 말이 폐부 깊숙이 찔려왔다。그는 자신이 몰리고 있음을 깨달았다。그러나 아뭏든 그는 결정을 내리지 않을 수없는 입장이었다。이제 와서 모르겠다 하고 나자빠질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먼저 그놈을 만나서 협상을 벌여보겠다。도대체 언제까지 괴롭힐 셈인지 따져 묻고 돈이 필요하다면 얼마 더주고 다음부터는 손을 떼도록 말이다。물론 단단히 약속해야 되겠지。절대 두번 다시 손을 내밀지 않는다는 약속을 받아내야하겠지。그리고 두 사람의 관계는 절대 발설하지 않기로 하고…』

그의 말은 너무나 평범해서 어떤 방법이라고 할수도 없었다。잔뜩 기대를 걸었던 문자는 너무 실망한 나머지 말이 다 나오지 않았다。

『문제는 그놈이 얼마를 요구하느냐 하는 거겠지。』

『오빠, 그놈이 신사협정 같은걸 지킬 놈인줄 아세요? 그놈은 사람이 아니예요。만일 협상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 어떡 하시겠어요?』

『그때는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지。』

『그게 뭐예요?』

두봉은 호주머니에서 두개의 조그만 약병을 꺼냈다。

『이걸로 놈을 잠재울 수밖에 없겠지。』

문자의 입이 벌어졌다。그녀는 아무도 없는데 괜히 주위를 둘러보았다。그녀의 눈이 무섭게 빛났다。

『이, 이게 뭐예요?』

『약이야。하나는 마취제고 하나는 청산이야。』

『어떻게 하실려고 이런 걸 가져오셨어요?』

『나도 모르겠다。그냥 한번 가져와본 거야。아무리 궁리해도 적당한 방법이 떠오르지 않고해서 그냥 한번 가져와본거야。』

그녀는 흡수하듯 약병들을 노려보았다。그것은 거부의 눈길이 아니었다。그녀의 눈깊은 곳에서는 일말의 기대같은 것이 번득이고 있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그들중 한 사람이 안된다고 완강히 말했다면 그 약병들은 버려졌을 것이다。그러나 그들 오누이는 그런말 하는 것을 서로 미루고 있었다。그들은 거의 동시에 시계를 보았다。11시였다。그들은 초조했다。그녀는 파멸로부터 헤어나고 싶었고 그는 2천만원이라는 거금을 손에쥐고 싶었다。그 두개의 목적을 동시에달성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었다。그리고 그들은 가장 이상적인 공범이 될 수가 있었다。

그녀는 오빠가 결정을 내려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다。그가 결정을 내리면 얼마든지 따라가줄수 있을 것 같았다。

마침내 두봉이 먼저 침묵을 깼다。

『시간이 얼마 안남았어。』

그는 손톱으로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았다。

朴 男 그림

두봉은 약병을 꺼내며 "이걸로 그놈을…"

생활영어 7

민병철 담당

(시카고 한인 영어연구원장)

ARE YOU PULLING MY LEG?

어느 유학생이 학교 cafeteria(구내식당)에서 같은반 학생과 점심을 들던 중 「내 roommate가 이번에 10만불짜라 복권에 당첨되었다」My roommate won a hundred thousand dallars of lottery.라고 하니까 상대방이 Are you pulling my leg?라고 말했다.

「당신이 내 다리를 잡아 당기는 겁니까?」로 알아들은 이 학생은 No.라고 대답해 놓고서도 왜 갑자기 Are you pulling my leg?라는 말이 튀어 나왔는지 이해하질 못했다. Pull one's leg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우스운 이야기를 사실로 받아들이게 하다」의 뜻으로 「농담이겠죠?」「놀리시는 거죠?」에 해당된다.

「처음에는 그사람이 백만장자라고 믿었는데 나중에 그가 농담을 했다는 것을 알았다」를 영어로 해본다면, At first I belived that he was a millionaire. Then I realized he was pulling my leg.라고 하면 된다. I just discovered gold in my back yard. 「우리 뒷마당에서 금을 발견했다」고 하는 사람에게 You're pulling my leg.라고 했다면 「농담이시겠지요?」라는 말이 된다.

「농담이시겠지요」에 해당하는 말로는 You're joking. You must be kidding.등이 있다.

A : There's an elephant loose in the steet!
B : Do you expect me to believe that?
A : Really! It's true!
B : How did it get there?
A : it escaped from the circus.
B : Are you pulling my leg?
A : 거리에 풀려난 코끼리 한 마리가 있어요.
B : 그걸 믿을거라고 생각하세요?
A : 정말이예요! 진짜라구요!
B : 어떻게 거리로 나왔지요?
A : 써커스단에서 도망쳐 나왔어요.
B : 놀리시는 겁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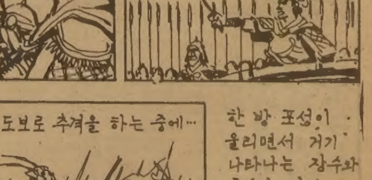
※loose(lu:s): 풀린, 매지않은 lose(lu:z)「잃다」와 혼동하지 않도록.
roommate : 동숙자
lottery : 복권, 운
「발음」(believe)회화체에서는 「블리브」로 발음되는 경우가 많다.

THE KOREA TIMES is the only Daily (Except Sundays) serving the Korean-Canadians Fri. & Sat. issues printed together. Established 1974. Subscription $99./yr. $9./mo. 구독료 (선금) 년$99. 월$9. 영구구독 : $500, ISSN 0712-1733 2nd Class Mail 5248

새로 개업한
서울식품 서부지점
★배추김치·총각김치·파김치·부추김치·오이소백이전문.
※ 좋은 품질로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봉사합니다.
☎ : 243-9544
1391 WESTON RD

한국일보는 가장 넓은 지역에서 가장 많이 읽히는 일간신문입니다

한국비데오센타
— 각종 비데오테잎 대여전문
— 품질보장·신용본위
— 비데오 기게·TV판매
☎ 532-0210 손병헌



젊은이들을 위한 특별 집회

I FOUND IT!

나는 찾았네!

강 사 : 김준곤 목사
한국 대학생 선교회(C.C.C.) 이사장 · 동 아시아 C.C.C. 대표
장 소 : 한인장로교회 (1183 Davenport Rd.)
시 간 : 9월28(화), 29(수), 30(목) (오후6 : 30 부흥집회)
9월30일 (오후 1 : 00 leadership trainning)

주최 : K.I.V.F., SOWERS, Y.F.C
후원 : 교역자협회, 교사 연합회, 장로 연합회

固定間諜團 29명 검거

安企部발표

서울·忠北거점으로 25년간暗躍

국가안전기획부는 10일 서울과 충북을 거점으로 25년간 장기 암약한 간첩 宋智燮(59·전軍헌병기관원)宋基駿(54·大進화하대표) 宋賓燮(58·전서울시공무원)韓洸洙(69·전梨大교수)등혈연중심으로한 고정간첩단 29명을 일망타진, 이중 간첩7명과 간첩방조자 5명등 구속하고 4명은 불구속 송치했으며 개전의정이 뚜렷한 나머지 13명은 훈방했다고 발표했다.

안기부는 이들간첩단은 6·25때 충북도 인민위원회 상무부장으로 부역하다가 월북하여 북괴 노동당 연락부 副부장이된 宋昌燮(62·재북간첩)이 지난57년5월부터 77년2월까지 약20년동안 8회에걸쳐 침투, 포섭하여 점조직형식으로 구축해놓은 지하간첩망이라고 밝혔다.

前공무원·敎授등 12명 구속·13명訓放

이들은 그동안 각종 국가기밀을 탐지, 서울·議政府·南楊州군등에 약정된 6개의 무인포스트를 이용, 24회나 북괴에 보고했을뿐만 아니라 宋昌燮등 남파간첩에게 1개월~1년간 은신처를 제공했고 그들이 복귀할때는 등산객, 불교신자등을 가장, 안전한 지점까지 안내하는활동도 해왔다.

安企部는 이들로부터 미화 1만2백5달러와 일제소니 내셔널등 라디오3대와 각종 회의록이 담긴 노트2권을증거물로 압수했는데 난수표6조는 작년9월 최종지령을수신한후 증거인멸을위해 소각해 버렸음이 조사결과 밝혀졌다.

▲재북간첩宋昌燮=日本대학법학과를 졸업한 宋은 학생시절부터 좌익서적을탐독, 공산주의 사상에 심취한후 월북전까지 국제공산당 정치당원, 남노당원등으로 암약해온 공산주의 골수분자로서 두번째로 남파됐을 당시인 지난 60년4월 과거 친교가있던 경향신문 논설위원 金모씨(64·전직장관)를 자택으로 찾아가 당시 서울시 변호사협회장이며 아들4명이 재북중인 鄭모씨(전공화당간부)의근황을 물어본후 金·鄭씨를 함께 포섭하려고 기도했다가61년7월 金씨가 宋의 내방및 접촉사실을 당국에 신고하는 바람에 실패했다.

◇구속▲宋智燮(59·서울江東구千戶2동310의22 전 군헌병기관근무)▲宋基駿(54·서울江南區 瑞草동新東亞아파트8동1209호 大進화하代表)▲宋賓燮(58·서울城東구 君子동157의13 전 서울시공무원)▲韓洸洙(69·서울西大門區南加佐洞241의35 전 梨花女大音大교수)▲宋基福(40·여·서울冠岳區新林1동1635의118 서울信光女中교사)▲宋基洪(37·서울冠岳區 新林6동1526의2 新林미술학원장)▲宋基洙(35·서울麻浦區 望遠洞398의15 脊椎矯正施術師)▲韓璿洙(45·서울城北區 貞陵3동716의40 鮮京綜合常務)▲韓瑛嬉(51·서울城北區 貞陵4동266의19 새마을 洞婦女會長)▲宋五燮(53·京畿高陽郡 一山面白石2里143 버스運轉士)▲宋光燮(47·京畿城南市 城南洞85의256 두부판매업)▲金春順(51·서울城東區 君子洞157의13)

◇불구속▲吳錦泳(60·여·서울西大門區 南加佐洞241의35)▲宋基聖(33·여·서울東大門區忘憂洞494의4)▲宋熙燮(45·京畿南楊州郡別內面靑鶴里208·樂士)

◇宋昌燮 ◇韓慶嬉 ◇宋智燮 ◇宋基駿 ◇宋賓燮 ◇韓洸洙 ◇宋基福 ◇宋基洪 ◇宋基洙 ◇韓璿洙 ◇韓瑛嬉 ◇宋五燮 ◇宋光燮 ◇金春順

"五輪따른 零細民대책은" 질의

國會 올림픽支援 特委

국회는 10일하오 李源京체육부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올림픽지원 特委(위원장 李世基의원)를 열고 88년서울올림픽과 86년 아시안게임에 대비한 종합준비계획에 관해 정부측보고를 들은뒤 정책질의를 벌였다.

이날 질의에 나선 李燦惠 鄭男 李寧熙 曺淇相 文炳良(이상 民正) 柳畯相 崔守桓 鄭鎭吉(이상 民韓) 曺德鉉의원(국민) 등은 『올림픽은 스포츠의 祭典이자 문화의 祭典인만큼 미술가와 건축가등 각계인사들을 준비계획에 폭넓게 참여시켜야된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또 ▲선수및 체육지도자의 육성계획 ▲올림픽에 따른 교통대책과 도로망 확충 ▲올림픽준비공사로 인한 철거작업으로 不利益을 당하는 영세민의 보호대책 ▲체육부책예산으로올림픽을치를수있는지 여부등을따졌다.

李源京체육부장관은 답변에서 『정부는 88올림픽에 대비하여 新人선수발굴에 착수했으며 일정한 기준치에 따라 금년연말까지 전국에서 14~19세에 이르는 학생6백만명을 대상으로 3단계작업을거쳐 5천명의 신인선수를 발굴할것』이라고 말했다.

李장관은 또 올림픽을위해 既存시설을 활용한다는 기본방침이며 조정 요트 승마 자전거 체조등5개부문의 시설은 民資를 유치, 신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社會漫評

당국에서 구상중…

地平線

비행기에서 내려다 본 홍콩은 그지없이 아름답다. 언제나 푸른산기슭을 배경으로 고층빌딩들이 짙푸른 바닷가에 즐비한 빛깔과 잘 조화를 이룬다. 하지만 공항에서 도심지까지 들어가려면 붐비는 출퇴근시간이 아니더라도 교통지옥의 수렁에 빠지게된다.

▼대체로 인구 5백만을 넘는 대도시에서 자동차가 빠지지않는 교통체증은 비단 홍콩만의 현상이 아니다. 일부개발도상국의 운전이 험한 뉴욕이나 서울도 그 예외일수는없다. 한 뉴욕시민이 마이애미비치로 가는 부인을 공항에 데려다주고 러쉬아워를 거쳐 집에 도착했더니 『무사도착』이란 부인의 전보가 와서 와있었다는 얘기도 있다.

▼2、3년전만해도 인구가 많은 세계 10대도시중 하위수준에 머물렀던 서울이 드디어 세계 4위로 올라섰다고 지난8일 유엔인구연감이 밝혔다. 그 순위는 상해(1천82만)、멕시코(9백19만)、東京(8백44만8천)、서울(8백36만6천)、모스크바(8백10만)、北京(7백57만)、뉴욕(7백30만)、런던(6백87만)으로 이어진다. 홍콩의 인구는 5백20만으로 10위이내엔 못들어간다. 하지만 도시내 도로길이에 비해 운행하는 자동차수가 많기로는 홍콩이 첫째로 꼽힌다. 1킬로미터 거리당 그 수는 무려 2백87대에 이른다는것이 홍콩政廳의 지난 5월 집계이다.

▼홍콩에사는 사람으로 이같은 고액새차세를 물고 자동차를 구입할수 있으려면 적어도 월 2천5백달러(약1백87만5천원)이상의 수입이 있어야한다는게 한 자동차협회의 통계이다. 2천5백달러는 홍콩 봉급생활자 평균수입의 7배가되는 액수다. 홍콩政廳은 연13%의 자동차증가율이 5%로 떨어지지 않으면 더 가혹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는 소식이다. 우리 자동차 행정당국에게도 한 他山之石이 되지않을까.

独立紀念館건립誠金

우리의 작은精誠… 큰뜻 이루게

<10일접수> (접수電話 722-4171)

商業銀行(朱仁基 은행장 임직원일동) 5千2百30萬원

(株)韓進(金炯培대표이사 임직원일동) 3千6萬원

高麗通商(李康學회장 임직원일동) 2천5백30만원

豊山金屬工業(柳纘佑회장 임직원일동) 1千4百萬원

星信洋灰工業(金昌洙대표 임직원일동) 1千3百萬원

國軍7599부대 1千百78萬원

陸軍5616부대 6백53만

泰榮開發(株)尹世榮대표·직원 3백72만원
서울高校 金永昌교장外 2백77만원
서울역삼國校 김신근교장外 2백42만원
서울북가좌국교 일동 2백26만원
(株)大韓렌트카 梁外錫대표外 1백63만원
서울갈현國校 강인학교장外 1백36만원
서울우유 보급소장 1백40만원
大熱機械(株)·大熱窯業(株) 1백37만원
高麗人蔘製品(株)洪思豊대표外 1백32만원
鮮昌産業(株) 임직원 일동 1백25만원
韓國鑛業製錬(株)金寅洙사장外 1백9만원
오리엔탈工業 남궁욱강 대표 外 1백만원
全國버스停留場協趙正煥회장外 1백만원
서울綜合터미날 丁炅錫대표 外 1백만원
高麗企業 대표 崔明姬씨 1백만원
서울전동국교전교생 93만원
서울고은국교전교생 93만원
한국원사직물검사소 65만원
槿華제약金德基대표 50만원
歌手 金蓮子양 60만원
서울덕수국교생 53만원
歌手 趙容弼씨 50만원
배우겸탤런트丁允姬 50만원
銀行지로管理所 44만원
서울배봉국교생 33만원
星都商事金南春씨 30만원
(株)宇進觀光임직원 29만원
서울장갑상우회일동 26만원
貯蓄추진중앙위원회 23만원
祥明師大부속유치원 20만원
大韓佛敎普門宗 20만원
國際實業公司임직원 20만원
電氣電子시험검사소 18만원
(株)市場수퍼체인 14만원
油類시험검사소 11만원

▲(株)韓國商業銀行 은행장朱仁基씨외 임직원일동=5천2백30만원 ▲(株)韓進대표이사 金炯培씨외 임직원일동=3천6만원 ▲高麗通商(株)회장李康學씨외 임직원일동=2천5백30만2천3백11원 ▲豊山金屬工業(株)회장柳纘佑씨=1천만원 同임직원일동=4백5만7천2백15원 ▲星信洋灰工業(株)대표이사金昌洙씨외임직원일동=1천3백41만원 ▲國軍第7599部隊將兵一同=1천1백78만1천6백원 ▲陸軍제5616부대전장병일동=6백53만3천4백10원 ▲泰榮開發(株)대표이사 尹世榮씨=3백만원 同임직원일동=72만7천5백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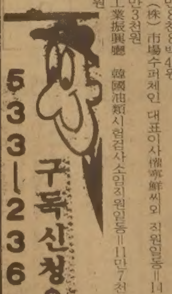
▲서울고등학교(교장 金永昌)교직원및 학생일동=2백77만3천3백20원 ▲서울북가좌국민학교(교장 金在玟)교직원및 학생일동=2백26만7백50원 ▲서울역삼국교(교장 김신근)전교생(대표 6학년 최혜원·장호준 5학년 이철승·인솔교사 김영래)및 교직원일동=2백42만5천4백87원 ▲서울역촌국교(교장 서구문)전교생(대표 6학년 김재용·함승연 5년 진창식·인솔교사 오광택)및 교직원일동=1백78만8천5백45원 ▲(株)大韓렌트카 대표이사 梁外錫씨외임직원일동=1백63만1백원 ▲서울우유 보급소장일동=1백40만원 ▲大熱機械工業(株)·大熱窯業(株)社長 具壯會씨외 임직원일동=1백37만원 ▲서울갈현국교(교장 강인학)전교생(대표 6학년 김윤태·문지환·김명민·인솔교사 이희자)및 교직원일동=1백36만4천1백40원

▲高麗人蔘製品(株)대표이사 洪思豊씨외임직원일동=1백32만5천원 ▲鮮昌産業(株)임직원일동=1백25만5천6백원 ▲韓國鑛業製錬(株)社長 金寅洙씨외本社임직원일동=1백9만4천7백원 ▲서울綜合터미날(株)대표이사丁炅錫씨외임직원일동=1백만원 ▲高麗企業代表 崔明姬씨=1백만원 ▲오리엔탈工業(株)대표이사 남궁욱강씨외 임직원일동=1백만원 ▲全國버스停留場協會會長 趙正煥씨외 일동=1백만원 ▲서울전동국교(교장 장원준)전교생(대표 6학년 김용욱·양운정 5학년 민병길 인솔교사 강만모·나세영)및 교직원일동=93만2천45원 ▲서울고은국교(교장 송경애)전교생(대표 6학년 임시욱·이현주 5학년 신중범·차주은 인솔교사 김경래)및 교직원일동=93만2백10원

▲한국원사직물시험검사소(소장 金成熙)임직원 일동=65만7천1백80원 ▲槿華製藥(株)대표이사 金德基씨=50만원 ▲歌手 金蓮子씨=60만원【日刊스포츠접수】 ▲서울덕수국교(교장 유소전)전교생(대표 6년 최나정·5년 오장훈·인솔교사 김영해)=53만7천1백85원 ▲歌手 趙容弼씨=50만원【日刊스포츠접수】 ▲배우겸탤런트 丁允姬씨=50만원【〃】 ▲銀行지로管理所 소장 金斗椿씨외 임직원일동=44만8천5백48원 ▲서울배봉국교(교장 류효선)전교생(대표 6년 이상원·김재석 5년 장현정·인솔교사 김일환)및 교직원일동=33만1천6원

▲星都商事 金南春씨=30만원 ▲(株)宇進觀光 대표이사 최덕원씨외 임직원일동=29만4천7백원 ▲서울장갑상우회 회장崔昌植씨외 일동=26만2천2백원 ▲貯蓄推進中央委員會직원일동=23만8천8백40원 ▲상명사대부속유치원교사및 원생일동=20만6천5백원 ▲大韓佛敎普門宗=20만원 ▲國際實業公司代表 金貫煥씨외 임직원일동=20만원 ▲韓國電氣電子試驗檢査所소장 金東浩씨외 직원일동=18만8천8백40원 ▲(株)市場수퍼체인 대표이사楊寧鮮씨외 직원일동=14만3천원 ▲工業振興廳 韓國油類시험검사소임직원일동=11만7천원

◇朱仁基씨 ◇金炯培씨 ◇李康學씨 ◇柳纘佑씨 ◇金昌洙씨 ◇尹世榮씨 ◇梁外錫씨 ◇具壯會씨 ◇金寅洙씨



한국일보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 (416) 532-2727

공인회계사
이 영 철
344 Bloor St. W
Suite 304
921-1294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금
교육·은퇴
부동산
김종조
535-0028
535-7200

YOUNG SOOK'S
보석상
▲ 각종보석
▲ 다이아몬드
품질보장
▲ 최저가격
▲ 뉴디자인
▲ 보석개조
교환매매
▲ 보증서
215 YONGE ST.
368-7961(B)
690-5217(R)

구독신청
533-2361

LEON'S 가구점
Leon's 캐나다 최대규모의 Ware House (Show Room)
SINCE 1909~
○FURNITURE
CARPETS
APPLIANCES
각종전자제품
(T.V, STEREO, 냉장고, 후리저, WASHER, DRYER, DISHWASHER, AIR CONDITIONER, VIDEO 등)
※오시기전에 미리 전화하십시오.
월~토(10 : 00am—10 : 00pm)
20 MC LEVIN AVE.
(세퍼드×마캄)
B)291-3818
R)749-9687, 746-0981
KEVIN CHO(조석민)
FINCH / LEON'S / MCLEVIN / SHEPPARD / MARKHAM / HWY. 401

도 매 업
○ 채소 ○ 과일 ○ 화초
저희 도매상은 교민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날로 번창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갑작스런 많은 주문에 미처 인원이 부족해서 제때에 배달 못해드린 분들도 있어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차량및 인원을 증가해서 더욱 사업에 차질이 없게 끔 만전을 기하겠읍니다.
이제 처음 시작하는 야채도매사업이니만큼 최저의 저렴한 가격(온타리오 FOOD마켓, 품목에 따라서는 더 낮은 가격)으로 봉사중이오니 배전의 협조 있으시길 부탁드리겠읍니다.
(PICK-UP 또는 주문, $150 이상)
〈취 급 품 목〉
— 모든 채소종류.
— 모든 과일종류
— CUT FLOWER
— 화분
— HANGING PLANT
BROADWAY FRUIT MARKET
437 CARLAW AVE.
☎ : 465-8167 대표 곽 덕열
CARLAW / RIVERDALE PLAZA / PAPE AVE / DANFORTH / GERRARD

보십시오
새머리털이 자랍니다
당신이 원하는 머리털의 성장 실험 결과가 우리 전문가들에 의해 85% 이상 성공했읍니다.
당신의 머리털이 빠짐을 막고, 새 머리털의 성장 주기를 자주 해주는 최근의 설비가 임상실험실에 있읍니다. 우리의 훈련된 머리털 전문가가 당신의 머리털과 머리가죽을 분석해서 문제점을 해결합니다.
일차 상담해 주십시요.
걱정을 해결합니다.
People's Hair and Scalp Specialists
BLOOR & DUNDAS MEDICAL CENTRE
2333 DUNDAS ST.W. SUITE 305
☎ : 537-3104

온國民의 뜨거운 精誠… 어린이들도 줄이어

獨立紀念館건립 誠金

<10일접수>
(접수電話 722·4171)

▲鍾路區昌信洞(단) 437번지 동문시장2·3층상인일동=37만3천2백50원

◇1만원기탁하신분 ▲김창용씨 ▲노병남씨 ▲전준우씨 ▲김찬회씨 ▲배기영씨 ▲이영기씨 ▲김종호씨 ▲여한원씨 ▲장영호씨 ▲서영찬씨=5천50원

◇5천원 기탁하신분 ▲김명원씨 ▲양태환씨 ▲이국수씨 ▲이병하씨 ▲유영욱씨 ▲윤경식씨 ▲이재선씨 ▲이덕용씨 ▲김태길씨 ▲박병두씨 ▲김용필씨 ▲조상운씨 ▲신영우씨 ▲최호주씨 ▲김정수씨 ▲김준건씨 ▲나상봉씨 ▲이세림씨 ▲유학천씨 ▲곽부근씨 ▲전수일씨 ▲이정도씨 ▲김감희씨=4천원

◇3천원 기탁하신분 ▲원이준씨 ▲김성기씨 ▲유유종씨 ▲김영재씨 ▲서용택씨 ▲이순구씨 ▲이종우씨 ▲표시현씨 ▲서장식씨 ▲김 훈씨 ▲김금수씨 ▲김재동씨 ▲허 진씨 ▲이금석씨 ▲이영숙씨 ▲안창덕씨 ▲유흥열씨 ▲강천수씨 ▲이인양씨 ▲심창섭씨 ▲유감상씨 ▲성홍남씨 ▲강용수씨 ▲이영전씨

◇2천원기탁하신분 [illegible]

◇1천원 기탁하신분 [illegible]

을지로3가 중기상사 商人일동 50만원

東門시장 2·3층商人 37만3천2백원

(을지로3가 중기상사 상인일동=50만원 ▲대연사 5만원 ▲무진사 2만원 ▲남선사 1만원 ▲지엠 2만원 ▲충남상회 1만원 ▲신씨(룡호) 5천원 [illegible])

▲서울道友會 崔昌植씨외 일동=10만원

▲城北區三仙洞3가53 遺族 柳時洛씨=10만원 ▲(株)文化綜合設備대표이사 金基龍씨외 임직원일동=10만원 ▲종로5·6가동 조기테니스회 (회장 金昌基) 회원일동=10만원 ▲大韓노인회江南支部盤浦住公2단지老人會=9만9천4백원 ▲해군본부 방위병일동=7만2천8백30원 ▲城東區馬場洞509 천일사료대표 申明春씨=5만원 ▲江南區道谷洞 道谷친목회회장 秦東洙씨=3만원 ▲가정법률상담소부설어머니학교9期동창생일동=2만원 ▲柳海軾씨(독립유공자 유족)=3만원 ▲東大門區面牧洞575의38 최원재씨=1만원 ▲光州조선대학교치과대학 許英敦씨=4천원 ▲麻浦區西橋洞 정한열씨=1만원 ▲서울금호국교5학년 양홍석군=1천원 ▲銅雀區上道洞 許明順씨=4천원 ▲慶北醴泉郡虎鳴面359번지 최재란씨=5천원 ▲馬山 경남대 피아노과 許明鏡씨=4천원 ▲서울예일국교 5년 김정아 4년 김병욱 남매=1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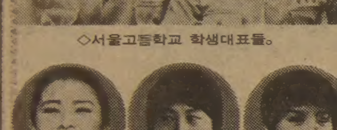
서울 道友會 崔昌植씨 10만원
慶州崔氏 崔鍾瓚씨 10만원
三仙洞 遺族 柳時洛씨 10만원
文化종합설비金基龍씨 10만원
鍾路 5·6 테니스회 10만원

▲진주촉석국교 5년 윤상일 2년 윤상현형제=8천15원 ▲서울 중앙국교 5년 장진호=5천원

◇소년한국접수분 ▲은평국교6 송하섭 1만원 ▲은평국교5 조준용 1천원 [illegible]

◇서울 북가좌국민교 인솔교사와 어린이대표들。

◇서울고등학교 학생대표들。


◇丁允姬　◇趙容弼　◇金蓮子

[illegible]

佛·루마니아를 뒤흔든

타나스(反體制亡命작가) 失踪劇 100일

「暗殺令」과 「逆스파이작전」의 미스터리

◇파리와 부쿠레슈티의 외교관계까지 냉각시킨 루마니아 反체제망명작가 비르질·타나스 失踪사건은 예상밖의 사태발전으로, 백일만에 그 미스터리의 안개를 일단 거두었다. 프랑스反첩보조직인 DST(국토감시국)가 비르질·타나스를 루마니아 첩보조직 세쿠리타트(공안국)의 암살음모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그를 가짜로 납치했다가 숨겨놓고 있었다는 전모가 공개되었기 때문이다. 프랑스 첩보기관의 기만술에 루마니아 공안국은 보기좋게 일격을 당한꼴이 되었고 미궁속에 증발한 줄로만 알았던 30代의 젊은 작가 타나스는 지난31일 기자회견장에 나타나 살아있는 모습을 공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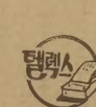
[illegible]

파리側 차우세스쿠 毒殺지령 入手

죽인듯「保護납치」…미테랑까지 관여

[illegible]

【파리=安炳璨특파원】



이스라엘默示的승인

아랍頂上회담 팔獨立國창설 促求

[illegible]

中共 중앙자문위원 百72명公開

葉劍英빠져 關心

【北京聯合=聯合】 [illegible]

蘇-中共간에 민간旅行재개

日紙보도

【東京=聯合】 [illegible]

12분만에 끝난 救出작전

波대사관 人質劇

음식물假裝 폭발물든 알미늄상자 현관에 배달

원격조종 爆發동시에 20여 기동경찰 作戰개시

○…폭발물의 폭음과 함께 시작된 베른 주재 폴란드대사관 인질구출작전은 불과 12분만에 끝났다.

범인들에게 아침식사를 날라다 주는 흰색 호송차한대가 대사관앞에 정차하자 곧 음식배달부복장을 한 남자가 먼저 흰색의 작은 물건을 현관 앞에 옮긴후 다시 차로 돌아와 [illegible] 이번에는 음식이 들어있는듯한 알루미늄상자를 현관 앞에 갖다놓았다. 바로 이 상자속에 폭발물이 들어 있었다.

[illegible]

조 규 혁
종합보험
● 자동차보험
● 화재보험
● 상점보험
● 생명보험
233－6236
745－8236

北傀, 赤化야욕 다시立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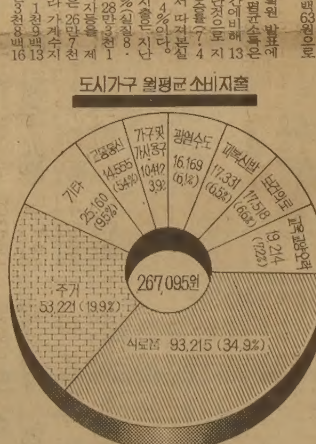
서울·忠北거점間諜 漁船납치등 긴장高潮

해설

[illegible]

家口當 한달 34萬원벌어

企劃院 2·4분기 都市근로자 集計



昨年比 5·4%실질증가
엥겔計數도 0·9%개선

[illegible]

5주년 개업기념 스페샬

★기 간 : 9 월 1 일～9 월30일

10～30% OFF

CX-4 Walnut (open pore)
CX-4 Ebony Polish
$2,995 (Re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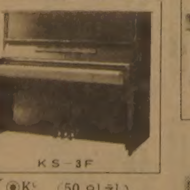
DX300　$3,495－RE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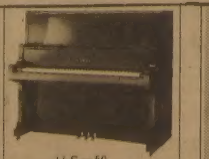
DX80 〈Reg〉 $1,5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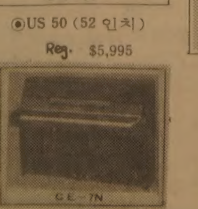
DX90　$1,895－REG

DX100　$2,395－REG
DX200　$2,995－REG

⊙새로 도입된 DX 전자올갠 전 모델(10% －15% off)
⊙각종 신형 Model의 upright 및 그랜드 피아노(10% －15%)
⊙기타 USED 피아노및 전자올갠(30% 할인)


◉KS (50 인치)
Ebony polish
Reg. $4,995
◉UST7(46 인치)
Reg. Ebony Satin $3,995
Walnut Satin $4,095


◉US 50 (52 인치)
Reg. $5,995


◉CE7N open walnut $3,395
Reg. Walnut polish $3,595
ivory polish $3,995

◉KL32WG(52 인치)
Reg. $6,495
◉KL 502(49 inches)
Walnut Satin
Reg. $4,995
32 WD.

Markham Place
2900 Steeles Ave. E.
Thornhill
☎ : 881－8211

Hillcrest Mall
9350 Yonge St.
Richmond Hill
☎ : 883－9407

가와이 KEYBOARD CENTRE (모짜르트 MUSIC CENTRE) 대표 윤 호 섭

◇심벌마크

◇2루 훔치다 들킨 日다께찌

日本과 캐나다의 대전 6회초 내야안타로 나간 日本의 5번 다께찌(左)가 2루를 훔치다 아웃되고있다。

美·日 4勝高地 먼저 올랐다

日, 23安打 18득점 (한게임 最多) 加격파

27회 세계野球선수권대회 <제6일>

美國 2·3회집중 9안타 和눌러

自由中國 2회에만 7점뽑아 濠洲깨

日本과 美國이 제27회 세계 야구선수권대회 10개팀 리그전서 4승고지를 선점했다。

한국과함께 3승1패의 공동선두를 달리던 日本은 10일 서울운동장서 벌어진 대회 6일째 경기서 3번 나까모도、4번 다께스에의 4회초연속홈런을 비롯 23안타로 캐나다를 18-7로 대파、4승1패를 기록했다。日本이 이날뽑아낸 18득점은 지난 5일 이대회 도미니카-캐나다전의 득점 18-8과 같은 기록이며 23안타는 이번 대회 한팀、한게임 최다기록이다。이번대회에 불참한 니카라과는 51년 12회대회 엘살바도르와의대전서 이대회최다기록인 한게임32안타、37득점을 기록했었다。대회초반 캐나다、한국에 연패당했던 美國은 이날잠실운동장서 2、3회의 집중9안타로 승리를 잡아 네덜란드에11-3으로 승리、4승2패를 기록했다。自由中國은 仁川경기에서 2회초 소나기 5안타로 7점을 거둬들여 게임운영이 미숙한 濠洲에11-8으로 승리、3승2패를기록했다。

日本—캐나다

日本—캐나다전은 불꽃튀는 타격전으로 4개의 홈런、총안타수36개를 기록했다。

日本은 캐나다의 장타를 막느라고 다께마쓰、니시무라、세끼네등 3명의투수를 투입했으며 캐나다역시 日本의 집중타에 견디지 못해 훔게이트、클레멘츠、폰·로이、제브니크등 4명의투수를 계투시키며 3시간30분동안 혈전을 벌였다。日本은 첫공격에 나서자 마자 1번고바야시、2번하야시、3번 나까모도가 연속3안타를 날리고、5번다께찌가 2타점 좌전적시타를때려 2점을 선제했다。

캐나다는 1회말 2死후 3번 파웰이 중월1백20m의 장쾌한 홈런으로 만만찮게 응수했다。그러나 KO 펀치만을 노리던 장타력의 캐나다는 3회초 日本의 예리한 공격에 그로기가 되었다。

3회초 日本은 선두2번하야시와 3번 나까모도가 연속 안타로 캐나다 선발 훔게이트를다운시키고 1死후 5번다께찌가 구원등판한 클레멘츠를 중월2루타로 공략하는등 집중5안타를 퍼부어 5득점、7-1로 승세를 굳혔다。

열이빠진 캐나다는 두번째 구원투수 폰·로이를 내세웠으나 日本은 4회초 하야시의 중전안타에 이어 3번 나까모도가 좌월 2점결승홈런을 날리고 4번 다께스에가 중월 솔로·홈런으로 승리를 확정지었다。

◇제6일 전적

◆서울운

일 본	205	300	116	18
캐나다	100	001	302	7

◆홈런=나까모도(4회·2점) 다께스에(4회) 다까모도(8회·이상 일본) 파웰(1회·캐나다) ◆안타=일본23-13캐나다

◆잠 실

네덜란드	002	001	000	3
미 국	034	000	40×	11

◆안타=네덜란드8—16미국

◆인천

자유중국	070	000	031	11
호 주	030	030	020	8

◆안타=자유중국12—12한국

◇중간순위 (10일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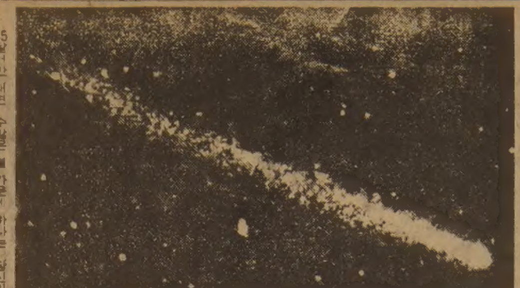
	승	패
한국	3	1
미국	4	2
일본	4	1
도미니카	1	3
파나마	1	2
자유중국	3	2
이탈리아	2	3
호주	1	4
캐나다	3	3
네덜란드	2	3

◇"수영장이 아닙니다" 캐나다 팀을 응원나온 늘씬한 몸매의 바바라·베레조우스키 (左), 에리간·데이비스양。6개월前부터 워커힐 아이스·쇼단서 일하고 있다고。

世界의 社会面

1개35달러… 이름등 붙여 등기 5萬개팔려

美國版 봉이 김선달 하늘의 별을 팝니다



35달러만 내면 수많은 별 가운데 하나는 당신의 것이 될수 있다. 과학교육에도 보탬이 될수있는 낭만적인 별장사가 요즘 歐美각국에서 호황을 누리고있다。

미국에서 별(星)장사가 성업중이다。옛날 大同江을 팔아먹은 봉이 金先達이야기만큼이나 허황된듯이 들리지만 별장사에는 애교와 위트가 넘친다。

생일선물로 북극성이나 결혼선물로 金星을 선물한다는것은 듣기에도 낭만적이다。

별값은 하나에 35달러(2만4천5백원)、重星(重心둘레를 公轉하는 두개의 별)의 값은 배인 70달러。

이돈만내면 누구든지 자기가 원하는 별을 가질수 있다。별을 산 사람에게는 그의 이름과 산날짜、별이름、별의 망원경조준에 관한 내용등을 기록한 문서를 보내준다。이문서는 스위스 등기소에 등록되며 미국 의회도서관에 저작권이 있는 책자로 보관된다。물론 이는 공공기관이나 과학기구에 의해 공인된 기록은 아니고 단순히 재미로하는 절차이다。

국제별등기소(ISR)는 스위스 미국 프랑스 캐나다등 4개국에 있다。

미국등기소는 80년 존·모젤레씨 부부에의해 개설됐다。모젤레씨는 캐나다의 노바·스코티아에있는 친구집을 방문、별등기에 관한 얘기를 들었다。

모젤레씨의 부인은 남편에게 생일선물로 별을 선물하면서 이를 상업용으로 이용하는 방법을 착상했다。

시카고의 노드필드에 있는 자기집 식당테이블에서 출발한 별장사는 첫해부터 대인기여서 별도 사무실을 차려야할 정도였다。

이제까지 팔린 별만도 5만여개(1백85만달러상당)。모젤레부인은 별이 동날 염려는 없다고 말한다。

우주에는 수십억개의 별이 있고 이중에서 우선 88개 星座안의 비교적 잘 알려져 있는 40만개의 별을 판매목표로 하고 있다。

40만개이외의 별들은 지구상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있어 정교한 망원경을 통해서만 볼수있다는 것이 애로점。

사고 싶다해도 이미 남에게 팔렸을때는 이중매매를할수없기 때문에 별자리를 통째 팔기도한다。

북두칠성및 天上에서 가장 밝은 별인 天狼星(시리우스)을 거느리고있는 큰개(犬)座(캐니스·메이저)는 그래서 대인기다。

그러나 어떤사람들은 천문학에서 조차 點으로 밖에 표시되지 않는 작은별일지라도 그것이 별인이상 상관이 없다고 말하기도 한다。

영화배우 율·브리너의 아들은 아버지 이름으로 별하나를 주문했고 영화배우 브루크·쉴즈양과 그의 어머니는 별하나씩을 서로 교환주문했다。

플레이보이誌발행인 휴·헤프너의 딸도 아버지에게 별하나를 선물했다。

영국의 찰즈황태자를 치료한바있는 캘리포니아의 한의사는 황태자부부가 지중해에서 밀월을 즐기며 바라본 꼭 하기위해 이들의 결혼선물로 별을 주문。

다이애너비의 한 팬은 또 다른 별을 선택한뒤 버킹검궁으로부터 감사의 편지를 받기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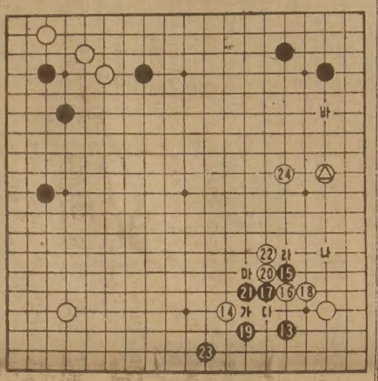
별판매회사들은 판매촉진을 위해 매상을 많이 올린 세일즈맨에게 포상으로 별을 주기도하는데 한 세일즈맨에서 2백개의 별을 판 사람도 있다고。【外】

제14기 名人戰 3次予選 決勝

第2局 第2譜 13~24 (각4시간·덤5집반)

白(初段) 崔 珪 昞

黑(6 段) 徐 能 旭



白、최초의 疑問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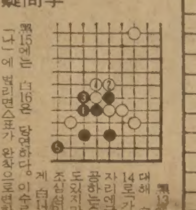
알고보면 崔초단은 趙治勳9단의 생질、즉 친누님의 아들이다。棋才로 외탁(?)을 한 때문인지 바둑은 4살부터 두기시작했는데 입단뒤는 『부모가 학업에 전념케 하는바람에 전혀 연구를 못했다』고 외조부며 趙9단의 부친인 趙南錫씨는 무척 아쉽게 말했다。

그러나 만약 名人戰본선에 오른다면 또하나의 棋界화제가 생길 판인데 최후의 관문은 목입승천의 맹장 徐6단이다。崔초단은 이제까지 비교적 허심탄회하게 싸워왔지만 최종결승인 이바둑은 어떤 자세로 임할것인지 궁금하다。

黑13에 대해 白14로 「가」자리에 급공하는수도 있지만 조심성있게 白14로 둔 것이다。

黑15에는 白16은 당연하다。이수로 「나」에 벌리면(參考圖) 黑도 19는 「다」로 늘기때문。한편 黑도 「19」는 「다」로 갈 수도있으나 白은 강력히 역시 19가 정확하다」는 趙南哲8단의 해설이다。

따라서 여기까지 최선의진행이라 여겼는데 白22가 뜻과달리 疑問手였다。白22로인해 白24가 필요했다。그러니까 22는 「라」로 단수하고 黑「마」로 되물때 22(참고도白2이하)라야 白은 24대신 「바」자리까지 벌릴수 있었다는것이다。【一凡】



독자의 마음

사려다 만 日製가위

며칠 전 나는 어느 박물관에 갔다가 안중근의사가 쓴 「第一江山」이라는 글씨를 보았다。

네째손가락 마디가 잘려나간 손에 먹물을 듬뿍 묻혀 낙관대신 회호옆에 찍어놓은것이 인상적이었다。여순에서 순국하시기직전에 쓴 글씨였다。일본의 역사왜곡사진으로 온 나라가 시끄러운 때여서 그랬는지、먹물로 찍은 그 손바닥모양이 살아있는듯 가슴을 아프게 했다。

박물관 관람을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나는 가위를 사러 시장에 들렀는데、나도 모르게 무심코 일제가위를 만지작거리며 살까말까 망설이다가 흠칫 놀라서 얼른 그 자리에 놓고 나와 버렸다。

안중근의사 글씨 앞에서 솟구치던 울분이 그 새 사라져버렸단 말인지。일제를 미워하고 싫어하면서도 일제물건을 좋아하는 이런마음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일까。일제물건을 사면 그만큼 일본은 더 부강해질텐데…。

그러고보면 나라의 힘을 키우는 것은 이외로 물건을 사서 쓰는 주부의 손에 달려있는게 아닐까 하는생각이 들었다。

좀 불편하더라도 참고 일제물건을 사서 쓰지 않는 것이、몸 바쳐 나라를 찾고자 했던 분들에 대한 예의이고、나라의 힘을 키우는 지름길이 아닐는지。

【오혜림·부산시영도구동일아파트405호】

에버트·만들리코바 全美테니스 準決에 코너즈·매켄로도

【뉴욕UPI=聯合】 뉴욕에서 개최중인 금년도 全美오픈테니스대회 준결승전에는 남자부에서는 지미·코너즈와 존·매켄로가、여자부에서는 크리스·에버트·로이드및 하나·만들리코바가 각각 진출했다。

금년도 윔블던 남자단식우승자인 코너즈는 9일 美國의 흑인선수인 로드니·하몬을 세트스코어 3-0(6-1、6-3、6-4)으로 제압하고 4강에 들어섰으며、지난대회 우승자인 매켄로는 6번시드의 진·메이어를 3시간36분에 걸친 대접전끝에 3-2(4-6、7-6、6-3、4-6、6-1)로 따돌리고 역시 4강대열에 합류했다。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213>

朴婉緖 作 金光培 畵

미리 온 아이⑯

『어디 아기 좀 볼까?』

주인남자가 다가와서 옥안의 아기의 손을 잡았다。남자의 투박한 손아귀에서 아기의 작은 손은 분홍빛 꽃봉오리 같았다。

『아따 이놈이 꽉 쥐이 아범을 닮았구먼』

그러나 남자의 눈길은 아기는 건성으로 보고 아직 풀어헤친 채인 오목이의 앞섶한 젖가슴과 등에 붙은 배로 흘렀다。

오목이는 심한 부끄러움으로 얼굴이 모닥불을 붙은 것처럼 달아올랐다。남자에게 속살을 보여서가 아니었다。그녀의 마지막 자존심이 악착같이 움켜쥐고있었던 굶주림을 들켜버렸기 때문이었다。

『자아、아기를 업히고 같이 점심이나 먹으러갑시다。그 동안이면 아마 유군도 돌아올거구먼。큰 일나간게 아니라 손좀 봐달라는게 있어서 나간 모양이니까。』

『괜찮아요。여기서 기다릴께요』

『자고로 자기집에 온 해산어머니는 맨입으로 보내지않는게 우리의 풍속이라우。마침 나도 점심전이고…』

오목이는 흠칫 쳐다본 남자의 얼굴에서 부정(父情)같은걸 느끼면서 눈물이 핑 돌았다。굶주림이 걷잡을수없이 그녀의 뱃속을 무두질했다。그녀는 남자가 저들어주는대로 순순히 아기를 업고 남자의 뒤를 따랐다。

거기서 가까운 대중음식점은 남자의 단골인듯 한창 손님이 많은 시간인데도 종업원의 대접이 융숭했고、잡사꾼들의 손님들중에선 여기저기서 아는척하는 사람도 많았다。그럴때마다 오목이는 남자의 뒤에서 조그맣게 몸을 오그리고 주눅이 들었지만 음식냄새 때문에 체면볼틀을 여지없이 허물어뜨려젔다。

넓은 장판방은 고루 뜨뜻했고 사람들이 둘러 앉은 상마다 한가운데선 파란 가스불이 넘실대고 그위에선 고기가 지글지글 익기도 하고 찌개가 끓어 넘기도 했다。거기서 나는 연기와 김으로 자욱한 공기는 환장을 하게 자극적인 냄새를 지니고 있었다。

오목이는 체면은 커녕 정신마저 아득해지면서 오로지 식욕만이 자신과는 별개의 맹수처럼 힘차게 울부짖으며 깨어나 힘을 휘두르며 으르렁대는데 속수무책이었다。

남자가 오목이에겐 묻지도 않고 갈비전골을 시키면서 빨리 해오라고 재촉했다。

오목이는 남의 밥상으로라도 덤빌 것같은 자기속의 식욕을 달래느라 괜히 헛기침도 하고、손도 부비고、자신의 옷자락을 부둥부둥 쥐어뜯기도 했다。

이윽고 그들의 상에도 가스불이 켜지고 전골이 끓기 시작했다。천천히 먹으라고 남자가 말하는 것 같았다。그러나 그녀는 도저히 자신의 식욕에 제동을 가할수가 없었다。남자가 밥을 더 청하는 것 같았다。그녀는 편찮다는 정도의 인사치레조차할 겨를없이 아구아구먹어댔다。

마침내 배가 부른 그녀는 한술 더 떠서 그 뜨뜻한 구들목에서 푹 자고싶다고 생각했다。만족스러운 포식뒤에 오는 졸음은 식욕보다 몇갑절 더 고혹적이었다。

『애기 엄마、밥 좀 더 시킬까?』

동상처럼 냉혹하고 무뚝뚝한 첫인상과는 엉뚱하게 자애로운 남자를 오목이는 몽롱한 시선으로 바라보며 말했다。

『아뇨、잘 먹었어요。이런데서 한참 푹 잤으면 소원이 없겠어요』

굶주림을 감추지 못했기때문에 더이상 부끄러울게 없었다。아기는 따뜻하고 부숭부숭한 바닥에서 새근새근잠들어 있었다。그 옆에 퍼 쓰러지고싶은 몸을 지탱하기가 힘겨워 오목이는 자주 전율거렸다。

"단풍을 찍읍시다"

● 제7회 사진촬영대회 안내 ●

아마추어 사진애호가들을 위한 사진대회가 금년에는 단풍이 보기 좋은 보이드·콘저베이션·파에서 열립니다.

피크닉겸 가족동반, 공원에 나오시어 자연을 배경으로 한 모델의 아름다운 모습을 맑은 렌즈에 담아봅시다.

때 : 1982년10월 2 일(토) 상오11시
곳 : 보이드·콘저베이션·팍 (Boyd Conservation Park : on Islington, Hwy 7북쪽)
부 문 : 칼라·흑백·스라이드
크 기 : 8 × 10 이상
출품마감 : 10월30일한

제2회 대회 모델 : 장헬렌양 "가을의 마음"=촬영 : 임정재

참가자격 : 국적불문(단 : 사진협회 임원·한국일보 직원및 프로 사진작가 제외)
참 가 비 : $10(칼라필름 1통 제공)
시 상 : 1등 부상 나이콘 카메라 1대 기타 6등까지 시상함.
◆선착순 1백명에 한함

문의및 접수처:
◉한국일보사(1025 Dupont St, 전화 533-2361)
◉전경수(36 Neapolitan Dr, 438-4435)
◉킹스카메라(619 Bloor St, W, 534-1085)
◉새한칼라(630 Bloor St, W, 535-7772)

주최 : 한인사진협회 · 한국일보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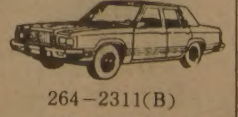
MARVIN STARR

〈취급종류〉
소형차 : ACADIAN, PHOENIX SKY LARK, J2000
중형차 : LEMANS, GRAND·PRIX CENTURY, A6000, FIRE·BIRD, RIVIERA
대형차 : 스테이션웨곤, PARISIENNE, LESABRE, ELECTRA, PARK·AVENUE, 벤트러, USED·CAR

Auto Mechanic License, Auto Body Licence 소유
Chassis Frame, Front End Alingnment Certificate 소유

여러분에게 가장 적절한 차를 구입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Best Price
▪ Best After Service



264-2311(B)
439-5030(R)
3132 Eglinton Ave. E
Markham - Eglinton

조 의 문

CENTRAL CANADA COLLEGE

특수영어프로그램

◎ 고등학교 11학년~13학년을 위한 영어교육을 위한 신청
◎ 학기는 매년 1월, 6월, 8월에 시작함
◎ 컴퓨터·싸이언스및 제2외국어로서 영어교육을 위한 훌륭한 선생 보유
◎ 학생들의 대학교입학을 위한 보조역활
◎ 외국학생들의 비자신청 역활

◎ 자세한 사항은 444-1136 MR. WAN 또는 윌리암

사무실시간(월~금)오전9시~오후5시
60 Park Lane Circle (베이뷰×로렌스)
☎ : 444-1136

서울·仁川·水原·安養등 수도권 食水源

八堂물도 汚染되고있다

上流쪽 분뇨·廢水배출여전
낚시꾼들 쓰레기까지 한몫

78년「環境보전법」적용도 有名無實

【八堂=崔成基기자】서울을 비롯한 仁川、水原、安養등 수도권 1천만주민의 식수원인 八堂댐(경기南楊州郡瓦阜面)물이 크게 오염되고있다. 저수량 3억톤의 八堂댐은 漢江이 오염된후 주요 취수원이 돼왔으며 서울시민들을 비롯、金浦、仁川、富川、半月、水原、安養、果川 주민들이 마시고있다. 따라서 이상수도원을 보호하기위해 정부는 지난78년부터 경기城南、議政府、驪州、廣州、加平、楊平、利川、龍仁、安養등지는 전역을、水原、楊州、平澤、華城、始興、坡州、高陽군등지는 일부지역을 환경보전법에따른 폐수배출제한지역으로지정 공고까지했었다. 그러나 이들지역에서 배출되는 분뇨、공장폐수、농약찌꺼기등이 八堂댐으로 그대로 흘러들어 오염도가 높아지고있는데다 최근에는 낚시꾼들까지 몰려 쓰레기오염까지 생기고있다.

八堂물은 상류지역인 南漢江과 北漢江유역에서부터 오염되고있다.

八堂댐의 상류를 이루는 原州川은 南漢江줄기를따라 1백10㎞를 굽이치며 八堂에이르는 사이에 이웃의 각종공장폐수、인분등으로 오염되고있다.

原州시는 지난78년부터 1일80㎘의 분뇨위생 처리시설을 가동하고있으나 1일 수거량이 1백50㎘을 넘어 많은 인분이 완전히 위생처리되지않은채 江으로 방류되고있는것.

또 原州川유역인 原州市牛山洞일대의 3개피혁공장、식품공장에서 쏟아져나오는 폐수까지 겹쳐 강물은 거품이 부글거리고 부유물질이 떠다니는등 눈으로 보기에도 오염상태가 느껴졌다.

原州市加峴洞225 金鐘三씨(45)는『7년전만해도 개천에서 목욕을 할수있을정도로 깨끗한물이었는데 이제는 발을 담글수조차없게되었다』고 말하고『이물을 수도권주민들이 먹는다니 기막힌 일이다』고 혀를 찼다.

또 南漢江상류인 강원주昌郡등지의 대단위목장들이 가축의 분뇨나 축산폐기물을위생처리하지 않고 방류하고있어 오염의 주요한원인이되고 있다.

八堂댐의 바로 이웃지역인 경기도 楊平郡楊西面 등지의 농가에서도 1연간 소의사육두수가 2배두씩 늘고있어 이가축들의 배설물이 비에씻겨 그대로 江으로 흘러들고 있다는 것이다.

또 최근에는 가을철시즌을 만난 낚시꾼들도 八堂물을 크게오염시키고있다. 현재八堂상수도 보호구역은 八堂댐에서부터 상류로 남한강쪽은 楊西面菊秀橋까지고 북한강쪽은 西終面水湖橋까지로 이 구역에서는 낚시가 금지되어 있다.

이일대에는 철망을치고 30m간격으로 낚시금지푯말을 세워놓았으나 휴일에는 수천명이 몰려와 곳곳에서 낚시를하고있다.

특히 楊西面龍潭里강변담수구역에서는 철망까지 치고 버젓이 낚시를 하고있다.

楊西面부면장 李鐘天씨는『모든 업무를 전폐하고 낚시단속을해도 말을 듣지않는다』면서『좋으면 없어졌다가 다시오는 낚시꾼을 단속할길이없다』『요즘은 서울사람 먹을물을 서울사람이 더럽힌다』는 피켓을들고 양심에 호소하고있다고 어려움을 털어놓았다.

낚시꾼들은 밤낚시용 카바이트와 쓰레기 빈병등을 강변에 마구버리고있다고 李씨는 말했다.

八堂댐입구에서는 趙承俊씨(41·南楊州郡瓦阜面陵內里473)는 또『상류에 들이조금만 붙어도 낚시꾼들이 댐까지 버리고간 각종오물이 떠밀려져내려 오고있다』고 말했다.

지난장마때 5천4백톤의 물을 방류하면서 나무조각·비닐등 각종부유물을 2·5톤트럭으로 30여대분이나 건져 빈터에 쌓아놓고 있다.

환경보존협회의 집계에 따르면 이지역의 공해 업소는 지난75년 2천3백개소에서 80년에는 5천여개소로 늘어났다.

◇수도권의 식수원인 八堂댐물이 각종 오염물로 더럽혀지고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최근에는 낚시꾼들까지 수천명씩 몰려와 오염도를 가중시키고 있다.「낚시금지」구역인데도 열구낚시터까지 설치돼있다. 【八堂댐에서】

뒤늦게벗은 殺人누명

구속 14개월만에 大法院계류중 眞犯잡혀

1審무죄 2審선 15년刑 警察의 強制자백 드러나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구속기소되어 2심에서 징역15년을 선고받은 사람이 대법원의 최종판결을 기다리던중 진범이 붙잡혀억울한 살인누명을 벗게됐다.

지난해 6월24일밤 11시께 全州市孝子洞2街 670비사벌 자림원앞 고개길에서 동네주민 崔현석씨(20·인쇄공)가 칼에찔리고 고무밧줄로 목이죄어 숨진시체로 발견됐다.

수사에 나선 全州경찰서는 사건발생 18일만인 7월12일 이사건의 범인으로 全州대한신축공사장인부였던金詩勳씨(30·大田市東區大洞194)를 검거、범행을 자백받았다고 밝혔다.

당시 경찰은 金씨가 사건발생당일오후 全州市孝子洞3街 全州대한신축공사장 감독으로부터『말썽을 자주 일으키니 떠나라』는 말을 듣고 격분、탁주 4병을 마신후 밤11시께 공사장에서 1㎞떨어진 고개길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자백을 받아 냈다는것.

金씨는 崔씨가 술에 취한채 비틀거리며 자전거를 타고오다가 부딪쳐 시비가되자 갖고있던 과도로 崔씨의 옆구리와 배를찌르고 자전거에 있던 고무밧줄로 목을 죄어 숨지게했다고 진술했다.

이사건 1심인 全州지법형사1부는 지난해12월30일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극구부인하며▲경찰에서 자백한 피의자신문조서나 자술서는 고문에의해 허위진술한것이라 주장하고▲경찰자백이외에는 유죄를 인정할자료가없다고 밝히고 金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다른사건으로 같이기소된 폭행부분만유죄로 인정、징역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인 光州고법은 지난5월20일▲피고인이 경찰에서 쓴 자술서는 본인자필로 쓰고 무인을 찍었다고 진술、자술서의 진정성립을인정하고 있으며▲알리바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등의 이유를 들어 살인부분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징역15년을 선고했다.

金씨는 이에불복 상고했고 오는 14일에 있을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있던중 전북裡里경찰서가 지난7월말 이사건의 진범으로 일당5명중檀모군(18) 등 3명을검거、범행일체를 자백받고 群山지원에 구속기소한 것이다.

裡里경찰서는 관내에서 발생했던 미제강력사건의 범인일제검거기간중강도사건용의자로 연행조사하고있던 가운데 1명으로부터 崔씨피살사건의 범행을 자백받은것이다.

檀군등은 사건당일 하오5시께 全州市完山洞 寒山에서 과수원을 털것을모의하고 동정을 살피다 범행현장에 이르렀을때 崔씨를 발견、담배한대를 달라며 말을 걸다가 주먹으로때려 쓰러뜨린후 인근 고추밭으로 끌고가 2천7백원을 빼앗고 살해했다는것이다.

한편 억울한 누명을 썼던 金씨는 다른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은데다 살인사건에 대해서는 진범이 잡혔더라도 검찰의 공소취하는 1심판결전에나 가능하므로 金씨에 대한 대법원판결은 예정대로 있게되는데 진범이 있음을 확인한 대검이 대법원에 통보했으므로 살인부분에 대해서는 공소기각판결이 있을것으로 보인다.

결혼예물, 보석 및 시계…
미크마 보석부
다이아몬드,에메랄드,루비, 사파이어,진주,오팔.
536-1692

腦炎증세 백97명

全北·慶南

【釜山·全州】전북과 경남도내 의사뇌염환자수가 10일 현재 모두 1백97명으로 크게 늘어난가운데 5명의 환자가 또 목숨을 잃었다.

전북의 경우 이날 현재 뇌염증세로 앓고있는 환자수는 양성반응을보인 30명을포함、모두 1백29명으로 늘어났는데 裡里 원광대부속병원에입원중이던 최모군(2·益山郡八峰面)과 정모군(7·益山郡龍安面)을 비롯、井邑、사평원의 최모군(10·高敞郡孔音面)등 3명이 또 숨져도내 전체사망자수는 12명으로 늘어났다.

한편 경남도내에서는 이날 현재 義昌郡의 7명을 비롯、17개시·군에서 모두 68명의 의사뇌염환자가 발생、이중 2명이 숨지고 7명이 진성으로 밝혀졌으며 59명이 입원、치료를 받고있다. 【聯合】

독립기념관募金 빙자 가정집訪問 詐欺행각

【大田】鳥致院경찰서는 10일 우체국직원을 가장、가정집을 돌아다니며 독립기념관건립성금을 모으고 있다고 속여 금품을 받아 가로채온 林官洙씨(33·鳥致院邑 中林洞7)를 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林씨는 지난8일 상오9시께 忠北清原郡 芙蓉面 芙江里 金鍾淳씨(37)집에 찾아가『조치원우체국에서 독립기념관 건립성금을 모금하러 나왔다』고 속여 현금7천9백50원을 받아 가로챈것을 비롯、전후23회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인근 지역의 가정집을 돌아다니며 백미 1말6되등 모두 1만7천3백10원 상당의 금품을사취해왔다는것. 【聯合】

大王巖부근…倭寇약탈 傳說

에밀레종보다 먼저만든"鐘"

바다속 搜索작전

慶州의 에밀레종보다도 먼저 만들어진 感恩寺의 국보급 신라 종을 찾는 대대적인 해저수중탐사작업이 11일부터 文武大王 수중릉이 있는 경북月城郡陽北面奉吉里의大王巖근처에서 시작된다.

문공부문화재관리국은 대왕암부근 바다밑에서 풍랑이 심한 날이면 두웅둥、두웅둥하는 종소리가 울린다는 것을 들었다는 주민들의 얘기와 바다속에 큰 종이 빠져 있는 것을 보았다는 어부·잠수부들의 잇단 신고를 받고 新安해저발굴단처럼 조사단(단장 韓炳三국립경주박물관장)을 구성、수색작업에 나선 것이다.

조사단은 민간업체인 해성수중공사(麗水市水晶洞350)의 심해잠수사들을동원、1주일동안 대왕암을 중심으로한 반경 5백m의 바다속(수심15~20m)을 샅샅이 뒤질 예정이다.

조사단에 따르면 죽어서 바다용왕이 되어 일본의 침략을 막겠다는 유언을 남긴 문무대왕을 대왕암 수중에 장사지낸뒤 그의 명복을 빌기 위해 지은 感恩寺(경북月城郡 文王2년 682년 완성)에는 본래 큰 종이 있었으나 왜구에 약탈당한 뒤 그 행방을 찾을길이 없었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80년 感恩寺절터를 발굴하다가 正11年(고려恭愍王즉위년·서기 1351년)의 글자를 새긴 靑銅飯子를 발굴함으로써 밝혀졌다. 이 유물에는 왜구가 感恩寺의 종、飯子등 유물을 약탈해 갔기 때문에 다시飯子를 만들었다는 기록이적혀 있었던 것.

조사단은 대왕암서 마주보이는 感恩寺에서 큰종등 유물들을 노략질해 싣고가던 왜구의 배가 풍랑을 만나 침몰한것(이인천주민들사이에내려오는 전설)으로보고 수색에 나선것인데 만일 종이 발견될경우에는 에밀레에 못잖은 국보급종으로 평가될것으로 보인다.

市民이 잡아 防犯대원에 넘긴 날치기

共犯위협에 풀어줘

서울의 도심 明洞에서 시민이 잡아넘긴 날치기현행범을 연행하던 방범대원이 뒤따라온 공범들이 쇠파이프로 위협하자 범인을 놓아주고파출소로 피신했다.

지난 9일 하오9시35분께 서울中區明洞 코스모스백화점앞 지하도 입구에서 金哉旭씨(33·경기富川市遠美洞177의50)와 鄭永淳씨(34·서울江南區盤浦洞盤浦아파트35동301호)가 金씨의 부인 兪賢淑씨(28)와 처제 兪賢珠양(23·캐나다교포)등과 함께 외식을 하고 귀가중 날치기범이 兪양의 핸드백을 낚아채 그속에서 지갑을 빼 옆에 있던 바람잡이에게 넘겨주는 것을 목격、20대 범인을 덮쳐 때마침 순찰중이던 서울中部경찰서 明洞파출소소속 방범대원 張조준씨(34)등 2명에게 넘겨주었다.

범인을 파출소로 연행하던 방범대원들은 파출소에서 20여m떨어진 明洞약국앞에서 달아났던 바람잡이등 공범2명이 나타나『아무죄도 없는 사람을 왜붙잡아 가느냐』며 협박하고 공범중1명이 明洞약국문옆에있던 길이2m짜리 쇠막대를 휘두르며 위협하자 범인을 놓아주고 파출소로 피했다는것.

이를본 金씨등이 다시20m를 추격、범인을 덮쳤으나공범이 휘두른 쇠막대에 팔꿈치를 맞고 범인은놓쳤다.

高麗大미식 축구선수출신인 金씨와 鄭씨는『시민이붙잡아준 범인을 방범대원이놓치다니 있을수 없는일』이라고 분개하고『도심지 한복판에서 이런일이 벌어졌는데도 수많은 시민중 단한사람도범인을 붙잡는데나서지 않은것은 수치스러운일』이라고 말했다.

加工수출용 바나나不法유출

1億상당 빼돌려

【釜山】부산시경은 10일 시가 1억원어치의 가공수출용 수입 바나나를 시중에 불법유출시킨 성은상사(서울中區苧洞47)대표 배근태씨(51)를 무역거래법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브로커 김형준씨(42·서울城東區中谷洞72) 바나나중개상 권영복씨(36·서울龍山區桃園洞9)등 2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경찰에따르면 배씨는 시중에서 바나나가 수입원가보다 배이상 비싸게거래되자 지난7월7일 중동에 바나나잼을 만들어 가공수출하는 조건으로 필리핀에서 수입한 12㎏들이 바나나4천2백상자(싯가1억원)를 권씨를통해 서울·부산등 전국시장에 전량 불법유출한 혐의다. 【聯合】

내무부「명예邑面長制」마련

퇴직高官등 元老級인사로

내무부는 10일 명예邑·面長제도를 신설、퇴직 고관등 원로급 인사들이 향토발전을 위해 일할수 있도록했다.

이에따라 내무부는 조례를 제정、처음으로金壽鶴전국세청장을 경북月城郡 外洞邑의 명예읍장으로 위촉했다.

명예邑面長은 순수한 명예직으로 연고지에 거주하면서 邑·面의 행정과郡행정의주요시책에대해 자문과 제안을하고 주민여론을수렴한다는것.

대상자는 해당지역 출신인사중 덕망있는 사회원로급에서선발、군수가 위촉하며 위촉된 사람은 주1회 邑·面에 나가 근무토록하며 월1회이상 郡행정에 대한 자문에 응하게된다.

延大生4명에 實刑

서울형사지법 2단독 閔世泓판사는 10일 교내시위를주동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延世大학생 尹平鎬(22·사회학과4년제적)등 4명의 피고인에게 집회및 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를 적용、최고 징역2년6월에서 징역 1년까지를 각각선고했다.

尹군등은 지난6월8일 낮12시30분쯤 교내 중앙도서관5층과 대강당5층에서 반정부유인물을 뿌리고 2시간동안 학생시위를 선동한 혐의로 구속됐었다.

「무궁화博士」

충남 燕岐郡 鄭夏容군수

"무궁화는 심는게 아니라 모셔야…"

충남燕岐군수 鄭夏容씨(34·사진)는 최근「무궁화박사」란 명예학위를 받았다.

대학에서 받은 학위가 아니라 군수재임 1년남짓에 주민들로부터 받은 소중한 선물이다.

국도1호를 따라 鳥致院땅에 들어서면 눈길이 머물만한 산모퉁이나 마을어귀에 잘 가꾸어진 갖가지 무궁화꽃이 초가을 햇살에 눈부시다. 나지막한 회양목으로 울타리를 치고 하얀 자갈을 정갈하게깔은 무궁화단은 차라리 위엄있는 사당처럼보인다.

『무궁화는 심는게아니라 모셔야 하는것 아닙니까』 내력을 설명하는 鄭군수의 얼굴엔 홍조까지띠며 청년군수의 모습은 아직 대학생티가 가시지 않았다. 무궁화는 식목차원이아닌 애국차원에서 심어야하고 그렇게 가꾸다보면 애국애족은 말로 외치지 않아도 더 깊은 공감을 얻을수있다는 설명.

일제를 모르고 자란 해방후의 세대지만 요사이 한창인「克日」을 남보다 먼저 터득한셈이다. 지난봄 식목철에 시작한 무궁화사업은 쉽지만은 않았다. 그래서만 보아온 무궁화도 종류가 많았다. 구하기도 어려웠지만 가꾸는것은 요령을 몰라 더 어려웠다.

전시위주로 한번 요란하게 떠들고 치울일이면 아무렇게나 몽땅 사다 심어버렸으면 될일이었다. 그러나 鄭군수는 산림조합장을 전국에 보내 갖가지 종류를 모아오게했고 자신은 문헌을통해 무궁화의 생태와 재배법을 연구、병충해방제요령까지 터득했다.

최근 전국적으로 무궁화심기운동이 전개되면서 전시회、강연회가 많이 열리고 있지만 무궁화선양회 전문가도 鄭군수에겐 할말이 없다고 사양했다는 후문.

주민들이 그를「무궁화박사」로 부르는 것은 그가 무궁화만 아껴서가 아니다. 시골에 묻혀있는 효자·열녀의 정문과 비석을 발굴해 어린이까지 그들의 유덕을 알게하고『우리도 노인이 되는 날이 있으니 노인회관을 찾아보자』고 호소하는 청년군수의 정신을 높이 사서 붙여준 애칭이다.

그런 그가 요즘 鳥致院에 있는 1천기가 넘는 일본인 유골 처리문제로 고민중이다.『반일감정으로 적당히 처리해도 되겠지만 克日은 감정으로 되는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裵琪哲 기자】

5行뉴스

◆在日동포 日貨밀반출

【金海】10일 金海세관은 일화 1천5백73만7천엔을 일본으로 밀반출하려던 재일동포 하태일씨(64)를 관세법위반및 외환관리법위반등 혐의로 구속했다. 【聯合】

기숙사 不法증축 現代중공업 立件

【蔚山】경남蔚山경찰서는10일 蔚山市의 고발에따라 사원기숙사를 지으면서 불법으로증축을한 현대중공업대표이춘림씨(49)를건축법위반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李씨는 지난해 8월22일 蔚山市田下洞283일대 4필지에 연면적 1만7천2백16㎡의 10층짜리 사원 기숙사 신축허가를 받아 공사를하면서 설계변경허가도 받지않고 1층(1천3백73㎡)을 더올려 11층으로 불법증축、蔚山시가 공사중단지시를 했는데도 이를무시했다는것.

또한 현대중공업은 2차설계변경을 하면서 건물용도를 기숙사에서 호텔로 바꾼후 지난달 21일 경남도로부터 1급관광호텔인가까지 받았다. 【聯合】

맛사지

RELAX IN PRIVATE COMFORT
'Whirlpool' 'Sauna' 'Showers' 'Gym'
OPEN 10 a.m.-1 a.m.
5170 DIXIE ROAD
OPEN SUNDAYS 624-8822
(near airport)
MISSISSAUGA

한국일보

캐나다 사회를 아는 지름길.
교포사회를 잘 알기를 원하시는 분이나 사업의 번영을 원하시는 분, 자녀교육, 이민문제, 고국소식등에관심을 가지신 분은 필히 구독해야 할
"한국일보"(THE KOREA TIMES TORONTO)를 잊지 마십시오.

주6일 발행(금·토일자는 합본)
구독료(선금) 월 : $9, 6개월 : $50, 년 : $99
(크레딧·카드 넘버만 주셔도 됨)
전화 : (416) 533-2361

구독 신청서
한국일보
이름 ......
주소 ...... APT ......
도시 ...... 주 ......
우편번호 ⎵⎵⎵⎵⎵⎵ 전화 ......
크레딧·카드넘버 : VISA ...... 매스터카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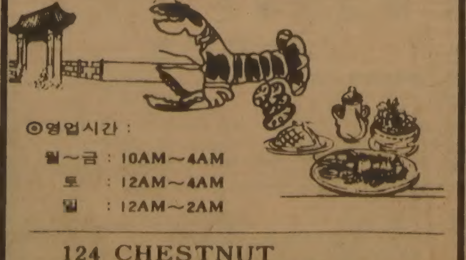
보내실곳 : The Korea Times Ltd.
1025 Dupont St. Toronto, Ont. M6H 1Z7

意安飯店
의안반점

홍콩식 그대로의 분위기
새벽4시까지 영업

일류 요리사가 만드는 전통적인 광동식 요리
경제적이고 실질적인 값싸고 맛있는 음식.

※항상 신선한 랍스타, 게, 굴, 해삼, 전복등을 준비했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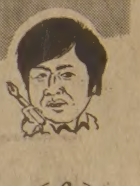


⊙영업시간 :
월~금 : 10AM~4AM
토 : 12AM~4AM
일 : 12AM~2AM

124 CHESTNUT
171 Dundas St. W. 와 Chestnut 코너)
☎ : 977-9734

한글세대作家 尹興吉의 「歪曲列島」縱橫記

내가 처음본 日本 <6>



다시 X氏에게

그림 鄭駿溶

"「열린가슴」으로 올때 「닫힌가슴」으로 내쫓겠는가…"

『아이누로 태어났으니까 이젠 끝까지 아이누로서 죽기로 결심했어요』

이말은 스기무라(杉村)여사가 나한테 맨처음 던진 말입니다. 나는 그녀를 아사히가와의 홋까이(北海)호텔코피숍에서 만났읍니다. 그녀는 그때 한종족의 지도적 위치에 있으면서도 코피에 넣는 큐빅형의 설탕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몰라 초면의 이국인들앞에서 쩔쩔매는모양이 정말 보기에 딱할 지경이었읍니다. 나는 그녀의 몸가짐에서 곧 이상한 점을 발견했읍니다. 소매밖으로 드러난 한쪽팔을 다른 한쪽팔로 자꾸만 가리려는 무의식적인 행동입니다.

여자이면서도 그녀는 아이누족의 한 특성으로 시커먼 털이 팔에 부얼부얼 덮여있고, 유별나게 우묵들어간 눈자위에다 옅은 파란색을 띤 눈동자를 갖고 있었읍니다.

아이누문화를 집중연구하는 홋까이도대학 인류학 연구실의 요시사끼(吉崎)교수로 부터 아이누족의 현황을 들은다음 나는 그에게 이렇게 물었읍니다.

『어떤 동기로 소수민족한테 관심을 갖게 됐읍니까?』

그는 이렇게 대답했읍니다.『중학생때 혼슈우(本州)에서 태평양전쟁을 겪었지요. 그런데 하루는 폭탄이 떨어진 구덩이속에서 이상한 그릇조각들을 찾아냈어요. 알고보니 그게 바로 고대아이누문명의 토기였어요. 그래서 나는 내가역사교과서에서 배운 것이 진실이 아니라는걸 처음 알게됐읍니다. 그때부터 문화인류학에 뜻을 두게된 것입니다』

나는 요시사끼교수에게 마음으로 경의를 표하고 싶습니다. 물론 X씨 당신도 잘아시겠지만 일본내의 소수민족인 아이누족은 현재7천여명에 불과합니다. 몇십년전의 통계인 1만명에서 갈수록 인구가줄어들고 있읍니다. 마치 육식동물의 틈바구니에서 최후를 맞이하는 초식 동물의 운명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멸종위기의 두루미는 보호할줄 알아도 이지구상에서 사라져가는 한종족에 대해서는 이렇다할 큰 관심을 보이지 않는 실정입니다.

나는 아사히가와의 아이누기념관앞에서 고유의상으로 성장한 지역首長의 아들과 아이누여인들이 손에손을 잡고 춤추는 광경을 보았읍니다. 아이누족이 신으로 받드는곰을 잡아서 승천시키는 전통 의식이었읍니다. 둥글게 모여서 춤이시작되는 순간 나는 통증과도같은 충격을 가슴에 느꼈읍니다.

그것은 우리 한국의 강강술래, 바로 그것이었읍니다. 춤의 동작이나 노랫가락이 우리것하고 거의 같았읍니다. 곰을 숭배하는 것도 똑같았읍니다. 나는 몽골리안이라는 공통분모를 발견했던 겁니다. 스기무라여사의 친정어머니가 연주하는 고유악기, 대나무로 만든 아주 작고 단순한 악기인데, 그 악기의 음악을 들으면서 나는 눈시울이 뜨거워짐을 느꼈읍니다. 여든이 넘은 노파가 대나무에 끼운 삼대를 입바람으로 진동시킬때 『우이 우이 윙윙』하는 애절한 소리가 나더군요. 그것은 붉은 저녁 놀과도 같은 이음악이었읍니다. 진정코 그것은 이제 곧 어둠을 맞으려는 뜨내기신세의 혼(魂), 지구상에서 종적을 감추려는 사람들이 토하는 신음의 끝소절이었읍니다.

분명히 밝히거니와 나는 관광객의 호기심으로 아이누를 만나지는 않았읍니다. 일본속의 소수민족인 우리 재일동포들의 처지를 염두에 둔것만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나는 보다 더 궁극적인 목적을 따로 가지고 갔던 겁니다. 전에도 나는 외국을 여행할때면 도심의 뒷골목이나 시장거리를 즐겨 찾곤했읍니다. 장사치와 손님사이에 벌어지는 흥정, 음식냄새, 사람의 땀냄새, 고함지르고 싸우는 소리따위를 통하여 나는 인간을 언제나 느끼고 싶었던 겁니다. 그점은 일본에서도마찬가지였읍니다.

오오사까의 국립민족박물관에서 나는 세계각국의 전통문화를 만났읍니다. 아주 합리적이고 실용적으로 잘진열된 각국관의 전시물들은 고대유물에서 민속, 살림도구에 이르기까지 우리한국하고는 아주 판이한 형태입니다.

그러나 세계각국의 문화를 한군데 집합시켰을때 그 두드러진 이질성에도 불구하고 나는 인간의 원형질같은걸 보게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요즘 우리가 흔히 쓰는 지구가족이란 말이 단순한 허드렛말이 아님을 절감합니다. 나는개나 돼지로 태어나지않고 사람으로 태어난 행운에 감사를 느낍니다.

스기무라여사는 자신의 피를 감추고 일본인한테 시집갔다가 아이누족임이 들통나서 자식 둘을 낳고 이혼당한 과거를 가지고있읍니다. 나는 그녀에게 허리를 굽혀 우리식으로 인사를 했읍니다. 그러자 그녀는 내팔뚝을 남자처럼 툭치면서 아이누식으로 인사를 하더군요. 그녀의 체취와 체온을 통하여 나는인간과 인간끼리의 마음의 교통을 느낄수가 있었읍니다.

인간 체취를 나는 일본인들한테서도 느낍니다. 앞서 얘기한 우류우가와의 순박한 농민들은 해마다 「오봉」(불교의 盂蘭盆) 때면 손수 기른 꽃을 꺾어 주변에 흩어진 이름없는 한국인들의 무덤에 바치고 넋을 위로합니다. 그들은 자기네가 합심하여 발굴한 원혼들의 유골을 절에 모시고 제사지내면서 금년 10월에 대표자를 뽑아 유골을한국으로 봉송할 계획을 추진중입니다. 그들은 한국인징용자들의 참상을 잘알기때문에 오늘날 자기네가 누리는 문화적 혜택이 한국인의 희생위에서 가능했다고 믿고 있읍니다. 유골을 모시고 대표단이 갔을때 한국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몰라 우류우가와의 주민들이 걱정한다는 말을 듣고 나는 아무 염려말라고 장담했읍니다. 생각해보십시오. 열린 가슴으로 오는 상대방을 닫힌가슴으로 내쫓을 한국인이 누가 있겠읍니까.

친구와 적은 반드시 구별되어야 하고 또그만한 분별력을 우리는 지니고 있읍니다.

어느나라나 서민들의 세계는항상 훈훈한 것입니다.문명이란 이름으로 오염되지않고 아직도 인간본래의 원형을 간직하고있는 서민들의 경우 지구가족이란말은 결코 과장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X씨, 당신도 나도 서민들을 스승으로 모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일껏얻은 지식이 인간끼리의참다운 교통에 장애가 된다면 그것은 차라리 무지보다도 저급한 것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는걸 나는 이번 홋까이도 여행을 통하여 뼈저리게 느꼈읍니다.

X씨, 나는 앞으로 당신의 입장을 이해하고자 노력하겠읍니다. 끝으로 나는 당신네 나라의 어느 유명한 학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편지를 마무리지을까 합니다.『문화인류학을 하다보면 한국과 일본이 같은 문화의 뿌리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두나라간에 해야할 일들이 태산같은 지금 정치때문에 학문에 장애가 생기는 것같아서 아주 서글퍼지는군요』

X씨, 당신의 건강한 앞날을 기원합니다.

尹興吉올림

메아리

舞天

金聖佑
<編輯委員>

하늘이 높아져간다. 秋夕이 멀지않았고 들녘에는 풍년가소리가 하마 들리는것 같다. 각지방에서는 향토문화제의 민속놀이들이 꽹과리를 울리기 시작할 때다. 해마다 이맘때면 칭칭이소리, 늴리리 소리가 온 강산에 울린듯하여 절로 어깨가 들썩들썩해진다. 세계 제일의 가을하늘아래 정말 얼씨구 절씨구의 철이다.

세계에서 한국인만큼 춤과 노래를 좋아하는 겨레가 몇이나될까 싶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古代부터 우리민족은 歌舞를 숭상했다고 魏志 東夷傳은 적고 있다. 역사책에서 읽을때는 춤과 노래 좋아하지 않는 민족이 어디 있을까싶어 별로 대수롭게 여기지않고 지나친 대목이었는데 막상 딴나라들 구경을 하고나서 생각하니 과연 옛史家의 虛辭가 아니었음을 실감하게 된다.

흔히 한국인은 恨의 민족이라고 한다. 그러나 흥의 민족이기도 하다는것은 과소평가되어있다. 우리나라 村夫나 村婦가 덩실덩실 어깨춤을 출때의 그 線의 율동, 山脈을 타고 줄달음쳐 내려온 바람이 골짜기에서 출렁이는것 같은 그 흥의 餘震은 어느나라의 무용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

이런 겨레의 흥이 지금 어디 모여 있는가. 흥을 펼쳐놓을 마당이 있는가.

시골에서는 봄·가을되면 할아버지나 할머니들이 흥을 쏟을데가없어 관광버스를 타고 名所를 찾아가 춤과 노래로 하루를 진창 논다. 다른나라에서는 자주 볼수없는 광경이다. 도시에서는 가령 술집같은데 가보면 손님들이 돈을 받고서가 아니라 되려 돈을내면서 서로 먼저 무대에 올라가 마이크를 쥐려고한다. 배설이요 발산이다. 우리나라 TV에서 쇼프로가 그렇게 많은것은 춤과 노래를 대신추고 불러주기위해서다.

남다르게 흥이 겨운 국민인데 우리나라에는 왜 이런흥을 건전하게 한자리에 모을 겨레의 잔칫날이 하루쯤 없는지 모르겠다. 「節」이있고 「날」도 있지만 그것은 休日이지 祝祭日이 아니다. 국사책에서 우리는 古代의 濊貊(예맥)에서는 매년 10월 舞天이라는 秋季共同大祭를 열어 주야로 마시면서 춤과 노래를 즐겼다는것을 배웠다. 이것이 扶餘에서는 迎鼓가 되고 高句麗에서는 東盟이 되었다. 모두 겨레의 흥의 집결소였다. 그 전통이 어디로 가버렸는가.

예컨대 프랑스에서는 매년 7월14일 혁명기념일이 되면 전국의 도시마다 마을마다, 광장이란 광장에서 온 시민들이 밤새도록 춤을 춘다. 국민적인 축제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가을철에 각지방에서 鄕土文化祭를 열고있지만 이것은 지역이나 날짜가 散發的이고 게다가 하나의 구경이지 모든 시민이 다 참여하는 잔치가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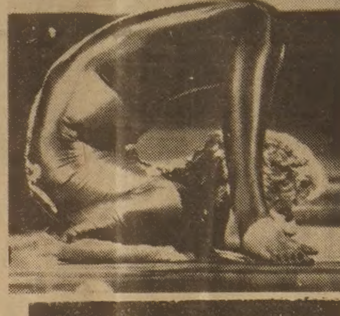
우리나라에는 지금 겨레의 신바람을 달래줄 날이 하루도 없다. 秋夕같은 날이라도 온나라의 마을마다에서 온국민이 신나게 춤추고 노래할수있는 擧國的 축제일이 될수 없는지 모르겠다. 온겨레가 함께 목청껏 합창하고 아름껏 팔을 벌려 커다란 圓舞를 출 民族의 카니벌이 하루쯤 열렸으면 좋겠다. 국민의 스트레스를 해소시킨답시고 매일 TV에서 권투시합중계만하고 있을일이 아니다. 민족단합과 겨레의 새로운 활력을 위해서도 새로운 舞天의 날이 하루 있었으면 싶다.

오늘 유네스코회관에서 열리는 鄕土祝祭에관한 심포지엄에서 민속학자 金烈圭교수가 발표할 논문중 다음과같은 지적은 경청할만하다.

『신명과 신바람은 너무나 오랫동안 한국인의 집단적 情緖이자 感情으로 굳어져왔다. 이 신바람의 退潮, 신명의 縮落은 어쩌면 한국인의 정서와 감정이엉킨 生活리듬에 장애가 생겼음을 의미할지도 모른다. 이런 해석이 옳다면 그것의 퇴조를 방치하고 아울러 그대체를마저 찾지 않는다는것은 사회적으로나 인간적으로 위험한 일이다』

海外토픽

◇美女의 몸매 유연성과시



83년도 미스·아메리카선발대회에 애리조나써대표로 참가한 데브라·다니엘양이 본선진출을 위한 예비심사를 마친후 체조로서 몸매의 유연성을 과시하고있다.
【아틀랜틱시티(뉴저지州) 9日AP=聯合】

拳銃녹여 十字架

★샌프란시스코女市長

샌프란시스코시장 다이앤·페인스타인여사는 최근 시의 무기소지금지조치와 때맞춰 자신이 갖고있던 권총등 20정의 권총을 녹여 만든 십자가를 로마교황 요한·바오로 2세에게 증정했다고.

페인스타인시장은 바티칸시티를 방문, 성베드로대성당에서 미사에 참석한후 교황을 알현, 높이 25㎝, 너비 16㎝의 십자가와 함께 샌프란시스코 조각가 베니아미노·부파노가 만든 성 프란시스상을 증정했다.
【샌프란시스코=PI】

등반과정 위성중계

★加, 에베레스트山登頂때

전세계가 사상최초로 세계최고봉 에베레스트산 등정광경을 지켜볼 수 있게 됐다.

즉 지난 4일 험난한 남서쪽루트로 등반을 시작한 캐나다등반대의 정상정복과정이 인공위성을 통해 전세계에 생방송될 예정이라는것.
【뉴델리=PTI】

주간女性

親知에 한국일보를 보냅시다

MR. CHOI'S RESTAURANT

주중 : 월～수 낮12시～밤12시
목, 금 : 12시～밤1시
토 : 4시반～11시

2432 Eglinton Ave. E. Scarborough
☎ : 759－8512
최 영 호

한국관

기계로 뽑는
냉면 · 짬뽕 · 짜장면
해장국 · 곰탕 전문

628 Bloor St. W. ☎ : 531－0277

내고향 통닭집

◎예전의 분위기가 아닌 새로 단장한 통닭집에 한번 들려주세요.
⊙여러분들의 성원에 날로 성장하고 있읍니다.

메 뉴

오뎅 · 백반	$ 3. 75	빈대떡 4개	$ 2. —
우동	$ 3. —	짜장면, 곰탕	$ 3. 75
냉면	$ 4. —	갈비백반	$ 5. 75
통만두	$ 3. —	생선찌개백반	$ 4. 75
김밥	$ 2. 95	통닭	$ 5. 95
		½닭	$ 3. 75

⊙배달 가능합니다.

658½ BLOOR ST. W. 537－0432

내고향통닭집

칼국수
오뎅 전문
통만두

658½ BLOOR ST. W.
☎ : 537－0432

오리엔탈 · 파레스

일요일 영업개시 오후 3 시부터
북경식 요리, 소고기 철판구이,
각종 홍콩식 요리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6

거구장

결혼 · 회갑 · 생일잔치 · 동창회및
각종 피로연 예약환영

가수 : 김미리자 BAND－기타 : 신상철
올겐 : 함효상
드럼 : 권순근

월～목 : 오후2시～새벽2시
금 : 오전11시～새벽2시
토～일 : 오후2시～새벽2시

5 BETHRIDGE RD. ETOBICOKE
☎ : 742－1618

MODERN FURNITURE
ecosys

왜 에코시스 가구가 인기 있을까요?
◆그것은 최고급회사 제품들로서 물건이 특이하고
◆일반 가구점에서 볼수없는 차원높은 가구들이고
◆양심적으로 거래하며
◆사산후에 문제점을 책임지고
◆교포들 에게는 특별염가로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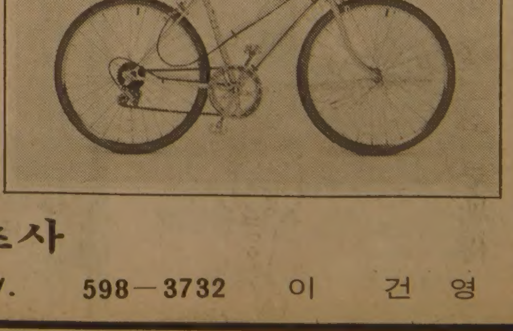
2300 YONGE ST. TOR. (In Yonge－Eglinton Centre)
TEL. 486-0397 김만구

가을철 자전거 스페샬 세일

⊙A BICYCLE
BUILT FOR YOU

CCM

최고품질의 상품
"어린이용에서
노인용까지"
각종 C.C.M 자전거



브랜돈스포츠사
337 BLOOR ST. W. 598－3732 이 건 영

광고신청은
광고부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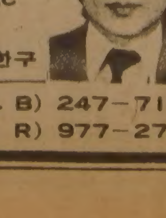
만족할만한 광고효과를 볼 수 있는 한국일보 광고를 많이 이용해 주십시요. 여러분께 보다 친절한 마음으로 신속, 정확히 맡은바 정성껏 여러분의 광고를 살펴 드리겠읍니다.

◎일반광고 : 최성조
◎안내광고 : 박경욱

토론토 한국일보 : 533－2361～4

Grant Brown

쎄일즈 · 매스터
이 한 구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LEASE 취급함 이한구

1575 WESTON RD. B) 247－7161
WESTON, ONT. R) 977－2731

최태권종합회계사무소
INCOME TAX Service
＊개인 세무및 보고서 작성
＊사업회계및 장부정리
637A BLOOR ST. W.(한국관 건너편)
☎ (B) 533-7573. (R) 699-3591 최 태 권

週刊한국

Benjamin Moore PAINTS
블루어 하드웨어
전기제품 일절
가정용, 공업용 TOOL.
재료일절
판매수리
변 의 섭
주소 : 608 BLOOR ST. W
전화 : 531-6183

안의섭 時事칼럼

「配定式 行政」流行…

얼빠진 놈

보브가 술에 만취해서 여느때보다 조금 빨리 귀가(歸家)했더니 아내가 알몸으로 헝클어진 머리를 흔들며 뛰어나와 남편을 맞이했다。

『당신、오늘은 퇴근이 빨랐네요』

『음、근데 그 꼴은 뭐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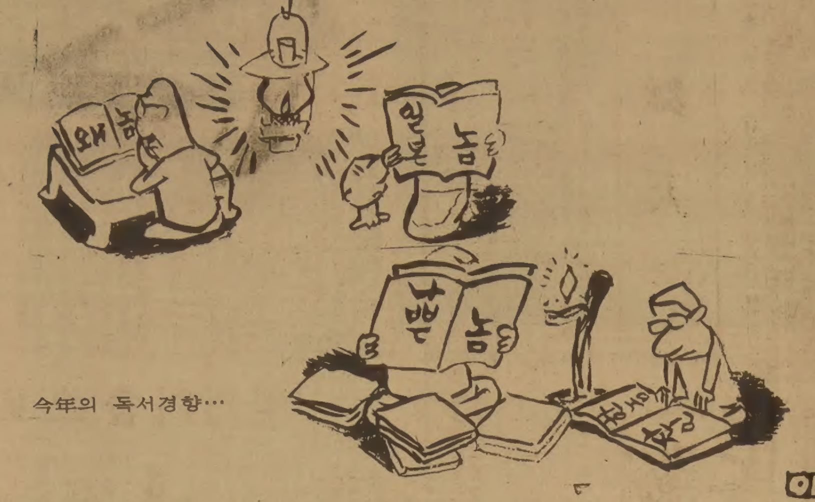
『도둑놈이 들었댔어요。내옷을 모조리 벗겨갖구 잡지뭐에요。하지만 당신이 돌아오니까 도둑은 그냥 도망쳐 버렸어요』라면서 보브에게 교태를 부리며 안겨왔다。

『저런、당신이 무사해서 다행이야』

이튿날 보브는 회사에 출근하자마자 어제밤의 사건을 동료들에게 얘기하면서 껄껄 웃었다。

『그자식 얼빠진 도둑이었나봐。제바지를 잃어버리고 내뺐으니말야…』

〈얘기의 샘〉



今年의 독서경향…

신문에 안난 現場

달리는 열차에 돌팔매질을 하는 버릇이 늘어나 승객이 얼굴과 팔에 피를 흘리는 등 크게 다치고 있다。京釜선 大邱역 일대가 특히 심해 경찰은 투석자 색출에 나서고 있지만 철로 연변 주민들의 각별한 경계가 요망된다。이번주 「기자수첩」에는 벌에 쏘인 아들의 복수를 하려고 벌떼를 농약으로 없애 버린 부정(父情)이 벌 주인 손에 목숨을 잃고 만 사건과, 개도둑이 맹견을 꼼짝 못하게 하는 비방등 희귀 사건과 신종 수법까지 메모됐다。또 남의 집에 물건을 훔치러 침입했던 도둑이 포도주와 인삼주를 훔쳐 마시고 부엌바닥에 곯아 떨어진 사건도 기록 거리。

벌에 쐰 아들복수하려 벌떼에 농약

도둑이 포도주·인삼주마시고 곯아떨어져

女工이 돈안빌려준다고 친구 목졸라죽여

■달리는列車에돌팔매질

▲大邱시내를 통과하는 京釜선 상·하행열차에 투석행위가 부쩍 늘어나 승객들이 다치고 유리창이 깨지는 사고가 속출하고있다。

25일 대구시경의 집계에 따르면 올들어 시내 서구비산동과 동구방촌동 사이 동대구역과 대구역을 통과하는 京釜선 철로 8㎞연변에서 모두 13건의 열차 투석 사고가 발생, 승객 8명이 중경상을 입었고 유리창 14장이 깨졌다는것。

지난달 22일하오7시5분께도 시내서구비산동 서울깃점3백20㎞지점 京釜선 상행선에서 釜山발 金泉행 제408보통열차에 주먹만한 돌이 날아들어 유리창이 깨지면서 승객 오용현씨(20·대구시 서구 평리동)와 박세득씨(36·경북칠곡군왜관읍왜관동)등 2명이 얼굴등을 크게 다쳤다。경찰은 일대 주민들을 대상으로 투석자를 수색중이다。

▲서울동대문경찰서는 지난달 27일 朴春在씨(22·주거부정)를 야간주거침입 및 절도미수협의로 구속영장을 신청。

朴씨는 이날 새벽3시50분께 서울종로구숭인1동58의337 임원용씨(30·회사원)집에 물건을 훔치러 들어갔다가 부엌 항아리에 담가놓은 포도주와 인삼주등을 마구 퍼마시고 부엌바닥에 곯아 떨어졌다가 주인 林씨에게 붙잡힌것。

경찰에 연행될때까지도 술이 덜깬 朴씨는 『훔쳐갈만한 물건이 없어 그대로 나가려다가 술독이 눈에 띄어 한잔만 하려고 했던것이 너무 마셔버린것 같다』고 진술。

■가방속 화공약품폭발

▲지난달 24일하오8시반께 서울동작구흑석동221 중앙대학교 도서관11층 열람실에서 공부하던 화학과 4년 金英燮군(27) 가방속에 들어있던 화공약품을 담은 시험관이 터지는 바람에 열람실에 있던 학생 50여명이 대피하는 소동을 빚었다。

폭발한 시험관은 직경1㎝, 길이10㎝로 평소 로키트 추진제에 관심이 있던 金군이 이날 상오9시께 집에서 추진제 시험용으로 붉은인과 염소산칼륨등 4가지약품을 여기에 배합해 넣고 25일낮 학교에서 실험하기위해 가방속에 넣고 다녔다는 것이다。

중앙대학 화학과 이일규교수는 인과 염소칼륨의 배합물은 작은 마찰이나 충격에도 폭발되며 낮은 온도에서도 충격을 받을 수 있어 밀폐된 가방속에 넣어둔 시험관이 가방속 온도가 올라가면서 자연폭발한 것같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경은 지난 26일 주부도박단 일당 13명을 적발, 이중 鄭寅金(53·개장주·서울시용산구 이태원동181의29)、朴貞信(56·도박전과3범·서울중구묵정동22)、李桑然씨(46·도박전과1범·서울강남구 반포동 한신5차아파트214동513호)등 7명을 상습도박 및 도박장개장협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연락책 林文植씨(45·서울마포구신공덕동2의64)등 5명을 같은 협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25일하오1시께 서울서대문구홍제동48의43 인왕아파트A동412호 개장주 鄭여인의 2남 집에 모여 1회에 5만원~10만원씩 걸고 속칭 도리짓고땡이 판을 벌인것을 비롯, 지난달 24일부터 지금까지 서울시내 4개소를 옮겨다니며 판돈 2천6백만원의 도박을 했는데 판돈 3백55만원과 화투 60장이 증거물로 압수됐다。

<그림·權大雄>

▲지난달 31일 밤11시25분께 서울은평구녹번동43의26 주택가 골목길에서 월급을 타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던 朴相淑양(11·공원·서울은평구갈현동326의7)이 나일론끈과 혁대로 목이 졸려 숨져 있는것을 순찰중이던 서울서부경찰서 은평파출소 방범대원 李東岩씨(29)와 陳孔達씨(30)가 발견했다。

朴양은 주먹으로 얼굴을 맞아 코피가 터지고 자신의 손가방 나일론 끈과 청바지 혁대로 4번 목이 감긴채 숨져 있었는데, 이날 받은 월급봉투가 없어졌다。

은평구응암동20의2 세명섬유보세공장 공원으로 일해온 朴양은 이날 하오7시께 8월분 봉급 6만2천1백원을 받아 평소처럼 귀가길에 올랐었다。

이 사건을 수사중이던 서울서부경찰서는 1일 낮 범인으로 같은 회사동료 金모양(18·경남밀양군무안면)을 검거, 범행일체를 자백받았는데 범인 金양은 『용돈이 궁해 돈을 빌어달라고했으나 거절당해 얼굴을 두 차례 때렸는데 朴양이 심하게 반항해 순간적으로 화가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보사부차관집에 도둑

▲지난달 30일 밤9시께 서울강남구방배동437의7 金秉洙보건사회부차관(46)집에 도둑이 들어 현금 40만원과 자기앞수표 50만원권 1장등 90만원을 훔쳐갔다。

金차관은 이날 제사를 지내고 안방을 비운채 응접실에서 가족들과 얘기를 나누던중 방문이 열린것을 이상히 여겨 들어가 보니 양복주머니에 넣어둔 현금등이 없어졌다는 것。

경찰은 도둑이 담을 넘어들어와 안방에 침입한 흔적을 발견, 인근 불량배들을 중심으로 수사를 펴고 있다。

■講師등이 사기에걸려

▲서울서부경찰서는 지난달 26일 申東璧씨(50·경기 고양군지도면강매리262)를 사기협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申씨는 지난78년6월11일 낮 서울중구충무로2가 우주지대살롱에서 安永穆씨(60·D여대강사·서울 강남구압구정동369)등 2명에게 자신은 모기관 국장이라고 속이고 고위층을 통해 서울부시장에게 청탁, 공원용지였던 서울관악구방배동산94 일대의 임야 1만5천7백20평을 해제시켜 일반택지로 지목을 바꿔주겠다며 교제비조로 50만원을 받은것을 비롯, 8차례에 걸쳐 1천2백45만원을 가로챈 협의다。

■전경대원이 행패

▲지난달 30일 새벽1시반께 서울시동대문구용두2동234의5 열애주점(주인 이방옹·39)에서 종로경찰서 소속 전경대원 金광우순경(21)이 술에 만취, 주인 李씨를 마구 때리며 행패를 부리다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입건됐다。

金순경은 이날 영업을 마치고 문을 닫으려는 열애주점에 들어가 『나는 수사관이다。영업허가증이 있느냐』고 위협하면서 술을 팔라고 요구…。주인 李씨가 『영업시간이 끝났으니 돌아가달라』고 사정했으나 金순경은 李씨를 때려 전치2주의 상처를 입힌 뒤 출동한 경찰에 연행됐다。

全州시내 중심가에 때아닌 돈벼락

"工期단축한다"고 수확가능 벼논 매립

▲서울지방 철도공안관실은 李柱成(23·주거부정)、金모군(18·〃)등 3명을 범죄단체조직및 특수절도협의로 구속했다。

철도청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일 하오3시께 仁川제물포역앞 지하분식점에서 李를 두목으로하는 범죄단체를 조직, 하루뒤인 3일 하오7시께 경인선 전철안에서 32세가량의 여자가 든 핸드백을 면도칼로 찢고 현금12만원을 소매치기 한것을 비롯, 지금까지 주로 경인선 전철객차를 무대로 18차례에 걸쳐 2백60여만원을 소매치기해 왔다는것이다。

▲지난달 26일 새벽1시반께 서울동작구상도동505 옛날 상도동고개 꼴목길에서 서울4바6348 한도 한시 포니택시(운전사 황석익·29)를 타고가던 22세가량의 청년 2명이 강도로 돌변, 흉기로 운전사 黃씨를 위협하고 현금8만원을 빼앗아 달아났다。

범인들은 이날 용산 시외버스터미널에서 택시를 타고 상도동쪽으로 가자고 한뒤 범행지점에 이르자 뒷좌석에 타고있던 범인중 1명이 갑자기 운전사 黃씨의 목을 조르고 다른 1명은 길이20㎝가량의 과도를 黃씨의 옆구리에 들이대며 『소리치면 죽인다』고 위협한뒤 돈주머니에 든 1일수입금8만원을 털어 달아났다。

■고급주택가 전문도둑

▲서울마포경찰서는 지난달 25일 보은당금은방주인 黃台周씨(30·서울도봉구중계동104)등 2명을 특수절도협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金成煥씨(32·서울도봉구상계4동152)를 같은 협의로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金씨등 일당3명은 지난18일 낮11시께 서울 마포구아현동414의13 金賢姬씨(30·여)집이 비어 있는 것을 확인, 담을 넘어 들어가 안방 장롱을 뒤져 일제 카메라, 녹음기등 40만원어치의 금품을 턴것을 비롯, 지난80년초부터 지금까지 용산, 서대문, 마포일대의 고급주택가를 무대로 대낮에 비어있는 집만 골라 침입하는 수법으로 모두 40차례에 걸쳐 2천여만원 상당의 귀금속류를 훔쳐 왔다는것。

▲지난달 25일 하오8시께 전북 전주 시내 중심가인 연지동 대성기계앞길에 때아닌 돈벼락이 떨어져 이를 줍는 주민들로 한때 교통이 두절되는 소동이 벌어졌다。

돈을 처음 발견한 高재원씨(62·전주시수성동5통2반)에 따르면 이날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50m쯤 떨어진 도로위에 광고물처럼 보이는 종이가 수없이 바람에 날려 무심코 한장을 주워 보니 뜻밖에도 돈이었다는것。

高씨가 돈을 줍기 시작하자 지나가던 사람들이 벌떼같이 달려들어 이 꼴은 한때 교통까지 두절되는 소동이 빚어졌다。

高씨등 행인들은 1만원권、5천원권、1천원권으로 된 돈을 29만1천원이나 경찰에 돌려줬는데 주운 돈을 가지고 그대로 가버린 사람도 상당수 있어 실제로 버려진 돈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여진다。

경찰은 이 돈이 오토바이 뒤에 싣고가다 분실된 것으로 보고 돈을 분실한 주인을 찾고있다。

▲南光土建이 지난달 23일 水仁산업도로 확장공사를 시공하면서 벼가 누렇게 익은 경기도 화성군 반월면 팔곡리일대 1천5백여평의 논을 매축해 이지역 주민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이 마을 朴昌學씨(65)등 주민들은 우리들은 보상금을 받았으니까 직접적으로 이해관계는 없으나 10여일 후면 수확이 가능한 벼논을 매축해 버린 것은 손실이 아닐수 없다고 아쉬워했다。

이에대해 시흥군수암면에서 화성군반월면반월교까지 15㎞의 2차선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하는 南光土建의 현장책임자 안수복씨(35)는 『공기를 단축하느라고 수확이 임박한 벼인줄 알면서도 매축했다』고 해명。

■벌때문에 殺人까지

▲충남금산경찰서는 지난달 31일 말다툼 끝에 이웃주민을 때려 숨지게 한 姜萬植씨(43·양봉업·금산읍하옥4리)를 폭행치사혐의로 구속했다。

姜씨는 지난달 28일하오3시께 이웃 李錫俊씨(55·상업)집마당에서 黃씨가 기르는 벌이 李씨의 차남 李모군(18)의 눈을 쏘았다면서 李씨가 사과나무에 날아온 수백마리의 벌에게 농약을 뿌려 모두 죽여버리자 이에 격분, 시비끝에 李씨를 콘크리트담벽에 쓰러뜨려 뇌출혈로 숨지게 했다는것。

그런데 이 사건을 담당한 금산경찰서 K형사는 『물꼬싸움으로 살인 내는 일은 보았어도 벌 때문에 살인까지 빚는 일은 형사생활15년에 처음본다』고 한숨。

▲설악산에 수학여행을 왔던 경기도 안성여상2년생 김복순양등 40명이 속초시 설악동B지구 국제산장여관(주인 장태진·37)에서 제공한 저녁밥을 먹고 집단식중독을 일으켰다。

지난달 30일 金相起교장의 인솔로 설악산에 온 안성여상2년생 5백56명은 31일하오7시부터 8시사이에 여관에서 준 멸치조림, 꼬치국, 쇠고기볶음, 야채샐러드등으로 저녁식사를 하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이날 밤11시께 40여명이 고열에 심한 두통과 구토·설사등 식중독증세를 보이기 시작한것。

태풍등 거센파도가 다시마 몰고와 큰所得

개도둑…멸치와빵으로 유인、눈에 모래뿌려

▲태풍 엘리스가 전국 곳곳에 많은 피해를 준데 반해 경북울진군울진읍온양2리 해변의 주민들에게 뜻하지 않은 소득을 안겨 줘 이색적인 풍경을 연출。

지난8월28일하오부터 때 엘리스로 인한 거센 파도가 점차 누그러지면서 이곳 1㎞의 해안 곳곳에는 다시마가 대량으로 밀려올라와, 97가구 4백여 주민들이 이를 건져내느라 즐거운 비명을 올렸다。

주민들은 이미 가구당 3만여원이상씩 모두 3백여만원의 소득을 올렸는데 더많은 다시마를 건지게되자 이를 말리느라 여념이 없다。

이마을 어촌계장 崔在旭씨(49)는 『인근연안에 서식하는 자연산 다시마가 거센파도에 밀려 조류를 타고 마을앞 해변까지 온것같다』면서 힘안들이고 다시마를 채취하게됐다고 싱글벙글。

▲강원도 원주경찰서는 지난달 31일 보신탕성수기에 30여마리의 개를 훔쳐 보신탕집에 팔아넘긴 金東仁씨(24·원성군소초면장양4리5반)등 개전문도둑 일당 3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 협의로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 25일 새벽 2시께 원주시 가현동 2통3반 崔福圭씨(34)의 1년생 도사견 1마리(싯가 15만원)를 훔친 것을 비롯, 지난 6월부터 지금까지 모두 27회에 걸쳐 30마리(싯가 2백23만원)를 훔친 협의이다。

이들은 아무리 사나운 개라도 멸치와 빵조각을 던져 유인한뒤 미리 준비한 목줄이를 걸어 끌고 가는데 만약 반항하는 맹견은 모래 한주먹을 개눈에 뿌려 꼼짝 못하게 하는 신종(?)수법을 택했다고 털어 놓았다。

〈정리 姜升鎬기자〉

한국일보
구독 신청은
TEL : (416)533·2361

日암학회 발표·암제압 최첨단 情報

TNF注入으로 암세포 박멸

東京醫大 연구팀 토끼 실험서 얻어 대량생산 성공

◇TNF의 大量생산법을 개발해낸 原中勝征씨。

東京大醫學部연구팀이 癌치료의 신병기 TNF의 대량생산에 성공, 일본 학계와 의료계의 주목을 받고있다. TNF란 종양괴사인자(腫瘍壞死因子)로 통칭「살암(殺癌)물질」로 불리는 생체내(生體內)물질。東京大醫科學硏究所內科助手 하라나까(原中勝征)팀은 지난 8월 23일부터 오오사까에서 개막된 일본암학회 총회에서 TNF대량생산에 관한 연구를 발표했다。

『기존 항암제는 암세포를 공격하는 한편, 정상조직까지 파괴하는 작용을 하지만 TNF는 정상세포에는 전혀 피해를 주지 않고 암세포만을 죽이는 매우 진귀한 물질입니다. 아직 동물실험의 단계에 있읍니다만 미량의 TNF로 암세포를 1백% 죽이는 작용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읍니다.』

하라나까조수(助手)의 설명이다.

하라나까팀의 실험에 의하면 배양(培養)된 인간의 암세포 18종에 TNF 용액을 발랐더니 폐암·악성흑색종(黑色腫)·자궁암·윌스종양(腫瘍)·미분화(未分化)위암등의 암세포를 소멸시키는 한편, 정상세포에는 아무런 영향도 없었다는 것이다. 또 쥐의 피부에 인공의 암을 이식시켜 암이 직경 6~7㎜ 크기로 자랐을 때 미량(0·6마이크로그람)의 TNF를 주사했더니 2주일 후에 암이 완전히 없어졌고 쥐는 여전히 건강했다。

일반적으로 암치료제에는 암에 직접작용하는 항암성항생물질과 생체에 암에 대한 면역성을 길러주는 제암제(制癌劑) 2가지가 있다。

『TNF는 암세포를 직접 공격하는 작용과 생체의 방어기능(면역성)을 높이는 2가지의 작용을 동시에 합니다。이런 물질은 TNF외에는 없어요。』

하라나까씨의 설명。

TNF는 1975년 미국 슬론·케터링 암연구소의 L·올드 부소장이 발견했다。하라나까씨는 77년부터 80년까지 동연구소에 유학, 토끼를 실험대상으로 하여 대량생산법을 연구했다。

동물에 BCG나 유리네·박테리움을 주사해 생체의 면역상태를 높인뒤 엔드톡신(세균毒素)을 주사하면 암세포등 이물질을 잡아먹는것으로 알려진 마크로파지(食食세포)의 작용으로 TNF가 얻어 진다。하라나까씨는 토끼에 사람의 여드름균을 주사, 약 9일 뒤에 대장균독소를 주사하는 방법으로 TNF의 대량생산에 성공했다。

『인터페론과는 달리 종족특이성이 없어요。즉 원숭이나 토끼로부터 얻은 TNF가 사람에게도 잘 듣습니다。쥐 1마리가 생산하는 TNF는 그 쥐에 생긴 암을 충분히 치료할만한 양이 됩니다。』

하라나까씨는 실제로 약이 되어 나오기까지는 아직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그러나 이미 大日本제약과 旭化成工業이 TNF의 기업화를 추진중이며, 독자적으로 연구하고있는 회사도 있다。

새로운 약이 승인을 받으려면 우선 동물실험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되어야 하며, 다음에는 대학병원이나 연구시설에 의뢰, 환자에게 실험적으로 사용해본 임상데이터를 작성하여 후생성으로부터 의약품제조승인을 받아야 한다。

◇原體照射法을 개발한 松田忠義씨。

醫藥界 큰 수확…製藥社들 量產체제 서둘고

『大日本제약이 60억엔을 투자했는데 그것은 TNF를 양산하기위한 목표가 섰기때문입니다。이번 암학회총회 1천5백저의 발표가운데 TNF대량생산연구가 가장 큰 수확이었지요。천하의 東大에서 개발된것이니 약이 나온다면 쓰지않을 병원이 있겠읍니까?』

한 국립대학 연구자는 東大팀의 연구업적을 이렇게 평가했다。

TNF가 인간의 암치료에 이용되려면 아직 좀 더 시간이 걸린다고 하지만, 부작용없이 암을 치료하는 또 다른 방법이 등장, 실제 이용되고 있다。심한 부작용이 치료의 벽이 되어 있던 방사선요법이 개선된것。

東京都立駒込병원 방사선과부장 마쓰다(松田忠義)박사의「原體照射法」이 그것이다。

마쓰다박사에 의하면 78년 6월부터 82년6월까지 5년간 2백90명의 환자에게 이 원체조사법을 이용해 치료해 보았더니 전체환자의 3분의 1은 암이 소멸됐고 나머지 환자들도 증세가 매우 좋아졌다는 것이다。

『2백90개의 임상례(臨床例) 가운데 뇌종양환자 1백명은 종래요법에서 나타나던 부작용은 한사람도 없었어요。뇌종양의 방사선요법은 지금까지 암의 주변조직이 죽어버리는 케이스가 많았읍니다。전립선암(前立腺癌) 환자40명의 경우도 종래의 요법으로는 숙취증상·설사같은 부작용이 따랐으나 원체조사법 치료를 받고는 70%가 아무 부작용도 없었읍니다。또 종래의 방법으로는 불가능한것으로 돼있던 췌장암도 17명가운데 30%가 암이 소멸됐으며 퇴원후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도 있읍니다』

마쓰다박사의 임상실험결과이다。

암을 조사(照射)하는 방법은 65년 愛知縣암센터 다까하시(高橋信次)총장이 처음으로 원리를 발표했었다。마쓰다박사는 日本電氣와 협력, 그 원리의 실용화를 촉진, 78년 컴퓨터를 이용한 조사(照射)장치를 개발했다。이 방법은 회전조사법(回轉照射法)의 일종으로 방사선치료장치를 누워있는 환자주위에 회전시켜 가며 회전각도에 의해 조사구(照射口)의 크기와 모양을 변화시킴으로써, 암종양에만 방사선이 쪼여지도록 하는 방법이다。

우선 CT(斷層촬영장치)로 암의 위치와 크기를 컴퓨터에 기억시켜 조사장치가 암의 윗부분에 방사선을 집중시킨다。

이런 방법으로 암종양만을 조사하는 방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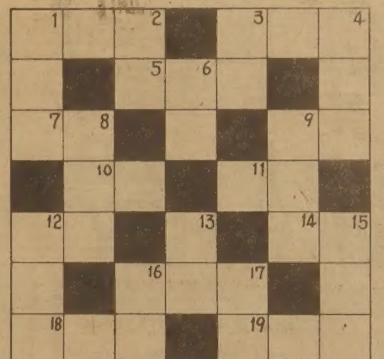
이 컴퓨터제어에 의한 원체조사법장치는 지금 駒込병원과 愛知縣암센터 두곳 밖에 없지만 이미 日本電氣가 생산에 착수했기 때문에 다른 병원에서도 곧 실용화 될 전망이다。

단 이 방법은 국소(局所)만을 공격하는 방법이어서 치료에 한계가 있다。마쓰다박사는 『원체 조사법은 어디까지나 국소(局所)치료에 한해 성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국소(局所)의 영역이 확대된 경우(轉移)에는 치료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암이 퍼지기 이전의 단계 즉 조기발견의 경우 집중공격으로 치료효과를 높이는 획기적인 것이다。〈外誌〉

가족과 함께 두뇌 체조를

뉴스 낱말 풀이 퀴즈



〈힌 트〉

■가로
1. PLO지도부와 함께 아라파트가 그리스를거쳐 망명해 가는곳
3. 미술품등 진짜를 빼치죠
5. 눌러서 오그라뜨리는 기계
7. 수술 해부때 메스를 잡음
9. 회의등 진행을 맡아 봄
10. 짐승이나 사람을 죽임
11. 남편이 없는 여자
12. 골동품등 수집, 깊이 간직함
14. 예금등을 찾아 냄
16. 청룡언월도를 사용한 삼국지 등장인물
18. 내년에 방한키로한 우방의 대통령
19. 물질의 불이 붙는 온도

■세로
1. 어육등에 밀가루를 묻혀 끓는 기름솥에 튀긴 반찬을 만드는 집
2. 손끝으로 밀거나 두드려 신체의 피로를 풀거나 혈액 순환을 도움
3. 뇌염을 옮김
4. 산물이나 제품등을 모아 품질을 평하는 모임
6. 오프·사이드가 적용되는 경기
8. 가축을 잡는 곳
9. 사돈댁의 존칭
12. 쇠가죽에서 벗겨낸 질긴 고기
13. 선박을 이용 선객·화물을 나르는 일
15. 육상경기에서 골인지점의 반대
16. 문빗장과 자물쇠
17. 여자인지 남자인지 혼란을 빚게 하는 것

■뉴스낱말풀이 퀴즈正答 〈제22회〉

튀	니	지	■	모	조	품
김	■	압	축	기	■	평
집	도	■	구	■	사	회
■	살	생	■	과	부	■
수	장	■	해	■	인	출
구	■	관	운	장	■	발
레	이	건	■	발	화	점

「한국 名作」속의 숨은그림찾기

바보온달과 평강공주

고구려 평원왕에게는 어여쁜 딸 평강공주가 있었읍니다。어느날 밤, 공주는 하늘에서 별이 비오듯 쏟아지는 것을 보았읍니다。공주는 그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겠으나 궁성뜰에 나와 별을 주우려고 하니까 이슬로 녹은양 별들은 하나도 없었읍니다。공주는 그만 울음을 터뜨렸읍니다。이날부터 공주는 눈만 뜨면 울음을 터뜨렸읍니다。

쉴사이없이 울어대는 공주를 보고 사람들은 놀려 댔답니다。바보 온달이에게 시집을 보내겠다고…。

말이 씨가 된다고 혼례를 올려야 될 나이가 된 공주는 궁성의 부귀영화도, 좋은 혼처도 다 마다하고 바보 온달을 찾아가 그를 온달장군으로 만들어 놓고 말았읍니다。나라를 구하기 위해 장수가 된 온달장군은 아단산성에서 그만 적군의 화살을 맞아 숨을 거두고 말았읍니다。〈작품중에서〉

구성·장태산

■숨은 그림

보석반지 화살표 연필한자루 줄넘기 하트 알파베트A 고추 화분 승용차 도끼 바께쓰 개

女流 바둑頂上 차지한 曺愛子양

—女高1년때 시작한 아마4단 '女國手가 꿈'—

항도 釜山에서 지난 7일에 열린 전국여류 아마바둑대회에서 80여명의 선수를 물리치고 우승을 차지한 曺愛子양(24·아마4단·大邱시西區內唐5동1106)은 제1회 대회를 비롯, 이 대회에서만 3연패를 차지했다。

특히 여성 바둑 인구가 거의없는 大邱에서 홀로 출전, 외로운 독전(獨戰)으로 영광을 얻어 화제가 되고있다。

현재 慶山군 우체국에 교환양으로 근무하는 曺양은 자그마한 키에 앳된 소녀같지만 바둑판만 대하면 근엄해지고 눈빛이 날카로와진다。

그만큼 바둑에 대한 열의가 대단하다。

曺양은 尙書여고 1학년때인 74년도 부터 바둑을 시작했다。처음에는 친구들과 오목놀이로 시작하다 바둑을 알게되자 남보다 더 잘 두고 싶은 생각으로 연구에 들어갔다。

1년뒤에는 8급이 되었고 이때부터 아버지의 꾸지람을 피해 바둑에 더욱 열중했다。그리고 3년후에는 여류 국수대회에 입상하기에 이르렀다。曺양은 특별히 사사한 스승은 없고 시중에 나온 바둑책으로 배웠다。책을 보다 정알기 어려울 때는 기원에도 나갔지만 기원에 가서는 밤12시가 다 되어야 일어설 정도로 극성파였다。

이러한 극성으로 7급에서 4급까지는 자고나면 한급씩 오르기도 했다。

曺양은 여자가 왜 바둑을 두느냐는 질문을 들을 때마다 바둑처럼 여성에게 적합한 오락은 없다고 대답해왔다。그와 함께 인생사에도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를 설명한다。

바둑은 정적오락이라 더욱 여성에게 알맞는다고 한다。조금 어려워졌을 때 고비만 넘기면 더없이 재미있는 것이 바둑인데 대부분의 여성이 이 고비를 넘기지 못한다고 안타까와했다。

曺양의 꿈은 여류국수가 되는 것。내년봄에는 꼭 여류국수가 되어 황무지인 大邱 여성 바둑 인구의 저변확대를 꾀하겠다는 것이다。

結婚 17년을 맞告訴로 끝낸 부부

—남편을 姦通罪로, 아내를 절도죄로 고소해—

특이한 出產으로 결혼 17년만에 파경에 이른 어느 부부의 맞고소사건이 화제가 되고있다。

경찰에 남편을 간통죄로 고소한 H씨(41·大邱시大賢동)와 아내를 절도죄로 고소한 남편 S씨(45)는 65년 중매로 결합된 신체이상없는 부부였다。

비극의 씨앗은 결혼초부터 잉태되었다。

결혼 이듬해 H부인은 크나큰 희망속에 첫딸을 순산했다。그러나 건강하게 자라나던 아이는 이상하게도 말문을 터뜨리지 않았다。

백방으로 물어보고 약을 써봤지만 효험없는 농아였다。

첫번째 딸애의 충격이 채 가시지않은채 두번째 출산을 했는데 역시 농아였다。세번째 아이를 가졌다。

임신 8개월의 몸으로 초조속에 나날을 보내던 H부인은 행여나싶어 산부인과를 찾았다。

의사는 『원인은 알수없으나 진찰결과로는 출산하면 또 농아가 될 가능성이 많다』는 답변이었다。

임신과 유산—。

이러기를 13번。결국 부부는 정상아 분만을 포기하고 말았다。

그러나 이들 부부는 어떻든 자식만은 가져야겠다는 집념을 버릴수 없었다。

이때 S씨가 생각해낸것이 씨받이였다。S씨는 지난6월초 아내와 상의를 했다。다른여자와 관계하여 아이를 낳아 기른다는것이었고 H부인이 이를 승낙했다。

S씨는 金모여인(31)과 동정, 金여인은 임신 3개월의 몸이 됐다。

남편 S씨가 金여인에게 차츰 정을 쏟게되자 H부인은 초조하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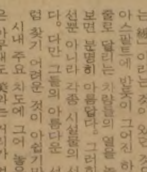
몇차례 부부싸움이 거듭되면서 부부의 정은 멀어지게됐고 끝내 H부인은 남편을 걸어 간통죄로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H부인의 간통고소는 H여인의 宥恕하에 이뤄졌기때문에 간통죄가 불성립, S씨는 경찰에서 하룻만에 풀려났다。

S씨가 집에 이르자 가재도구가 몽땅없어졌다。이번에는 S씨가 아내를 걸어 절도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千字春秋

都市의 美와 線



趙完圭 〈서울大 교수〉

도로에 車線을 긋고 내건 표어에 「도시의 美는 線」이라는 것이 있던 것으로 기억한다。검은 아스팔트에 반듯이 그어진 하얀 차선에 따라 한줄로 달리는 차량들의 열을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면 분명히 아름답다。그러한 심미적소재는 차선뿐 아니라 각종 시설물의 선에서도 찾을 수 있다。다만 그들의 아름다운 선을 서울에서 좀처럼 찾기 어려운 것이 아쉽기만 하다。

시내 주요 차도에 그어 놓은 비뚤어진 흰선은 아무래도 美와는 거리가 멀다。도심에서 8軍캠프、반포、버스터미널등 강남으로 잇는 길목으로 안팎손님들이 빈번히 통행하여 서울의 간판터널이라 할 수 있는 남산「제3터널」의 양쪽 벽에 장치해 놓은 형광조명등의 선은 고르지못한 불빛까지 더하여 오히려 보기싫은 醜物이라 할 수 있겠다。강남북을 잇는 관문인 제1한강교북단 램프웨이 난간의 조잡한 선도 그대로 보아 넘기기가 어렵다。그런 시설물을 보는 사람들이 그 시공자나 감독자처럼 美에 우둔하지 않다면 그들 선이 몹시 흉하게 보일 것이다。

수년 이래 國際技能올림픽에서 연거푸 우승을 거둔 것을 보면 1천분의 1㎜의 정밀성까지도 다루는 우리국민의 손재주가 남다를것이 틀림없겠지만 그 흉물들을 대하는 많은 사람들이 과연 그것을 믿지 않을까 걱정이다。혹은 올림픽용技能과 技術이 따로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도 없지 않을 것이다。

문제는 시공기술의 후진성에 있다기 보다는 깔끔한 끝마무리 손질에 성의가없기 때문이라고 하겠고 그것은 일상「대강대강」해두는 것이 미덕처럼 몸에 배어온 우리들 생활관의 탓일지도 모른다。

올림픽이 다가오면서 각처에 각종시설물이 건조되겠지만 소홀한 끝마무리로 인하여 우리 본래의 기술력을 낮게 평가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앞으로 공공시설물에 업자와 감독자의 이름을 크게 써붙여서 지나는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한다면 끝마무리를 소홀히 할수 없기때문에「都市의 美」를 創造하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될 듯도 싶다。

멀쩡한 受取人두고 「이사갔음」

美國서 보낸편지 되돌아갔다 5개월만에 主人손에

매달 오가던 편지 끊어지고 집배원 무성의 써비스 분통

서울성동구뚝곡동○○의 4호에 살고있는 李문영씨(46·가명)는 美國에 사는 친척이 지난3월9일 부쳤던 항공우편을 5개월만에 받아보고 몹시 분개했다. 4~5일이면 도착되는 편지가 이렇게 늦어진것은 집배원의 무성의 탓이었기 때문이다. 항공우편이 5개월간이나 늑장을 부린 사연은 이러했다.

李씨는 美國 LA에 살고였는 친척과 근4년동안 매월 1~2회 서신연락을 해왔었다.

그런데 지난2월 LA에서 워싱턴으로 이사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편지를 마지막으로 소식이 끊겨버렸다.

2월에 온 편지에는 분명히 워싱턴의 주소를 이사갈 때 알려주겠다고 해놓고는 종종 무소식이었다.

매월 소식을 전하던 친척의 편지가 뚝 끊어지자 李씨는 궁금하기 짝이 없었다. 그러나 수소문해볼 길이 없었다.

궁금한것은 美國의 친척역시 마찬가지였다.

美國의 친척은 이사를 가기직전 워싱턴의 주소를 알리는 편지를 띄웠었다.

그런데 이 편지가 되돌아가버렸다. 편지겉봉에는 「이사갔음」이란 서울국제우체국의 소인이 찍혀 진채로 친척이 마지막 부쳤던 편지는 LA주소로 했었기 때문에 서울에서 되돌려진 편지는 일단 LA로 갔고 LA우체국은 이사간 친척의 주소를 확인, 워싱턴으로 정확히 배달해 주었다.

한 두달 궁금해하던 美國의 친척은 李씨에 대한 별의별 생각이 다 떠올라 그냥 있을 수가 없었다.

『그동안의 편지에는 李씨가 이사간다는 얘기가 전혀 없었는데 갑자기 왜 이사를 했을까?』

그 친척은 大邱 龜尾동지에 살고있는 다른 친척들과 연락을 취해 李씨가 이사가지 않았다는걸 확인할 수가 있었다.

李씨가 친척의 편지를 다시 받아보게 된것은 지난 8월중순께.

그 편지속에는 이사갔다해서 되돌려진 3월에 부쳤던 편지까지 들어있었다.

李씨는 美國으로 되돌아갔던 편지를 찬찬히 들여다 보았다.

그 편지는 82년3월9일 LA우체국 발송인이 찍혀있고 「서울국제우체국 1982·3·13 준등기」란 소인이 분명했다.

「주소불명·폐문·수취거절·이사갔음·교부요청없음」으로 구분되어 있는 서울국제우체국에서 찍은 소인에는 「이사갔음」란에 동그라미가 찍혀있다.

보낸 쪽의 LA주소 위엔 LA우체국 이사간 워싱턴의 주소를 확인해서 타이핑한 노란쪽지가 붙어 있었다.

3월에 보낸 편지와 8월에 보낸 편지의 서울주소는 똑같았다. 그런데도 3월의 편지는 이사갔다고 되돌아 갔고 8월에 부친 편지는 배달되었다.

李씨가 이사를 가지않은것은 물론이다. 78년이래 5년째 같은 집에 살고있다. 문제에도 주소 성명이 뚜렷이 밝혀져있다.

『그러면 이사를 가고 안가는것을 집배원 마음대로 한단 말인가…』

李씨는 도무지 영문을 알 수가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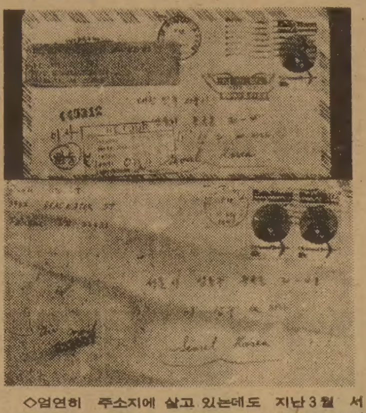
『정작 이사를 간것은 美國쪽인데 그곳에선 이사를 가서 주소가 틀리는데도 우체국에서 친절히 찾아주는데 우리 우체국은 뭐란 말인가. 멀쩡이 살고있는데 이사갔다고 편지를 돌려보내다니…. 그것도 「준등기」란 소인까지 찍어놓고…』

李씨 집에는 각종 우편물 공공요금통지서등 매월20여건의 우편물이 배달되고있다.

그런데 공공단체 동창회등에서 李씨집에 보낸 우편물이 가끔 되돌아 온다는 연락도 있다.

서비스에 최선을 기울여야 할 체신당국은 배달이 잘 안되는 원인을 철저히 규명, 이런일이 다시는 없도록해야겠다고 李씨는 흥분했다.

讀者고발



◇엄연히 주소지에 살고 있는데도 지난3월 서울우체국이 이사갔다고 美國으로 되돌려 보낸 편지❶. 그후 8월에 부친 편지❷는 잘 배달되었다. 두 편지 겉봉에 적힌 서울주소는 분명히 같았다.

金秀英 金秀壯 형제棋士 나란히 本選올라

MBC帝王戰 徐奉洙·白成豪·河燦錫·金寅·洪太善·曺薰鉉도

재치있는 해설과 구수한 입담으로 바둑팬들에 인기를 얻고 있는 金秀英6단과 한국바둑계를 짊어지고 나갈 신예기사군의 선봉장 金秀壯5단, 두 형제 기사가 나란히 MBC 帝王戰 본선토너먼트 8강에 올라 화제를 모으고 있다. 한국바둑계의 유일한 전문기사 형제인 이들은 李奉根6단과 林宣根2단, 鄭昌鉉7단과 金在九7단을 각각 누르고 8강에 진출한 것.

금년 1월부터 매주 한판씩 대국이 진행되고있는 MBC帝王戰 본선 8강에 오른 기사는 이밖에 徐奉洙7단, 白成豪5단, 河燦錫7단, 金寅8단, 洪太善4단, 曺薰鉉9단등이다.

그런데 MBC帝王戰은 그동안 일요일밤11시부터 1시간가량씩 녹화방영되어 많은 바둑팬들의 사랑을 받아왔었으나 최근에는 방송시간이 일요일 새벽6시로 앞당겨져 아침잠이 많은 바둑팬들은 전문기사들이 열전을 벌이는 모습을 보기가 다소 힘들어졌다.

週間바둑話題

趙治勳, 碁聖탈환 실패

○…趙治勳9단이 碁聖타이틀 방어에 실패했다.

제7기 碁聖戰에서 오오다께(大竹英雄) 碁聖에게 도전, 제4국까지 2승2패로 열전을 벌였던 趙9단은 9월1일 벌어진 도전5번기 제5국에서 불계패함으로써 2승3패를 기록, 타이틀획득 일보전에서 물러섰다.

흑을 든 趙9단은 일본기원 특별대국실에서 열린 이날 대국에서 제한시간 9시간중 8시간59분을 소비, 마지막 1분을 남기고 초읽기에 몰려가며 심혈을 기울였지만 기울어진 판세를 만회하지 못하고 2백16수만에 돌을 던지고 말았다.

오오다께9단의 남은 시간은 1시간34분.

이로써 오오다께9단은 80년 趙9단에게서 碁聖타이틀을 빼앗은후 2차례 가진 방어전을 모두 승리로 장식했다.

그런데 趙9단과 오오다께9단은 8일부터 서로 도전자와 방어자의 입장을 바꿔 名人戰도전7번기를 벌이게 되기때문에 많은 바둑팬들은 趙9단의 이번 碁聖戰에서의 패배를 설욕, 4대0 스트레이트로 名人타이틀을 지켜줄것을 기대하고 있다.

26期 國手戰본선 徐能旭 5連勝

○…제26기 國手戰 본선리그에서 徐能旭6단이 단독선두에 나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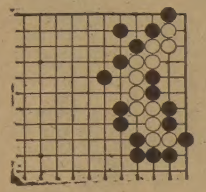
徐6단은 지난8월24일 열린 본선 제15국에서 李相澈4단을 2백52수만에 7집반차로 이겨, 5승무패로 연승가도를 달리고 있다.

한편 이 대국에서 패한 李相澈4단은 3승2패를 기록, 시드잔류에 만족해야 했는데 徐能旭6단의 뒤에는 徐6단과 姜勳4단과의 대국을 남겨놓고있는 徐奉洙7단이 3승1패로 바짝 추격하고 있다.

또 같은 날 열린 제16국에서는 梁相國6단이 洪太善4단을 이겼으나 두 기사 모두 1승4패로 남은 대국에 관계없이 본선시드에서 탈락했다. 【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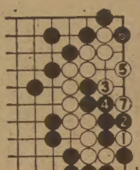
妙手풀이

<문제도> 白先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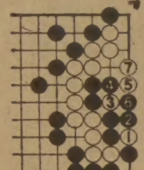


흑이 분명히 밑으로 건너기는 어쩐지 모양이 좋지 않다. 패를 내야 하나.

<해답도>



제1도(정해)=알고보면 간단한 문제다. 먼저 백1로 먹여치고 3으로 끊은 뒤 5로 젖혀 단수하는 것이 맥점. 흑6으로 따내봐야 백7로 늘어두면 흑석이 선수로 떨어지기 때문에 치중할 여유가 없어 백이 살게된다.



제2도(실패)=따라서 백1에 이어 3, 5로 환격을 내고 흑6으로 파호할때 백7로 패를 거는 것은 각이 모자란 수법이다.

한국일보의 광고효과를 말해주는 한국 안내광고란

詩

<귀뚜라미>

울음빛이 고와서
창밑에 쌓아두고
그울음 건드리니
가슴으로 젖어오네
네게도 목숨 있으니
시름도 나같고나

李鏞光(四季문학주간5843)

<그대는 가고>

1. 이손을 놓으면 어디로 가련
한많을 차가운 눈물을 남겨 두고
그대 고운 맨살에 강물이 흘러가듯
그대는 깊은밤 저 먼곳으로 떨어져 가네。
아! 그대는 가고 홀로 남은 나의 얼굴이여,
달빛이 저려오는 이별의 아픔이여。

2. 이 손을 놓으면 어디로 가련
눈물속에 빛나던 별빛을 남겨두고,
그대 착한 가슴에 눈물이 피픗
그대는 내가슴 깊은 곳에 슬픔을 담았네。
아! 그대는 가고 홀로 남은 나의 얼굴이여,
별빛에 걸려 있는 사랑의 곡예사여。

李鏞光(서울강남구대치동272의 2)

<극장관객 수준>

1회 상영…한심한 실업자.
2회…유한마담.
3회…불량학생.
4~5회…연인이나 부부.
심야…여관족.

서정남(마천동)

<가을이 오는 소리②>

"지진날 줄 알았더니…"

<김용화>

<공처가가 결혼 기념일에 마누라한테 줄 선물>

손톱깎기

갈노원(土月文友會)

<새로 나올만한 상품>

개고기 통조림

이작재(전국낙서회·동대문구상봉2동84의38)

<1982년 9월19일 하오1시>

「아!××씨!」「반갑습니다」「오랜만이군요」「오!××씨도…」「이렇게 만나봐서…」그리고 악수!또 악수…

—전국낙서회원들의 낙서대회 예상스케치—

원정연(한국낙서회으로 상경할거요)

讀者페이지 ■投稿환영

지금 웃는중 落書

<가을 편지>

「알리는 말씀」의 철회장.

—30살 넘은 노처녀—

<봉급 2·3일 전후>

마누라 바가지를 중단시켜 주는 불법영향권.

쑥나비(土月文友會)

<도둑이 출근하면서 아내에게 하는 말>

여보! 문단속 잘해.

鄭某(土月文友會)

<찬바람이 부니…>

이리도 펄쩍고 녹대도 펄쩍고 도둑놈도 갈도도 한다.

닭피

★<진짜 알찬 피서>

피서지에서 발생하고 있는 처녀.

한송이(土月文友會)

<일본에서 철판값이 올랐다?>

그들은 최근 모두가 얼굴에 철판을 깔고 있기 때문이다.

거창신원 농태꾼

<부곡온천 풍경>

독탕·대중탕·원탕·본탕…그 옆에 꿀탕·갈비탕.

별새와 어린왕대

<이 밥통아!>

소화 좀 잘 시켜라

—위장병환자—

맹감 盒浪來

<시집가는 친구를 위한 선물>

폐품시계

김용한(전국낙서회·창원군…)

◇알 림

☆이번주의 최우수작은 <진짜 알찬 피서>입니다。

水原의 한송이씨! 축하합니다。

이번주의 상품도 각종 등산장비전문메이커인 한라스포츠(☎0925)가 제공하는 고급 코헤르입니다。

☆낙서대회에서 자유제에 대한 시상비중은 극히 미미합니다。투고를 주저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久>

季刊畫報 창간18주년 4회 전국落書人대회 기념품 교환권 (작품 제출자로 1人 한 장에 한함)

구독신청 533-2361

거만한 인삿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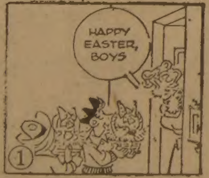
프랑스의 철학자 에르네스트·르낭이 아직까지 자신의 작품을 한번도 읽어본적이 없다는 얘기를 친구에게서 전해들은 조라는 브뤼라라는 친지를 통해 그의 작품「무레신부의 죄」를 르낭에게 증정했다. 이 책을 받아든 르낭 왈 『음, 신경통의 발작이라도 일어나면 그때나 읽어보지.』

얘기의 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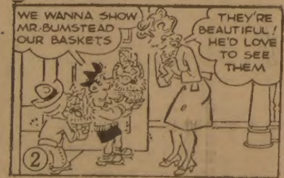
상대적 美談

1929년 3월14일 아인슈타인은 50세의 생일을 베를린에서 맞았다. 그는 온갖 생일선물을 받았는데 그중엔 실업자(失業者)가 보내온 것도 있었다. 선물이란 파이프담배 약간이었는데 「이것은 상대적으로 극히 작은 것이긴 하지만 그래도 진짜 본고장 것입니다」라고 쓴 쪽지가 들어있었다.

本社특약 블론디 딘·영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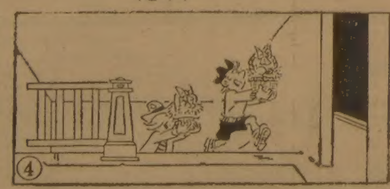


"부활절에 복 많이 받아라, 얘들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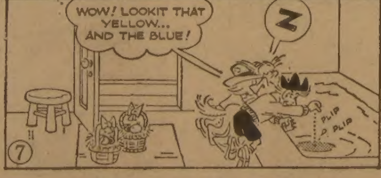
"범스테드 아저씨에게 이 바구니를 보여드리고 싶어요"
"예쁘기도 하구나! 아저씨가 좋아할거야"

"아저씨는 2층에서 목욕중이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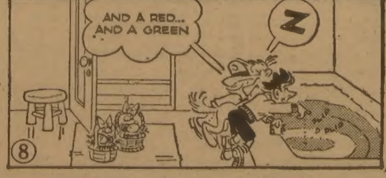


"아저씨를 깨울까?"
"안돼"
—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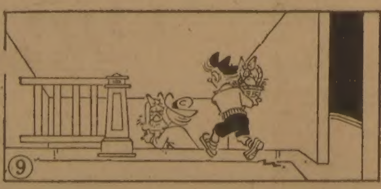
"부활절 장식 달걀에 염색할 물감 남은 걸 좀 줘봐"
—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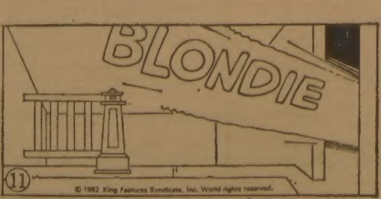
"야! 이 노란색을 좀 보라구… 그리고 이 파란색도!"
—쿨—



"빨간색과…초록색도"
—쿨—



"네가 뭘했는지를 잘 알지, 안그래?"
"그럼, 대충은 알지"



© 1982 King Features Syndicate, Inc. World rights reserved.

—여보—

"아니, 도대체 이게 모두 어떻게 된거야?!"

移民과 여행자를 위한 생활英語

담당 민병철
【美 시카고 영어연구원장】

THE SAME TO YOU.

금요일 오후가 되면 미국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다。 Have a nice weekend. (즐거운 주말이 되시기 바랍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간의 지겨운 일을 끝내고 토·일 이틀동안의 주말을 즐겁게 보내라는 말이다。

이 말을 들은 사람은 역시 거의 공식적으로 Thank you. The same to you. 혹은 Thank you. You too 라고 하게 된다。다같이 「고맙습니다。 당신도 즐거운 주말을 맞으시기 바랍니다」 라는 뜻이다。

두 사람 다 시험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Good luck on your test tomorrow.(내일 시험 잘 치르기 바란다) 라고 한다면, And the same to you.이렇게 할 수 있으며, 역시 두 사람이 다 휴가를 받게 되는 경우 한 사람이 Have a nice vacation. (휴가를 멋있게 보내십시오)라고 했을 때, 대답으로 Thank you. You too.하면 된다。

X-mas때 상대방이 Merry Christmas／라고 하면 이쪽에서도 같이 Merry Christmas／ 혹은 Thank you. The same to you. 하면 될 것이고, 신년이 돌아와서 Happy New Year.라고 하면 같이 Happy New Year. 혹은 Happy New Year to you, too.이같이 하면 된다。

A : I'm exhausted.
B : How come?
A : I typed thirty letters today. I'm going to go home and sleep.
B : Yeah, I'm tired, too.
A : Well, have a nice weekend.
B : O.K, the same to you.
A : 녹초가 되었는데。
B : 왜 그래?
A : 오늘 편지를 30통이나 타이프 했지。집에 가서 자야겠어。
B : 그래, 나도 역시 피곤한 걸。
A : 주말을 즐겁게 보내기 바라네。
B : 자네도 역시。

※exhausted : 기운이 빠진.
How came? : 왜。why와 같은 뜻이며, 구어체이다。

IS THIS SEAT TAKEN?

이 자리가 비었읍니까?(이 자리가 찼읍니까?)를 영어로 무엇이라 고할까。

이때는 Is this seat taken? 이라고하면 될것이다。이때 발음에 유의하여야할것은 this seat이다。「더 쓰씨트」가 아니고 두개의 S발음이 연음이 됐기때문에「디씨잇」하면 된다。역시「씨트 테이큰」이 아니라같은 T가 두개있으니「씨잇 테이큰」, 결국「이스 디씨잇 테이큰?」하면 된다。

A : Excuse me. Is this seat taken?
B : No, it isn't.
A : Would you mind moving over one seat so my wife and I can sit together?
B : No, not at all.
A : Thank you.
B : You're welcome.
A : 실례합니다。이 자리가 비어있읍니까?(자리가 찼읍니까?)
B : 아니요,비어있읍니다。
A : 저와 처가 같이 앉을수 있도록 자리한칸만 옮겨주시겠읍니까?
B : 네,그러지요。
A : 감사합니다。
B : 천만의 말씀입니다。

※taken : (용적, 넓이를) 차지하는 것。mind : ~에 반대하다。싫어하다。not at all : 조금도~하지않다。

구입처 :
B. C. MIN
7037 BECKWITH
MORTON GROVE,
ILL. 60053
U. S. A.
전화 : (312) 966-4050
책 : 제1권(12불), 제2권(12불), 제3권(12불)

連載 소설

스물세살의 자서전

人間市場

金洪信 作
崔然石 畵

91

지난줄거리

춘찬이가 찾아간 세계문화협의회란 곳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상장을 팔아먹는 예술사기단체였다。박부장을 다달하여 증거서류는 찾아냈다。박창수회장이 쫓아와 타협하려고 했지만 춘찬은 폭언과 민족을 배반한 내력을 다그쳤다。마지막에 박창수는 재산을 대학의 장학기금으로 내놓고 협회를 해체했다。자진해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늙은이가 있다는게 가슴 후련한 일이었다。

산에서 내려온 뒤로 계속 아침 운동과 새벽의 참선을 하지 않아선지 몸이 찌푸둥한 것 같았다。은주 누나가 새벽마다 약수터를 다니며 같이 다니자고 깨웠지만 긴장이 풀려선지 새벽참에 일어나기가 어려웠다。

『다혜한테 전화왔다。급한 일이란다。』

은주 누나가 방문을 두드리며 이렇게 말했다。나는 벌떡 일어나 방문을 열었다。

『빨리 받아라。』

나는 전화가 있는 쪽으로 가다말고 은주 누나에게 눈을 흘겼다。

『누나, 정말 이럴 거야?』

『다 네 몸생각해서 그러는 거다。이왕 일어났으니 약수터나 가자。』

은주 누나가 물통을 내밀었다。

『내가 포터구만。』

『너 땜에 약수터 다녔는데…너는 운동도 않고….』

『가만있어, 옷 좀 바꿔 입고。』

『너한텐 그저 다혜가 약이구나。아무리 좋라도 외눈 하나 깜짝 않더니 다혜한테 전화왔다니까 벌떡 일어나는 걸 보니。암튼 좋을 때다。』

나는 웃기만 했다。다혜가 외갓집에 원고정리하러 내려가 있기 때문에 급한 전화가 올리 없었다。좋라도 꼼짝 않으니까 그런 식으로 나를 깨운 것이었다。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누나를 따라 나섰다。약수터 올라가는 산길은 꽃섶이 우거져 있었다。내가 산으로 들어가기 전만 해도 한뼘씩밖에 자라지 않았던 풀섶이 한길씩 자라 있었다。동네 할아버지와 할머니들이 깎아 만든 운동장엔 배드민턴 채와 샤틀코크를 든 사람들이 많았다。샤틀코크가 포물선을 그을 때마다 노인들은 박수를 치거나 소리를 질렀다。

약수를 떠가지고 내려오는 사람들도 운동장 옆에서 체조를 하거나, 철봉에 매달려 운동을 하고 있었다。

『평소 육체노동을 않는 사람들이라서 저 고생이겠지。』

은주 누나가 이렇게 말했다。그 말은 틀린 말이 아니었다。사람들은 동물이란 사실을 잊고 사는 것 같았다。동물들은 운동이란 말이 필요치 않다。생존하기 위해 뛰어다니는 그것만으로 생태학적인 생존을 쟁취할 수 있는 것이다。

운동이란 결국 동물적으로 돌아가자는 몸부림인 것이다。

『누나, 운동하고 노동하고 어떻게 다른지 알아?』

『비슷비슷하지 뭐。』

누나는 아침마다 운동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우며 중노동인지 잘 알고 있었다。건강한 생명체를 유지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는 여자였다。

『몸놀리는 건 비슷할지 모르지만 노동은 먹고 사느라고 움직이는 거고 운동이란 건강과 연결된 몸놀림야。프로야구 선수같은 사람들은 운동이 아니라 노동자지。야구노동자。』

『대충 맞는 얘기같다。』

누나는 약수터가 내려다 보이는 능선 위에 올라서서 가벼운 체조를 시작했다。아직도 은주 누나의 몸매는 유연해 보였다。군살이 약간씩 붙어 있는 게 보였지만 비교적 균형잡힌 몸매였다。

『누나도 에어로빅 댄스나 하러 다녀지 그래?』

『난 궁상맞아서 못다니겠드라。우리 동네 아줌마들 안다니는 사람이 없어。두어번 쫓아갔다가 돌아왔다。』

『아프리카 흑인들이 그런 춤 추면 몸에 아무리 좋다고 해도 안 배울 거야。허물 벗겨진 애들이 추어대니까 이게 웬 떡이냐 하고 달겨드는 거지。』

『그게 결국은 흑인들 춤 아니니?』

『두가 아니래。탈색인종애들이 배워다가 율악 잘고 폼 잡으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족을 못쓰는 거지。』

몸 좋게 하기 위해 그런 춤 배우는 것까지야 탓해서는 안되고 탓할 수도 없이 좋은 일이지만 탈색인종이 지지고 볶는 거라면 무엇이든지 받아먹는 그 습성은 한번쯤 짚고 넘어갈 문제인것 같았다。

내가 운동하는 걸 지켜보던 은주 누나가 고개를 갸웃거렸다。

『너도 스님한테 가서 춤 배웠니?』

내 몸놀림은 휴사 춤 같은 것이었다。격렬한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가장 부드러운 새의 깃털처럼 보드랍게 움직이는 것이었다。

어떻게 거둬줄 생각들은 않고 고아원에나 보내라니

『그렇게 했어。』

누나가 몇번인가 내 움직임을 따라하더니 고개를 저었다。

『힘들어서 못하겠다。』

『이렇게 보드랍게 움직이니까 쉬운줄 알았지? 빠르고 힘찬걸 누가 못하겠어。느리고 보드랍고 가볍게 움직이는게 더 어려운거야。아무 것도 없는 허공을 날아다니는 식이니까。』

『그런 운동 오래하면 날아다니겠다。』

『그렇지。』

직접 따라서 해본 누나가 내가 하는 운동이 보통운동과 전혀 다르다는 걸 눈치 챈 것 같았다。

운동을 끝내고 계곡 아래쪽으로 내려갔다。산동성이에 천막친 곳이 보였다。

『무슨 일야?』

내가 천막을 가리키며 물었다。

『사람 사는데지 뭐겠니?』

『저기서?』

『그래。두어달 됐다。』

『두가 사는 전데?』

『집을 빼앗겼다나보드라。애들은 많고 남편은 병들어 눕고…애들이나 적어야 우리집으로 오라고 하지。』

누나는 안스럽다는 듯이 천막쪽을 바라다 보았다。

『애들이 몇인데?』

『자그마치 다섯이나 되니….』

『밥먹고 애만 낳았나부지?』

『며느리는 도망가고 아들은 애들만 떠질러놓고 죽었댄다。할머니가 그 애들을 키워야지 별 수 있었겠니。』

『집도 없었나?』

『쫓겨났대。』

『쌀 좀 갖다주지 그랬어?』

『빈독에 물붓기야。두가마나 보냈는데도 표도 안나。』

『동네 사람들은?』

『저 살기도 바쁜데 도와주겠니? 몇사람이 얼러서 보내주긴 하지만 언제까지 그럴 수도 없잖니?』

『무슨 일이 있었나?』

『억울하다는데, 믿어지질 않아。우리들만 보면 울면서 그 얘길 하는데…실성한 늙은이 같기도하고, 진짜로 억울한 것 같기도 하고… 횡설수설 하니까 모르겠어。』

천막도 군데군데 이음새가 찢어졌다。편편한 자리에 기둥을 박고 사방에 있는 나무로 기둥을 삼아 좋을 땐 천막이었다。조그맣게 마당을 꾸며놓고 그 위에 세수대와 비누갑, 자잘한 단지와 사과궤짝을 늘어놓았다。신발 벗어놓는 돌멩이 위엔 때 전 운동화와 슬리퍼들이 아무렇게나 흩어져 있었다。애들도 나이가 어린것 같았다。

『애들은 몇 살씩이나 먹었어?』

『말도 마라。돌 지난 애부터 국민학교 다니는 애까지 줄줄이다。애들은 예쁘장하긴 한데…사람들이 고아원에 갖다 주라고 했다가 욕만 먹었어。』

『사람들, 무슨 말을 못해서 고아원야? 어떻게 거둬줄 생각들은 않고。』

『거둬 줘? 내쫓지나 않으면 다행이다。약수터 다니는 사람들하고 저 아래 동네 사람들이 구청에다 진정서 내가지고 서너번씩 옮겨다녔단다。눈에 안 뜨이게 계곡으로 내려간 거야。』

『뭐라고 진정서 냈는데?』

『산림법 위반이겠지 뭐。저 아래 동네 반장이 돕자고 나섰다가 혼구멍만 났대드라。』

나는 천막을 한바퀴 돌아봤다。이런 곳에서 살 수 있는 것이 용하다는 생각이 들었다。얼마나 오래 이 천막에서 버티어 나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찬바람이 돌면 지탱하기 어려울 것 같았다。여름철이라 견딜수 있었겠지만 요즘도 밤바람은 좋지않았다。

『애들은 어때?』

『이런데 사는 애들 같지 않아。밝고 명랑해。할머니하곤 딴판야。할머니는 늘 죽을 상이지。애들이 모기 물려서 엉망진창인데도 낮이면 약수터 와서 노느라고 정신없어。그러니까 애들이겠지만。』

『구청에선 뭐래?』

『자진철거 않으면 태워버린대나봐。』

『빌어먹을….』

우리는 약수를 떠가지고 내려왔다。은주 누나는 흰봉투를 천막 구멍 속으로 살짝 집어넣고 돌아나왔다。

『고마와 누나。』

『저 사람들 방이나 하나 얻어줬으면 싶다만… 얻어줘도 못살 거야。애들이 많으니 누가 좋다고 하겠니? 집만 얻어주면 뭐하니。저렇게 사니까 사람들이 가끔 도와나 주지。셋방살이 해봤자 살 힘들 못얻을텐데….』

우리는 아무 말없이 집으로 돌아왔다。밥은 먹으면서도 영 마음이 개운치 않았다。

할머니, 얘기 좀… 무슨 사정인지 알아야 도와드리죠

모아두었던 돈을 봉투에 넣어가지고 산으로 올라갔다。

천막의 마당엔 꼬마들이 둘러앉아 밥을 퍼먹고 있었다。할머니는 나를 보자 돌아 앉았다。

『식사하세요, 할머니。』

『불 지르려고 왔수?』

매몰차고 독기 서린 목소리였다。

『아녜요, 할머니。』

나는 괴 지은 사람처럼 말했다。

『질러보려면 어디 질러봐!』

음울한 목소리가 깨지고 있었다。밥먹던 꼬마가 소리높여 울었다。제일 큰 계집애가 꼬마를 얼른 안았다。할머니는 알아들을 수 없게 중얼거리고 있었다。악이 바쳤는지 플레스틱 바가지에 담긴 물을 벌컥벌컥 마셨다。얼굴 전체에 독기가 서려 있었다。적절한 한이 서린 듯 깐깐한 체구가 모질어 보였다。구청직원들이 철거하러 왔다가 할머니의 그 얼굴을 상대하지 못한 채 돌아 갔을 거란 생각이 들었다。

『구청에서 온 게 아니라 저 아래 동네에서 왔어요。도와드리려고요。』

나는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다。이렇게 강조하지 않으면 말을 꺼내지도 전에 소리만 지를것 같았다。

꼬마들도 매서운 눈초리로 나를 노려보고 있었다。

『왜 도와주려고 해?』

마찬가지 매몰찬 음성이었다。

『이거 받으세요。』

나는 얼른 흰 봉투를 내밀었다。할머니가 엉거주춤 받았다。그리고 봉투를 주욱 찢어 돈을 세었다。입가에 자잘한 미소가 감돌기 시작했다。꼬마들도 그제서야 다시 밥을 퍼먹었다。

『앉구랴。』

미안한 표정으로 자리를 자리켰다。나는 엉덩이를 밥상 옆으로 디밀고 앉아 상을 훑어보았다。꼬마들이 퍼먹기에는 맛없는 것들이었다。

『할머니, 저랑 얘기좀 하실래요? 무슨 사정인지 알아야 도와드리죠。』

『말하면 뭐 하겠수。세상이 그런걸。』

많이 부드러워진 목소리였다。나는 바싹 다가앉았다。꼬마들이 할머니가 내려놓은 돈 있는 곳으로 손을 뻬밀었다。

『이년들이!』

할머니가 맵게 등짝을 때렸다。꼬마들이 껄끔 물러서자 할머니는 돈을 괴춤에 찔러 넣었다。

밥을 다 먹고 설겆이를 할 때까지 할머니는 신세타령만 늘어놓았지 억울한 사연을 털어놓지 않았다。

『할머니, 얘길 좀 자세히 해보세요。제가 도와드릴께요。』

『흥!』

어디가 걸리는지 몸을 부르르 떨며 더 꽁초를 입에 물었다。

『귀신이 곡할 일이라우。세상이 망할라나 보우。내 말 안믿겠지만….』

『저는 믿어요。』

『쳐죽여도 서원쳐 않을 년。그년을 아득아득 씹어먹어도 내 속이 안풀릴 거유。』

『그러시면 쓰나요。』

나는 도망간 며느리 얘기인줄 알고 이렇게 말을 받았다。

『이 자식들 에미야 잘 도망갔지。예서 살아봐야 좋을만 할테니까 말이우。어디 가서 서방 꺼구 잘 살겠지。독한 년이긴 하지만。』

한숨 섞인 목소리가 그렁그렁했다。꼬마들이 천막 안에서 후다거리고 울었지만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럼 누구 말씀예요?』

『내 구렁이 심줄같은 돈 떼어먹은 년 말이지 누구겠수? 그년, 벼락 맞아 꽤질 거구만。꼬박 6년간이나 새마을사업 쫓아댕겨서 번 돈 몽땅 떼어먹은 년인데두 하나님이 벼락을 안때리고 여태 살아있수。』

할머니는 어디가 아픈지 얼굴을 찡그렸다。

『자세하게 말씀 좀 해주세요。제가 찾아드릴테니까요。』

『그년을 당해?나같은 년두 두손 바짝 들었수。』

『할머니가 무슨 힘이 있어요。젊은 사람이 나서는게 좋잖아요?』

『안돼。그년은 안돼。그런 독한년이 세상에 또 있을까。』

할머니는 갑자기 땅바닥을 치며 통곡했다。나는 당황해서 사방을 둘러보았다。아무도 없었지만 괜히 찾아왔다 싶었다。천막안에 있는 꼬마들이 얼굴을 내밀고 서성거렸다。할머니의 그런 통곡소리를 예사로 듣는 걸 보면 이 할머니의 통곡은 늘상 벌어지는 일 같았다。

한참만에 할머니는 눈물을 닦고 돌아 앉아 내 손을 잡았다。

『미안하우。늙은이가 망령 든 모양이우。이젠 속이 좀 풀렸나보우。어떻게 울고라도 살아야지。』

『울고 나면 속이 시원하세요?』

『그렇수。』

『그럼 더 우세요。』

『나올 눈물도 이젠 없수。』

울고라도 살아야 겠다는 할머니의 절절한 한이 무엇인지를 듣고 싶었다。할머니는 내가 준 돈을 다시 꺼내 양말 속에 챙겨 넣었다。

『얘길 좀 해보세요?』

『그년, 생각만해도 잡아마시고 싶은데…펀펀 살아서 잘 처먹기만 하디…글쎄 내 얘기 좀 들어보우。』

『하세요。』

『그 썩어 죽어도 시원찮을 년, 글쎄 이렇게 답답한 년도 살아있다우。새마을 사업하는데 6년이나 쫓아댕기고 안해본 것이 없이 살아온 년이 못먹고 못써서 때 끔아가며 번 돈을 한 아가리에 다 쑤셔넣었다우。아마 젊은이 같아선 복창 터져 죽었을 거유。』

할머니의 얘기를 들으면서 나는 몸을 부르르 떨었다。여자애서 꿈꿔도 않던 나였는데 할머니 얘길 들으며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

가슴이 찡하게 아팠다。

아들이 죽자 며느리가 퍼질러놓은 애들을 내버리고 도망갔다。할머니는 새마을사업장과 시장바닥과 남의집 일거리를 찾아다니며 번 돈 백만원으로 방 한칸을 얻어 애들과 살림살이를 꾸려나갔다。

『그런 집이 오죽했겠수。다 쓰러져가는 집인데 펌프물 먹고 살았지。펌프물에서 석유기름 냄새가 펄펄 났지만 그래도 살아볼 거라고 나머지 백만원을 건너 동네 빨래하러 다니던 임사장집에 줬잖겠수?』

할머니는 백만원을 월 4푼이자 놓거로 하고 임사장 예편네에게 줬다。빨래하러 갔다가 돈 급하다는 소리를 듣고 욕심이 나서 건네줬다는 것이었다。

『몇달 동안은 4만원씩 꼬박꼬박 잘 줬지。그런데 어느날 가보니까 이사가고 없어졌잖우。』

통곡하던 할머니 목소리가 아니었다。차분하게 가라앉은 목소리였다。

아마 이사람 저사람에게 하소연하다가 신세를 설명하는 것도 조리있게 다듬어진 것 같았다。

열흘 동안이나 헤매다니다가 겨우 임사장 예편네를 강남의 어떤 아파트에서 만난 할머니는 울면서 내 돈 내놓으라고 떼를 썼다。당장 돈이 없고 떼어먹을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에서 차용증서 한장을 받고 돌아왔다。

『번드르하게 사는 사장집이라 믿었수。찍으라는 손도장까지 찍어가지고 온 차용증서도 있겠다, 이자도 두달치나 미리 받았으니 의심이나 했겠수。』

할머니는 또 내 손을 꼬옥 움켜잡았다。

『그런데….』

할머니는 말을 잇지 못하고 쭈르르 눈물을 흘렸다。

몇달동안 이자 받는 재미로 살던 할머니가 어느날 임사장네 아파트를 찾아갔다。임사장네는 또 이사가고 없었다。

『악을 쓰고 찾았다우。더좋은 아파트로 이사를 갔다는 것만 알았지。』

또 며칠을 찾아 헤매어서 임사장 예편네를 만났지만 할머니는 까무라치고 말았다。

『이럴수가 있는 일이우。환장할일이지。못배우고 없는 년은 혀 깨물고 죽어야지。』

할머니는 비닐봉지로 싼 차용증서를 속주머니에서 꺼내 놓았다。

『내가 국문을 모르는 까막눈이라고 이렇게 할수 있겠수。벼락이 무섭지두 않은지。』

그 차용증서는 임사장 예편네한테 할머니가 돈을 얻어 쓴 것으로 되어 있었다。결국 귀찮으니까 차용증서를 거꾸로 써준 것이었다。

『그래서요?』

나는 갑자기 열을 받았다。

『전셋돈 백만원 빼주고 이리로 쫓겨났지 별수 있었겠수。』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다음호에 계속>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頂上의 신문 한국일보

KIM'S ART GALLERY Picture Frame Warehouse
◉각종 유화·서양화
◉사진액자 전문으로 취급
◉동양화·초상화
1286 Weston Rd.
(에그링톤×웨스톤)
(B)243-0233 (R)651-2261 김 석환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트로피·감사패 전문
Golden Craft
◉특수인쇄(Silk Screen Printing)
◉ Engraving
◉간판 취급
(나무·유리·의류·프라스틱등 특수인쇄 전문)
1700 Wilson Ave.
(B)247-8870 (R)242-4319 김 국일

소독

ZAP SUREKILLER 전화: 368-9018, 366-0960
바퀴벌레 개미등 각종벌레 100% 효과
한국식품점 또는 온타리오 전역 공급, 주문배수

시설및수리

"집수리·신건축·목수일" 합니다.
빈가게및 건물 주로 변경, 지하실 전문, 진열장 카운터 제작, 스틸 쉴링, 페인팅, 타일, 세멘트일등, 설계, 실내장식, 신축, 상담, 허가 시공.
언제라도 전화 상담 환영.
전화 : 669-5784 (Mr. 심)

"Kim's Installation & Repair"
설계및 실내장식, 전물구조변경, 지하실 꾸밈,
Paint, 각종유리 일체를 취급, 상·하수도 욕탕 각종타일
시멘트공사, 전기시설및 수리(전기제품 포함)
전화 : 425-8585, 535-4441(R) Mr. Kim

KIM ELECTRIC LTD.
MET. LIC. E1018 전기시설 · 보수 · 경보장치 설치
FIRE ALARM 전화: 438-3795 김 영 호

KIMBO ELECTRIC CO.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 · 보수 · 가게신설 · 용량증설등 전기일 일절
전화: (B) 245-5544 (PAGING) 2790, (R) 255-2161 김 부 원

목수일 합니다.
◉제네랄·콘트랙터 면허취득 ◉각종건축수리및 신축상담
전화 : 249-0003 Mr. 최

광고료 · 구독료를 치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VISA master charge

식당

CHOI'S RESTAURANT
메뉴: 조밥, 튀김덮밥, 모밀국수, 갈비, 불고기, 덴뿌라, 스끼야끼, 기타 ◉일요일 휴업
시간: 주중:낮12-밤12시까지, 목금: 낮12-밤1시까지
토: 낮4시30분-밤11시반
주소: 2432 Eglinton Av. E. Scarboro (at Kennedy)
전화: 759-8512 최 영 호

아 리 랑 식 당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영업시간 : 월~일요일까지=낮12시~새벽1시까지
716 BLOOR ST. W. TORONTO 전화: 532-2727

오리엔탈팔레스·뉴서울식당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6

코 리 아 하 우 스
666 BLOOR ST. W.
전화: 536-8666

거 구 장
5 BETHRIDGE RD. 전화: 742-1618

한 국 관 628 BLOOR ST. W. 전화: 536-0290, 531-0277
냉면, 곰탕, 갈비및 중화요리 전문,
OPEN 11 : 00AM~1 : 00AM 대소연 200석 완비

서 울 하 우 스
615 BLOOR ST. W.
전화: 532-0602

Rose Garden (중국집) 각종 파티, 회의실 마련
일류요리사, 홍콩식 중국요리 취급
전화 : 656-0456, 654-6609 유 창균

호 심 (Korean & Japanese Restaurant)
1st Canadian Place Concourse Level in the Food Market
100 King St. at Bay(P.O.Box 329) Tel: 368-0686

클링톤하우스 각종모임(동창회·계등)을 위한 조용한 분위기 별실마련. 간단한 중국요리도 취급(저렴한 가격 봉사) 전화: 535-9541
693 Bloor St. W

광고문의 ☎ : 533-2361

식품점

삼복식품. (주7일 영업)
금요일 밤12시까지, 일요일 오후4시~오후10시까지
제일좋은 물건만을 골라, 제일 싼값으로 책임있게 봉사합니다. 여름철 야외 바베큐는 맛있고, 살많은 삼복갈비를 이용하세요. 시내어디든지 무료 배달합니다.
2437 Finch Ave. W. Weston, 전화: 743-8270

한 밭 식 품
◉ 미시사가지역 교민들께 편리.
◉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 일요일은 오후 4시~8시까지 OPEN
466 SOUTH SERVICE RD. MISSI.
전화: 274-5401

제 일 식 품(구 단풍식품)
7 Days Open(오전10시~오후10시까지)
배달합니다
뒤에 파킹 LOT 마련.
전화: 532-1054 (아리랑식당 옆)
712 Bloor St. W. 김 덕기

시 울 식 품 (동부)
• 친절한 써비스, • 저렴한 가격
367 PITFIELD RD.
전화: 291-8317

서울식품 (서부)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김치전문(도매가격)
1391 Weston Rd. 전화 : 243-9544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실내장식

"Fine Design"
설계및 허가, 시공
전화 : 622-5328 (공장) 676-1173 조 덕 남

악기점

피아노 수리·조율·재생·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전화 : 636-1430(R), 665-8233(B)
주소 : 855 ALNESS ST. UNIT 13 이 상 철

와그너 피아노
(B) 445-1516, 449-8644
(R) 286-1548, 박 성희

양장점

샘 터 의 상 실
숙녀복 · 파티드레스 · 웨딩드레스 · 단체주문환영
606 Bloor St. W. 전화 : 535-4441 디자이너 MR. 김

MIRAGE BOUTIQUE(구 코스모스숙녀복집)
각종 고급 숙녀복 취급. 704 Bloor St.W. 전화 : 530-1870
오전 11시~6시30분 금요일은 오후 8시30분까지

의류수선

양장 맞춤·주문배수(수리는 남녀양복 모두 취급)
여성복 Design 변경 또는 재단만 원하셔도 해드림
100 Glenshields Ave. 전화 : 669-5784 Mrs. Kim

귀하의 기업을 불황을 모르는 사업체로 키우고 싶지 않으십니까?

액자

PICTURE FRAME WAREHOUSE(각종액자)
32A REXDALE BLVD. REXDALE
전화 : 746-2120 조 혜 숙 조 성 호

에어콘 히팅 냉장고

PALMER'S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시설 · 판매 · 수리
전화 : 532-2880, 2889(B) 493-9945(R) 김 봉 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 · 판매 · 수리
정확한 진단 ·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 24 HOUR SERVICE -
전화 : 366-5655, 531-5440 이 황 영

CENTURY
(냉동기 시설및 수리)
전화 : 221-5441 Mr. Lee

KIM 냉장고 · 에어콘
시설 · 수리 · 판매
전화 : 749-3178 김 진 환

여행사

신 세 계 여 행 사
712 BLOOR ST. W.
전화 : 536-2155 김 창 범

서 울 여 행 사
631A BLOOR ST. W.
전화 : 535-6004,
: 535-8801 최 동 주

제 일 여 행 사
649A BLOOR ST. W.
(김종조 종합보험 옆)
전화 : 535-2377 유 지 원, 신 용 목

북 미 여 행 사
376 QUEEN ST. E.
전화 : 368-9018,
: 366-0960(B) 임 태 호

광 고 접 수 533~2361

운전학교

아스트바운전학교
761 JANE ST.
전화 741-6099(B) 743-3377 Mr. Eastman

이삿짐운송

나 미 운 수
각종 운반및 이사짐, 피아노, 쿨러
전화 : 630-6602

운동구점

브랜든운동구점 (종합운동구점)
각종단체 유니폼및 트로피, 골프, 스키장비
일체 취급
337 BLOOR ST. W. 전화 : 598-3732 이건영

MUNAMI TROPHY & SPORT
각종단체 유니폼, 트로피, 기념타올, 각종골프채등 취급
880 Ellesmere Rd. Scarboro. 전화 : 298-3584 이기훈

인벤토리

INVENTORY — 인벤토리 —
1) STORE 인수, 인계 INVENTORY
2) STORE 정기조사 INVENTORY
3) STORE 납세대비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전화: 259-5822,255-8301(B) 252-2963(R) Mr. 오

INVENTORY — 인벤토리 —
주야불문 (공휴일 무관)
전화 : 532-7741(B), 536-6250(R) 호 세 환

인쇄

비둘기사진식자인쇄소
87 Apache Trail Willowdale, Ont.
전화 : 493-8894 윤 종 대

칠성인쇄소, 칠성광고 대표 : 이 인 용
1559A Eglinton W. TOR. ONT. M6E 2G9
전화 : (B) 789-7351, 789-7352

스피디인쇄소
619 BLOOR ST. W.
전화 : 535-3520 곽 호 중

자동차수리

MASTER AUTO BODY
사고차량 24시간 토잉, 사고시 보험관계 처리
수리중 차대여, 페인팅 (Oven Bake Finish)
교포특별대우. 95 Portland St. Etobicoke.
전화 : 255-2111(B), 828-5001(R) 전 기 덕

ANCHO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무료견적 ▲두꺼운 페인팅
▲토잉 써비스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전화: (B) 862-1433 (R) 493-8792 송 창 섭

ALLEN AUTO SERVICE
▲GENERAL AUTO SERVICE ▲TUNE-UP
▲BRAKE JOB ▲TIRE ▲TOWING SERVICE
▲ENGINE OVERHAUL ▲ELECTRIC PROBLEM
▲AUTOMATIC TRANSMISSION ▲OIL CHANGE
주소: 521 KEELE ST. TOR. 전화: 762-3247 정 용 태

O. K. AUTO BODY
자동차 사고 전문
138 SIXTEENTH ST. (New Toronto,)
전화: (B) 251-9889, (R) 242-4551 김 희 삼

자동차 출장수리 (오전및 주말)
INTERPROVINCIAL LICENCE MECHANIC
전화: 749-9749 Mr. 박

CENTRAL AUTO SERVICE 길 창 세
▲Tune up ▲Safty Inspection Certify ▲Professional Brake Service.
481 Dupont St. 532-3946

ROGERS GARAGE (자동차 수리일체)
20 Rogers Rd. 변 달 원
전화: 651-9324(B), 226-5430(R)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46 MUNSTER AVE.(BLOOR & 키플링)
전화 : B) 231-6951, R) 742-5406 오 세 호

CITY WIDE RADIATOR SERVICE 김 용 환
라지에타 - 개스탱크·히터·워터펌프 수리
전화 : 245-1978(B), 248-6032(R)

FIRST AUTO SERVICE
1521 QUEEN ST. W. 최 이 락, 김 한 호
전화: (B) 532-0200, (R)537-5830

Lisbon Auto Collision Inc.
★24시간 토잉써비스
★무료견적 ★수리중차 대여
★완전한 차체수리 ★교포특별대우
★Rust Proofing.
전화 : 533-8507, 533-8508 이 영두·이건하

장의사

장의사(R.S.Kane Funeral Directors)
모든 장의관계 일체 취급
4812 Yonge St.E.(세파드써브웨이) 전화: 221-1159

카펫·카텐

싸다고 소문난 가나안 카텐·카페트·브라인드
2338 LAKESHORE BLVD. W. WINDOW SHADE
전화 : (B)252-4857 (R)252-6602 유 원 덕

카페트 크리닝: 카페트·소파·체어·자동차시트
최신 스팀 샴푸 크리닝
전화 : 439-6277 Mr. 박

태권도

손명수 태권 · 합기도장 사범 : 손명수
2188 BLOOR ST. W. (At Runnymede 써브웨이)
전화 : 763-1155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완인태권도 完人跆拳道
교포 할인우대
이경태, 이현우 사범 직접책임지도
중앙도장 : 2281 YONGE ST. 전화 : 483-4002
동부도장 : 1865 LAWRENCE AVE. E. 전화: 759-2500

T · V

아카데미 TV & STEREO CO.
SANSUI, BRAUN, ZENITH, TELEFUNKEN 등
◉ 특별대매출, ◉ 월부판매 알선
★ 동부 255 MORNINGSIDE AV. 282-2820
★ 서부 Finch West Mall(Finch & Weston) 745-5555

STEREO KING 전화 : 766-4770
◉ 고급 라디오, 전축 전문센타
◉ 전축 스테레오 수리전문
◉ 비데오 취급
2989 DUNDAS ST. W. (킬 × 던다스)

T.V 수리는 431-0102
전화 : 431-0102 Mr. 박

페인트 · 벽지

페인트 또는 벽지때문에 걱정하십니까? 안심하시고 저희에게 맡겨보십시요.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 기술로 성심껏 모시겠읍니다. 전화상담도 환영합니다.
전화 : 731-4204 (Mr. 신)

하드웨어

Bloor & Bathurst Hardware
전화 : 531-6183 변 의섭

한방원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지압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온타리오 면허소유 함병섭 M.C.I.C. R.M.
◉Downtown Office : (416)537-6685 8am~6 : 30pm
621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Toronto
◉Willowdale Office : (416)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 (Yonge St.에서 Bayview근처)
VISA 또는 MASTER CHARGE 환영

하르빈한약상사 각종 디스트마 특효약 입하.
20년간 한의사 경험(중국의사 자격증 소유)
20년간 하르빈한의대학교수
정확한 진단과 처방
한약으로 암환자를 치료
중국본토에서 한약 직수입
(사향, 경명, 주사, 우황, 진주, 웅담, 인삼, 녹용등)
643A BLOOR ST. W. (신용조합옆)
전화 : (B)536-6854, (R)226-3874 이 춘봉

파실 물건이 있으시거나 교환하시고 싶은 물건이 있으시면 저희 안내광고를 이용해 보세요. 그 효과에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보 광 한 약 방
30여년의 (부산) 임상경험을 토대로 교민여러분의 건강관리에 미력하나마 이바지하기 위해 친근한 상담역이 되고자 하오니 한약및 침구에 대한 격의 없는 상담을 바랍니다.
주소 : 92 Brantwood Drive (스카보로 제너랄병원근처)
전화 : 439-6717 김 남 집

아세아한약상사 (645 Bloor St. W.)
진품 웅담·녹용·인삼·우황·사향·경명등 취급.
전화 : (B)530-0522, 530-4900, (R)531-4165

침뜸,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 (내장질환) 박 영 숙
진료시간 : 매일 10AM~8PM 전화 : 922-7090
700 ONTARIO ST. #517(St. Jamestown)

김명종한약방
2433 Finch Ave. W. #411
전화 : 745-2058

동방체질개선연구원 전화: 745-8899(우 봉)
◉한약과 침·뜸·특수부항료법·지압·단식료법. ◉고혈압·신경통·요통·두통·심신불안과 불면증 ◉2433 Finch W. #516

화 랑

U.C.Painting Studio
미술 개인지도, 유화·수채화·뎃상
전화 : 530-4991

회계사무소

김인규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501 Yonge St. #207, Toronto
전화 : 960-5736(B), 844-0178(R)

정필주회계사무소
Tax Return, Tax Planning
4750 Jane St. Suite. 608 전화 : 661-1819

최태권종합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개인세무및 보고서작성, 사업회계및 장부정리
637 A BLOOR W. 전화 : 533-7573(B)

김명숙회계사무소
33 Cherryhills Rd, Concord, Ont.
전화 : 669-2710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 한국일보 안내광고 * 한국안내광고에서

아세아 한약방

◉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각종보약, 각종병약
◉ 물리치료(식이요법, 단식요법, 무료상담)
◉ 무병장수의 비법은 한약과 건강식품으로
◉ 영업시간 : 월-토: 오전 8시 - 오후 8시

645 Bloor St, W. 530-4900(B)
전화 : 531-4165(R), 530-0522(B).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BLACK SEA Fish Wholesale Ltd.
각종 생선 소·도매합.

〈영업시간〉
월 · 토: 8:00 a.m-5:00 p.m
화·수·목: 오전8시-오후6시
금 : 오전8시-오후7시
16 Osler St.
전화 762-7255,7256,2700

구인

가게 학생 Helper 구함.
매일 학교수업후 2시간~3시간씩 Help 요!
Kipling & Albion 지역, 전화 : 741-7692

유경험자 캐쉬어 구함.
1220 Davenport Rd. (OakWood Ave×Davenport)
전화 : 656-3020

Part Time 웨이트레스 구함.
Mon.-Fri. 11:00a.m.-3:00p.m.
전화 : 368-2470 (after 2:00 p.m.)

GROCERY에서 Cashier 하실분과 HELPER
구함. (단, 유경험자 여자분에 한함)
전화 : 598-2546

Hamburger 식당 HELPER 구함.(남자분 환영)
영어대화 필수. FULL TIME.
5608 YONGE ST. 내방바람. (HOT CORNER)

토요일만 사무실에서 근무하실 여자분 구함.
문의처 : 533-2363 Mrs. 김

파타임 웨이트레스 구함.
전화 : 537-0432

First Canadian Place에 있는 Juice Bar에서 일하실 용모단정한 여자분 구함(18세-25세) 월-금(주말은 쉼)
전화 : 438-0403(6시이후 Mrs. 유)

유경험자 Helper구함(남자분)
Grocery Store(채소 & 과일)
전화 : 597-1115(오전 8-10시사이)

기술직 사원 모집

◉자 격

1) 고졸이상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소지한 신체 건강한자.
2) 인쇄용 카메라(NUARC) 취급경험이 있거나 훈련 받을분.
3) 운전 경력 6개월 이상의 운전면허 소지자.
4) 신문제작및 발송에 관심을 갖고 협조할수 있는분.

본사 공무국(박정서 국장)으로 직접 내방하시거나 자필 이력서를 우송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일보사 공무국
전화 : 533-2364

구혼

결혼상담, 직업소개, 전자침 (한국기원내)
653A BLOOR ST. W. TORONTO. (18부터 60세사이)
전화 : 533-0168 매일1시~10시 Mr.최·김

5일에 $13로 원하시는 바를
찾으실 수 있읍니다.

기타

걱정이 있으신 분은 오십시요.
Card, 손금, Tarot등으로 당신의 걱정을 해결해 드리겠읍니다. 전화 : 652-1280 (Mrs. Adroe)

한국일보
안내광고는
내보신 분만이
그 효과를 압니다.

매매

★Bargain Variety
현대식 Plaza(at Oshawa Main St.) 2,400 sq.ft.
주매상 : $7,000. 장래전망 최고.
최저의 가격으로 팔고자함. $59,000+stock.
★ High Volume Convenience Store.
성업중이며 매우 바쁜거리에 있는 Plaza안에 있음.(Oshawa) 주인이 새로운 Business를 하기때문에 좋은 가격으로 팔고자 함.
$60,000+stock, 6년 리스

Bagot Realty Inc. (Realtor)
Phone : 1-579-4010
after hours Frank Magnus 683-8154

Brick Building + Variety & Grocery
아스킹 : $129,900.(West Toronto)
A.E.LePAGE
Chaherine Ryerson
전화:537-3431

서울집 식당 매매함. 관심 있으신 분 내방바람.
좋은 값으로 양도코저함.
615 Bloor St. W.

가정사정으로 부득이 앞으로 전망좋은 휜치×웨스턴 몰안에 있는 쌍방울 메리야스 가게(애기옷, 베드스프레드, 담요, 카페트)를 매매코저 하오니 연락 바랍니다.
〈애기옷 0-6살까지〉 3467 Finch West Mall
전화 : 746-3458 Mrs.윤

카메라 상점 급매
619 Bloor st. W
전화 : 534-1085 Mr.김

Smoke & Gift Shop
for Sale

High Sales Volume &
Best Lottery Ticket Sales place
No Competition &
No Grocery Prime Plaza in Scarborough.

For More Information & Appointment
Call : 751-5176

Variety Store 매매.
주매상 : $4,800. 리스 : 3년+옵션 5년(Arbitration)
아스킹 : $39,000+스탁. 1000 Pape Ave.

발전성 있는 가게임. 현재 주매상 : $3,000
리스 : 5년 + 5년
전화 : 466-7698 Mr. Lee

벡커프렌차이스 매매
연락처 : 691-9414 (월-금 오후5시이후)

성업중인 Variety Store for Sale. 가정사정으로 급매. 저렴한 가격으로 양도하겠음. 주매상 : $3,000. 렌트 : $300(M)
전화 : 259-0323

Variety & Gift Shop. 소자본으로 인수 가능.
발전성 있는 위치. 매상 증가 일로에 있음. 리스 : 5년+옵션 3년.주소 : 290 Eglinton Ave. W.

Variety Store, no grocery
3447 St.Clair Ave. E.(at Birchmount)
전화 : 265-9000

새 Store 양도(New Plaza) 전망좋은 가게를 사정에 의하여 양도 코져함 새로 Set up 하실분.
전화 : 532-7421 Mr.서

Bloor West Village
▲Coffee Shop. 전망이 대단히 기대됨.
High Rise 건물들이 옆에 있음. 아스킹 : $29,000
▲Varity & Gift & 6 Video Machines
아스킹 : $34,000. 머신으로부터 월수입 $3,000
▲7 Unit Apt.
Gross : $25,400. 아스킹 : $220,000
▲Special Spacious Town House
3 Bed Rm. Balcony. Storage
Mortgage : $24,000 at 10%
Call : Doris Bruda 763-5555
High Park Area
▲Modern Full Equipped 49 Seats
식당+Two 6 Rooms Apt.
최고의 분위기를 갖추고 있음. 아스킹 : $49,500
Call : Goe Zammit 763-5555
Cholkan Real Estate

Carpet Cleaning Business for Sale
순 월수입(Net Income/M.) $4,000(Brampton 지역)
아스킹 : $20,000. 전화 : 791-3570(Mr. Yosuke)

〈버라이어티 스토아 주매상 $5,000〉
아스킹 : 50,000+스탁. 렌트 : $900(2층에 4베드룸 포함)
4975 Yonge St. (세파드×영)

Tuck-Shop 매매
주매상 : $4,500. 리스 : 2년+5년
연락처 : 272-4568, 270-1371

Store 장비 일절 급매(사용하던것)
오전중 문의바람.
전화 : 221-6544 (Mr. 안)

Variety & Grocery Store
주매상 : $5,700. 아스킹 : $57,000+스탁
리스 : 5년+옵션 5년.(10개월전에 Open한 Store로서 앞으로 전망이 크게 기대됨)
2643 Eglinton Ave. E.

기관및단체

총영사관	598-4608
한인회	755-9288
노년회	755-8079
실업인협회	533-7923
Y.M.C.A.	536-1166
외환은행	364-2890
외환은행 Bloor 지점	533-8593
한일은행	865-0456
코리아타운번영회	532-2727
호남향우회	651-8835
무역진흥공사	977-8784
동우회	261-2917
캐나다체육회	533-9336
한인신용조합	533-9387
천주교신용조합	363-0097
K. A. L.	862-8250
조흥은행	363-3448

아파트렌트

독신자 방세놓읍니다. (단기 체류도 환영)
또한 Part Time 봉제작업하실분 환영.
상세문의 6시이후 530-1046

방세 놓읍니다.(곧 입주가능)
2-Bed Room(Keele St. & St. Clair) 1-Bed Room
(Dundas & George St.) 전화 : 226-2077, 763-3289

독신녀 방세 놓음(부엌 같이 사용)
전화 : 653-0771

한국일보 안내광고를 이용하세요.
즉시 좋은 결과를 얻으실 것입니다.

부동산

복덕방 ROYAL TRUST CO.(로얄 트러스트)
곽석용 전화 : (B) 752-3111, (R) 298-2546

D.F.McALLISTER R.E.LTD. 김 시 성
투자전문(IC & I)
전화 : (B) 497-0600

이 훈 모 부 동 산
전화 : 225-1204

황 용 현 부 동 산
(주택매매, 사업체 일체)
전화 : (B) 449-8644~5. (R) 286-1548

ROYAL TRUST (유 복 영)
전화 : 762-8255 West 지역

CANADA PERMANENT TRUST CO.
황 순일 전화: 481-3443(B) 745-5485(R)

A.E. LEPAGE (우 덕 이)
전화 : 741-9170

SINCERE REALTY INC. (채 준정: David Chae)
주택 사업체등 모든 부동산 취급.
전화 : (R)633-7892. (B)497-8900

저희 한국일보 안내광고는 저렴한 비용으로
놀라운 광고효과를 드립니다.
광고문의, 신청 : 533-2361~4

차매매

GRANT BROWN
1575 Weston Rd.
전화 : 247-7161 이 한 구

MARVIN STARR
3132 Eglinton Av. E. Scarboro.
전화 : 264-2311 조 의 문

North York Chev-Olds Ltd.
○. 시보레, 올스모빌, Van및 각종 중고차(lease도 취급)
○. 가장 오랜 경험의 쎄일즈맨
○. 철저한 After-Service
7200 Yonge St. (영 × 스틸)
전화 : (B) 881-5000 (R) 221-2979 김 병권

가구점

ecosys Ecosys Furniture
* 고급가구 전문 * 저렴한 가격 *신용보장
2300 Yonge (영 × 에그링톤)
전화 : 486-0397 (김 만구)

LEON'S 가구·카페트·전자제품
20 McLevin Ave(세파드×마캄)
전화 : (B) 291-3818, (R) 749-9687, 746-0981 조 석 민

간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E.
전화 : 751-9236, 757-2106 홍 진 표

J Studio Signs (각종 간판, Silk Screen, Graphic)
127 Manville Rd. at Warden & Eglinton
전화 : (B)755-9087, (R)755-5304 이종소

귀금속수리

M & J JEWELLERY REPAIR 시계및 귀금속 수리
1530 Albion Rd. Rexdale (Kipling · Albion)
전화 : 742-1205(B)(R)743-4842 Mr. 마

꽃집

다우스 꽃집 (DAWES FLORIST)
◉각종 어랜지먼트 & 각종플랜트 ◉각처 주문배달함
464 DAWES RD. (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전화: 751-5851(B) 757-6711(R) 이 동 환

제인·파크 꽃집 (JANE PARK PLAZA안)
각종파티, 생일, 결혼, 장례꽃주문·배달함.
875 JANE ST. TOR. 전화: B) 769-0609 R) 242-5194(여정웅)

정 손 꽃 집 MARKLANDWOOD PLAZA 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전화: 622-8516(B), 279-3719(R) 허소피아

도서판매

World Book (백과사전)
전화 : 533-2364, 242-5774 (Mrs. 김)

메리야스

온가족이 애용하는 고급내의 쌍방울 메리야스
602 BLOOR ST. W.
전화 : 532-5394(B). 742-0737(R)

쌍방울 메리야스
Weston Mall (웨스톤 × 휜치)
전화 : 746-3458

번역및통역

번역, 통역 (통역은 필요일만 합니다.)
CHARLES YU (유좌석) 10 SUNRISE AVE. UNIT 203,
M4A 2R1 전화 : 759-9505 (5시 이후)

미용

킴스미용실
(코리아하우스 뒤)
전화 : 532-7094(B) 438-0628 (R) Mrs.Oh

소니아미용실 신부화장, 남녀커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옆)
전화 : (B)759-8854, (R)755-2759 미세스 허

로마노미용실 김 조 자
330 Dixon Rd. W. (Islington 과 Kip ling 사이)
전화 : 248-2957(B) 247-6875(R)

스타미용실 미세스 김
남녀 커트, 파마전문, 9am-8pm. 일, 월요일 휴업
2437 Finch Ave. W. (B)741-4410, (R)742-0827

마야미용실
631 Bloor St. W.
한국관 앞, 서울여행사 이층
전화 : 588-1480(B), 924-0221(R)

레이몬드미용실 (주잔: 한국인)
•남녀 컷, 파마전문
•월-금: 오전9시-오후8시, 토: 오전9시-오후5시
•2491 Lakeshore Blvd.(레이크셔×로얄욕) 전화: 255-4745

ANNIE'S BEAUTY SALON
◉남·녀 파마, 컷트, 화장전문, 여드름, 주름살 치료, 메니큐전문, 머리염색, 귀걸이 구멍뚫기.
◉차편제공 가능, 불란서고급 화장품 취급.
812 Queen St. E (퀸×브로드·뷰) 463-9071 Mrs.Lee

변호사

"이민법과 그에 따른 제반업무 전문"
새로 이전한 주소: 390 Bay St. 19층
Tor. Ont. ▲ 361-0404
▲ 593-1818
Barrister and Solicitor
SHELDON M. ROBINS

보석

Young Sook's 보석상
★각종 보석 취급, 최저가격, 중고교환가능
215 Yonge St. (B)368-7961 (R)690-6217 민영숙

보험

CANADA LIFE (강학수)
전화 : 868-0922

김종조 종합보험
전화 : 535-7200

임페리알 LIFE (김홍량)
전화 : 961-3774

SUN LIFE (백용빈)
전화 : 497-3800

조규혁 종합보험
전화 : 233-6236

SUN LIFE (윤호영)
전화 : 922-3111

SUN LIFE (김신명)
전화 : 791-8196

비데오 센타

◉ 각종 비데오 테이프 대여전문
◉ 품질보장, 신용본위 ◉ 비데오 기계, T.V.판매
전화 : 532-0210 손 병 헌

빵 집

Health Bread Bakery
결혼·생일·파티케익등 전문 (배달가능)
534 St.Clair Ave. W. 전화 : 653-1149 Mrs.배

사무용구및계산기

S B S 캐쉬 레지스터 (퀸스웨이×이슬링톤)
각종 전자계산기 취급 (2년간보증)
전화 : 252-7377 (R)762-4536 Mr. 안 수일

사진

새 한 칼 라 현 상 소 (R)654-5691 전화 : 535-7772
결혼 · 돌사진 · 각종 증명사진 · 회갑 · 출장환영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630 BLOOR ST. W. TOR.

무 지 개 칼 라-촬 영 전 문
COMMERCIAL·ART PHOTOS·WEDDINGS·VIDEO촬영
36 Neapolitan Dr. 전화 : 438-4435 오후9시30분까지

귀하의 기업을 불황을 모르는 사업체로
키우고 싶지 않으십니까?

선물센타

거 북 이
617 BLOOR ST. W. 전화 : 535-2143

생선

K & R Sea Food
전화 : 259-1585
▲얼리지 않은 각종 생선.
▲싱싱한 횟감 주문받음.
765 The Queensway & Royal York.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 한국일보 안내광고 * 한국안내광고에서